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7)

- 제3차(2006)년도 자료 분석 -

이용자 안내

- 본 보고서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6년도에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의 기초통계 결과와 빈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의 전문과 한국교육고용패널 3차(2006)년도 조사에서 실제 사용된 설문지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등은 한국교육고용패널 홈페이지(<http://keep.krivnet.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분석에 사용된 빈도표 통계는 raw data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에 관련한 문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EEP 연구진(keep@krivnet.re.kr 02-3485-5266/512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시사점 및 해석상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 제1절 조사 목적과 필요성 · 3
- 제2절 조사 대상 및 내용 · 5
- 제3절 조사 결과 · 10
- 제4절 유의사항 · 14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 제1절 표본설계 · 19
- 제2절 가중치 · 24

제3장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 제1절 보호자의 특성 · 35
- 제2절 가구소득과 지출 · 41
- 제3절 가정생활 · 45
- 제4절 여가생활 · 48

제4장 구직활동과 근로경험

- 제1절 구직활동 · 65
- 제2절 재학 중 근로경험 · 74

제5장 직업경험과 직업생활

- 제1절 직업경험 · 85
- 제2절 직업생활 · 99
- 제3절 비경제활동 현황 · 113
- 제4절 경제의식 · 116

제6장 진로지도와 진로계획

- 제1절 적성인지 및 진로지도 · 127
- 제2절 희망 교육 수준 및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 135
- 제3절 미래 직업 · 138
- 제4절 진학 계획 · 144

표목차

- <표 I-1> 응답 대상별 설문지 변화 · 5
 - <표 I-2> 고등학생 설문지 조사내용 · 6
 - <표 I-3> 대학생 설문지 조사 내용 · 7
 - <표 I-4> 취업자 · 비진학자 설문지 조사내용 · 8
 - <표 I-5> 가구 설문지 조사내용 · 9
 - <표 I-6> 1차(2004)년도 조사 결과 · 10
 - <표 I-7> 2차(2005)년도 조사 결과 · 11
 - <표 I-8> 3차(2006)년도 조사 결과 · 11
 - <표 I-9> 1~3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12
 - <표 I-10> 1~3차년도 패널 상태변화(1~3차년도 모두 조사 성공한 패널 기준) · 13
-
- <표 II-1> 조사 모집단의 결정과정 · 20
 - <표 II-2> 지역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 20
 - <표 II-3> 지역별 표본학교 수(중학교) · 21
 - <표 II-4> 지역별 표본학교 수(일반계 고등학교) · 22
 - <표 II-5> 학교유형별 표본학교 수(전문계 고등학교) · 22
-
- <표 III-1> 보호자 유형 · 36
 - <표 III-2> 남성보호자의 현재 수입 유무 · 36
 - <표 III-3> 남성보호자 월평균 소득 · 37
 - <표 III-4> 남성보호자 직업분류 · 38
 - <표 III-5> 여성보호자의 현재 수입 유무 · 39
 - <표 III-6> 여성보호자 월평균 소득 · 39
 - <표 III-7> 여성보호자 직업분류 · 40
 - <표 III-8> 가구소득의 분포 · 41
 - <표 III-9> 자산총액 · 42
 - <표 III-10> 현재 부채 유무 · 42
 - <표 III-11> 월평균 저축액 · 43

- <표 III-12> 월평균 생활비 · 43
- <표 III-13> 패널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 44
- <표 III-14> 거주형태 · 45
- <표 III-15> 가정생활 만족도 · 46
- <표 III-16> 방과 후 시간 보내는 곳 · 46
- <표 III-17> 방과 후 집에 있는 사람 · 47
- <표 III-18> 가출 경험 · 47
- <표 III-19> 평일 여가시간 · 48
- <표 III-20> 휴일 여가시간 · 49
- <표 III-21>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평일-첫번째) · 50
- <표 III-22>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휴일-첫번째) · 51
- <표 III-23> TV 시청시간-평일 · 51
- <표 III-24> TV 시청시간-휴일 · 52
- <표 III-25> 컴퓨터 사용여부 · 52
- <표 III-26> 컴퓨터 이용시간-평일 · 53
- <표 III-27> 컴퓨터 이용시간-휴일 · 53
- <표 III-28> 독서경험여부 · 54
- <표 III-29> 독서 분야 · 54
- <표 III-30> 동아리 활동 여부 · 55
- <표 III-31> 동아리 활동 할애시간 · 55
- <표 III-32> 동아리 활동분야(고등학생) · 56
- <표 III-33> 동아리 활동분야(1순위)-대학생, 비진학자 · 57
- <표 III-34> 용돈(액수) · 57
- <표 III-35> 용돈의 용도 · 58
- <표 III-36> 용돈 출처 · 59
- <표 III-37> 친한 친구 여부 · 59
- <표 III-38> 친한 친구와의 대화 · 60
- <표 III-39> 친한 친구와의 활동 · 61
- <표 III-40> 건강정도 · 61
- <표 III-41> 수면시간 · 62

- <표 IV-1> 구직활동(아르바이트 제외) 경험 여부와 미경험 이유 · 66
- <표 IV-2> 구직활동 기간 · 67
- <표 IV-3> 구직 실패 경험 및 실패 횟수 · 67
- <표 IV-4> 구직과정 실패 이유 · 68
- <표 IV-5>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 · 69
- <표 IV-6>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의 도움정도 · 70
- <표 IV-7> 취업정보 취득 경로 · 71
- <표 IV-8>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활용과 도움정도 · 72
- <표 IV-9> 사설 취업 사이트 및 취업알선 기관의 활용과 도움정도 · 73
- <표 IV-10> 허위구인광고 경험 · 73
- <표 IV-11> 근로경험 여부 · 74
- <표 IV-12> 전체 재학 중 근로에 대한 총 소득(1인당 평균) · 75
- <표 IV-13-1> 고등학생의 재학 중 일의 종류 · 76
- <표 IV-13-2> 대학생의 재학 중 일의 종류 · 77
- <표 IV-14> 가장 오랫동안 한 일의 총기간 · 78
- <표 IV-15> 하루 근무시간 · 79
- <표 IV-16> 단위소득기준(소득지급기준) · 79
- <표 IV-17> 일을 하게 된 중요 이유 · 80
- <표 IV-18> 아르바이트 구인경로 · 81
- <표 IV-19> 일의 지속 여부와 일을 그만둔 이유 · 82

- <표 V-1>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일자리 경험(현 일자리 제외) 여부 · 85
- <표 V-2> 일자리 경험 횟수 · 86
- <표 V-3> 일자리 중 1개월 이상 경험 횟수 · 86
- <표 V-4>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 88
- <표 V-5>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직업 · 89
- <표 V-6> 첫 번째 일자리 - 종사상 지위 · 90
- <표 V-7>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 형태 · 90
- <표 V-8> 첫 번째 일자리 - 근무형태 · 90
- <표 V-9> 첫 번째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 · 91
- <표 V-10> 첫 번째 일자리 - 월평균 소득 · 91
- <표 V-11>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 92

<표 V-12>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92
<표 V-13>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 93
<표 V-14>	두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 94
<표 V-15>	두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 중분류별 빈도수	· 95
<표 V-16>	두 번째 일자리 - 종사상 지위	· 95
<표 V-17>	두 번째 일자리 - 일자리 형태	· 96
<표 V-18>	두 번째 일자리 - 근무형태	· 96
<표 V-19>	두 번째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	· 96
<표 V-20>	두 번째 일자리 - 월평균 소득	· 97
<표 V-21>	두 번째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 97
<표 V-22>	두 번째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98
<표 V-23>	두 번째 일자리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 98
<표 V-24>	현재 일자리 개수	· 99
<표 V-25>	현재 일자리 유형	· 99
<표 V-26>	임금근로자 - 입사 형식	· 100
<표 V-27>	일 해당 산업	· 100
<표 V-28>	일 해당 직업	· 101
<표 V-29>	현재 일자리 - 일자리 형태	· 102
<표 V-30>	현재 일자리 - 근무형태	· 102
<표 V-31>	현재 일자리 - 비상용직 근무 이유	· 102
<표 V-32>	현재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	· 103
<표 V-33>	현재 일자리 - 직장 소속유형	· 103
<표 V-34>	현재 일자리 - 종업원 규모	· 103
<표 V-35>	현재 일자리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104
<표 V-36>	현재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 104
<표 V-37>	현재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105
<표 V-38>	현재 일자리 - 일주일 총 정규 근무시간	· 105
<표 V-39>	현재 일자리 - 월평균 임금	· 106
<표 V-40>	현재 일자리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 106
<표 V-41>	현재 일자리 - 월평균 특별급여	· 107
<표 V-42>	현재 일자리 - 임금 산정 방식	· 107
<표 V-43>	현재 일자리 - 임금 받는 곳	· 107

- <표 V-44> 현재 일자리 - 노동조합 여부 · 108
 - <표 V-45> 현재 일자리 - 일·업무에 대한 생각 · 109
 - <표 V-46> 현재 일자리 - 일·업무 만족 평가 · 109
 - <표 V-47> 현재 일자리 - 근무여건 만족도 · 111
 - <표 V-48> 현재 일자리 - 다른 일자리 찾는 유무 · 112
 - <표 V-49> 현재 일자리 - 다른 일자리 찾는 이유 · 112
 - <표 V-50>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 113
 - <표 V-51>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안한 이유 · 114
 - <표 V-52> 일할 의사 여부 · 114
 - <표 V-53> 한계 소득 · 115
 - <표 V-54> 경제의식 관련 분석 대상자 특성 · 116
 - <표 V-55> 소비 행동 - 구매시 꼼꼼히 체크하는 정도 · 117
 - <표 V-56> 소비 행동 - 구매시 가격비교 정도 · 117
 - <표 V-57> 소비 행동 - 총동구매 경향 · 118
 - <표 V-58> 소비 행동 - 유명상표 구매 성향 · 118
 - <표 V-59> 소비 행동 - 물건 최대한 사용 및 유행 민감 · 119
 - <표 V-60> 경제문제 견해 I · 119
 - <표 V-61> 경제문제 견해 II · 120
 - <표 V-62>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 120
 - <표 V-63> 경제적 성공의 중요 요소 · 121
 - <표 V-64> 학교성적과 경제적 성공 연관성 · 121
 - <표 V-65> 부모의 자식에 대한 경제적 책임시기 · 122
 - <표 V-66> 학교 경제교육 유용성 평가 · 123
-
- <표 VI-1> 적성 인지 여부 · 127
 - <표 VI-2> 적성을 알게 된 경로 · 128
 - <표 VI-3>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129
 - <표 VI-4>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만족도 · 131
 - <표 VI-5>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132
 - <표 VI-6>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 · 133
 - <표 VI-7> 진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 134
 - <표 VI-8> 희망 교육 수준 · 135

- <표 VI-9>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 135
- <표 VI-10> 대학 진학 희망 이유 · 136
- <표 VI-11> 희망 전공 선택 여부 및 희망 전공 계열 · 137
- <표 VI-12> 취업 희망 이유 · 137
- <표 VI-13> 미래 직업 결정 여부 · 138
- <표 VI-14> 미래 직업 · 139
- <표 VI-15>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 · 140
- <표 VI-16> 미래 직업 희망 이유 · 141
- <표 VI-17> 미래 직업에 대한 역할 모델 유무 및 알게 된 경로 · 142
- <표 VI-18> 미래직업 전공과의 일치도 · 142
- <표 VI-19> 미래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 · 143
- <표 VI-20> 2007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 여부 · 144
- <표 VI-21> 대학입시 준비 내용 · 145
- <표 VI-22>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 · 146
- <표 VI-23>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시간 · 147
- <표 VI-24> 희망 대학 유형 및 결정 여부 · 148
- <표 VI-25> 희망 전공 결정 여부 및 희망 전공 계열 · 149
- <표 VI-26> 편입(전과) 계획 여부 · 149
- <표 VI-27> 편입 전공과 현재 전공 일치 여부 및 편입을 하려는 주된 이유 · 150
- <표 VI-28> 해외 유학 계획 여부 및 시기 · 151
- <표 VI-29> 해외 유학 계획 국가 · 151

제 1 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조사 대상 및 내용

제3절 조사결과

제4절 유의사항

제 1 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은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교육시스템 및 대학교육 등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양적인 성취가 질적인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이 노정하고 있는 난맥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이처럼 난제로 남아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것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최근 각종 정보자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시계열자료의 성격과 횡단면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패널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계열자료나 횡단면자료에 비해 패널데이터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데이터의 장점으로는 추정의 효율성 (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 공선성(collinearity) 발생 가능성 축소, 추정량의 편의(bias) 감소,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상태간의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 가능,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나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및 동시대생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분석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패널데이터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패널데이터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초기의 표본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이라 지칭) 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1차 조사에서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 추출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EEP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신뢰성 있는 패널 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할 경우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과 노동시장에 대한 엄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 한 차원 높은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현상의 타개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의 모색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조사 대상 및 내용

1. 조사 대상

3차(2006)년도 조사 대상은 크게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자·비진학자, 패널 학생들의 보호자이다. 먼저, 고등학생은 2차(200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학생들이 2학년이 된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으로 설문지는 일반계와 전문계 2종이다. 대학생은 2차(2005)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학년이 되었거나, 재수 등을 통해 1학년이 된 응답자들에 대한 설문지이다. 대학생 설문지는 대학의 종류나 특성과는 관계없이 한 종류이다. 또한 휴학이나 취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학교 과정에 등록을 한 경우도 대학생 설문지에 해당한다. 취업자·비진학자는 더 이상 진학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였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 중도탈락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구 조사는 2차(2005)년도와 동일하게 학생 또는 취업자들의 가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표 I-1> 응답 대상별 설문지 변화

1차(2004)년도	2차(2005)년도		3차(2006)년도	
중학교 3학년생	→ 중학교 3학년생, 일반고 및 실업고 1학년생	→ 취업자·비진학자	→ 일반고 및 실업고 2학년생	→ 취업자·비진학자
일반고 3학년생 실업고 3학년생	→ 고등학교 3학년생, (전문)대학 1학년생		→(전문)대학 2학년생	
가구	→ 가구		→ 가구	

2. 고등학생 조사 내용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학교와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종합고의 일반계를 모두 포함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공업고, 상업고, 농업고, 정보고, 종합고의 전문계뿐만 아니라 조리과학고나 에너지메이선고 등과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고등학생 설문은 크게 학교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사교육, 근로경험, 진로계획 및 지도, 자아관, 경제의식,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 설문 문항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단, 학교생활에서 각 고급에 맞는 문항과 보기가 다른데, 예를 들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계열, 수학, 과학, 제 2외국어 선택 과목, 방과 후 자율학습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2> 고등학생 설문지 조사내용

범주	조사내용
학교생활	◦ 학교명, 학교소재지, 학교유형, 계열(일반고), 교과목(일반고), 세부 전공과(예체능고/실업고), 학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수업시간 평가, 전문교과수업 평가(실업고), 수업태도 평가, 자율학습 실시 및 참여여부(일반고), 교사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습방법, 공부하는 이유, 교과목에 대한 흥미/성취도 평가, 성적등급, 임원 경험, 진학여부와 시기, 무단 결석 경험, 징계 경험
가정생활	◦ 거주지, 남성보호자·여성보호자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대화시간,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 활동,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사람, 용돈 액수, 용돈 사용처, 용돈 마련 방법, 가출경험, 가출기간, 가출 이유, 가구원의 학력변동 및 취업여부, 소득액
여가생활	◦ 여가시간, 여가활동,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정도, 독서량, 독서종류, 동아리 활동 및 시간,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친구들과의 활동, 친구들과의 공통적 특성, 해외여행이나 연수 경험
사교육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재학 중 근로경험	◦ 근로 경험 여부, 종류, 기간, 근무 일수 및 시간, 소득, 근로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진로계획	◦ 미래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명, 직업정보, 역할 모델, 희망이유, 직업 미결정 이유, 희망 교육 수준, 졸업 후 계획, 대학 진학 이유, 대학 희망 전공,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이유
진로지도	◦ 적성 파악 및 방법, 진로지도(학교, 가정), 진로정보 획득방법,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아관	◦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 자신에 대한 평가, 격려자, 자신에 대한 인지 수준
경제의식	◦ 소비행동, 경제교육 도움 정도, 부모의 경제적 책임, 학교성적과 경제적 성공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성공의 중요 요소,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일반적 특성	◦ 건강 상태, 운동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사귀는 사람, 현재 고민거리, 자살고민 여부, 흡연/음주 여부, 폭력 행동 가해·피해 경험, 성관계 경험, 신장, 체중

3. 대학생 조사 내용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의 유형 및 종류에 상관없이 설문 대상이 되고, 휴학 중인 학생도 대학생 설문 대상이다. 조사기준 시점은 대부분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통일하였다. 학교 생활에서는 학생들의 진학 대학교명, 계열(학부), 학과(전공)명 등의 대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문항과 대학 초년생에게만 해당되는 신입생 문항, 졸업예정자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학교생활 이 외에도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진로계획, 경제의식,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표 I -3> 대학생 설문지 조사 내용

범주	조사내용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문항 : 소속 학교명 · 학부명 · 전공명, 학년제, 주야간 여부, 학교소재지, 모집단위, 학과 확정 및 만족도, 교직이수여부, 복수전공(이중전공, 부전공)이수여부, 강의태도, 대학시설과 자원, 학교 생활, 지도교수면담횟수, 등록금 및 마련 방법, 대학성적, 휴학경험여부, 재수계획, 재진학 여부 및 정보 신입생 문항 : 진학방법, 입학유형, 대학과 전공 선택 영향요인, 대학과 전공 만족도 졸업예정자 문항: 취업계획, 취업준비경험 및 경로, 대학교육, 직업관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거주 형태, 월평균 생활비 및 마련 방법, 현재 남·여성 보호자 및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하루 평균 대화 시간, 가정생활 만족도, 한 달 평균 용돈, 용돈의 용도·출처, 가구원 중 졸업자 유무, 졸업자의 관계코드·졸업한 학교 유형·현재 수입 유무·월평균 소득, 가구원 중 진학자 유무, 진학자의 관계코드·진학한 학교 유형, 진학한 대학교/대학원 계열·명
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시간, 주요 여가 활동,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여부·시간·목적별 컴퓨터 사용 정도, 독서 여부·독서량·독서분야, 동아리 활동 여부·활동 동아리 수·할애 시간·활동 형태·분야, 자원봉사 활동 여부·할애 시간·관련 비용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제2외국어공부 여부·사교육 및 혼자 공부한 시간·비용, 공무원 시험공부 여부·사교육 및 혼자 공부한 시간·비용, 종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수·분야·기간·일수·시간·비용·기관·도움 정도, 취업 목적 이외의 교육훈련 경험 여부·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명·급수·시행기관·취득시기, 해외 연수 경험·국가·기간·목적·비용의 주된 부담자
재학 중 근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경험여부, 총 소득, 일의 분야와 종류, 해당 근로 소득, 근무기간 및 시간, 단위소득, 근로이유, 구직방법, 그만둔 이유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직업 결정유무, 미래직업명, 아는 정도, 희망이유, 전공과의 일치도, 미래직업 미결정 이유, 유학계획, 시기, 해외연수 계획, 시기, 2006년 군입대 계획 여부, 군입대를 위한 자격증·교육훈련 경험 여부·분야, 적성 인지 여부
경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행동, 중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도움 정도, 부모의 양육기간, 학교성적과 성공과의 관련도, 경제적 성공의 중요요소, 경제문제, 미래경제상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상태,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혼인상태, 사귀는 사람 유무·동거 여부, 현재 고민거리, 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빈도, 신장, 체중

4. 비진학자·취업자 조사 내용

취업자·비진학자 설문지는 더 이상 진학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였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또는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 중도탈락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설문은 크게 구직활동, 가정생활, 여가 생활, 교육 훈련, Job history, 진로계획, 경제의식, 일반적 특성, 현재 취업 상태, 현 일자리의 특징, 취업 의사, 취업 준비로 구성하였다.

<표 I-4> 취업자·비진학자 설문지 조사내용

범주	조사내용
구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활동 경험 여부·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구직 실패 경험 여부·회수·이유, 직업훈련 참여/자격증 취득/취업 정보 검색/취업 부탁/방문 취업 부탁/면접훈련/직업적성, 흥미검사/취업박람회 참여/구직정보 인터넷 올림 경험 여부·도움 정도, 취업 정보 경로, 워크넷·사설 취업기관 정보 검색·상담 경험 및 도움 정도, 허위구인광고 경험 여부
가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거주 형태, 월평균 생활비 및 마련 방법, 현재 남·여성 보호자 및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하루 평균 대화 시간, 가정생활 만족도, 한 달 평균 용돈, 용돈의 용도·출처, 가구원 중 졸업자 유무, 졸업자의 관계코드·졸업한 학교 유형·현재 수입 유무·월평균 소득, 가구원 중 진학자 유무, 진학자의 관계코드·진학한 학교 유형, 진학한 대학교/대학원 계열·명
여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시간, 주요 여가 활동,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여부·시간·목적별 컴퓨터 사용 정도, 독서 여부·독서량·독서분야, 동아리 활동 여부·활동 동아리 수·할애 시간·활동 형태·분야, 자원봉사 활동 여부·할애 시간·관련 비용
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제2외국어공부 여부·사교육 및 혼자 공부한 시간·비용, 공무원 시험공부 여부·사교육 및 혼자 공부한 시간·비용, 종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수·분야·기간·일수·시간·비용·기관·도움 정도, 취업 목적 이외의 교육훈련 경험 여부·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명·급수·시행기관·취득시기, 해외 연수 경험
직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일을 시작한 시기·그만둔 시기, 일을 한 지역, 일자리의 업종, 일자리에서 한 일, 종사상 지위, 일자리 형태, 정규직·시간제 여부, 월평균 소득, 일주일 평균 근무 일 수, 일주일 총 근무시간, 일을 그만둔 이유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학력, 중학교 중퇴 이유, 중학교 복학 의사 여부, 고등학교 진학 계획 여부,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이유, 고등학교 진학 예상 시기, 고등학교 중퇴 이유, 고등학교 복학 의사 여부, 중퇴한 대학교 명·계열·학부명·학과·전공명, 대학 중퇴 시기·이유, 대학입시 지원 경험 여부, 대학 진학 계획 여부, 대학 진학하지 않는 이유, 대학 진학 예상 시기, 대학 진학 준비 관련 여부, 사교육비, 학원·과외·EBS 시청 시간, 공부 시간, 진학 희망 대학 유형, 진학 희망 대학명, 희망 전공, 2006년 군입대 계획 여부, 군입대를 위한 자격증·교육훈련 경험 여부·분야, 적성 인지 여부
경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행동, 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 도움 정도, 경제적 성공 요소, 우리나라 경제 현안·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생각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상태,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혼인상태, 사귀는 사람 유무·동거 여부, 현재 고민거리, 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빈도, 신장, 체중
현재 취업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취업 여부
현 일자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일자리 수, 일자리 유형 (임금근로자) 취업 경로, 일을 시작한 시기, 직장 명·지역·업종, 직장에서의 하는 일·직책·직위, 일자리 형태, 근무형태, 상용직이 아닌 이유, 근로시간 형태, 직장의 분류 형태·규모, 연금·보험 가입 여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임금·수당·특별급여, 임금 산정 방식, 임금을 받는 곳, 임금 체불 경험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일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인 이유 (자영업자) 시작한 동기·경로, 일을 시작한 시기, 사업체 지역, 사업체 업종, 종업원 유무·수, 월급 체불 경험 여부, 연금·보험 가입 여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월평균 매출액·소득·기대소득, 사업체 분류 형태·준비 기간·총 투자액·대출한 투자액 규모, 일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인 이유 (무급가족종사자) 일을 시작한 시기, 일하는 지역, 일자리 업종, 일자리에서 하는 일, 근무 시간, 월평균 매출액, 이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취업 의사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주일간 일자리 경험 여부·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취업 의사,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하고 싶은 일, 최소 희망 월 소득, 취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

5. 가구 조사 내용

해당 패널(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05년과 동일하게 학생 또는 취업자들의 가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가구 설문지의 구성은 보호자 변동 사항, 남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 여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가구 지출, 주거 상황, 자산과 부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표 I-5> 가구 설문지 조사내용

범주	조사내용
보호자	◦ 보호자 변동 사항(관계, 변동 이유)
남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	◦ 남성 보호자와의 관계, 경제활동 여부, 고용 형태, 월평균 소득, 종업원수, 직종
여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	◦ 여성 보호자와의 관계, 경제활동 여부, 고용 형태, 월평균 소득, 종업원수, 직종
가구 소득, 가구 지출	◦ 월평균 가구 소득,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생활비, 가구원 전체 사교육비, 해당 패널 사교육비
주거 상황	◦ 주택 점유 형태, 거주 지역
자산과 부채	◦ 가구 총자산, 채무 유무, 채무액

제3절 조사 결과

1. 1차년도 조사 결과

1차년도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6,000명과 조사대상 패널의 가구 및 학교행정가, 담임교사이다.

조사대상 중 패널 6,000명과 학교행정가 300명은 모두 조사를 성공하여 100%의 조사 성공률을 보였다. 169개의 가구와 9명의 담임교사는 조사를 거부하여, 가구의 조사 성공률은 97.2%였으며, 담임교사의 조사 성공률은 99.2%였다.

<표 I-6> 1차(2004)년도 조사 결과

(단위 : 명, %)

조사대상	표본 수(명)	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중학교 3학년생	2,000	2,000	100.0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	2,000	100.0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	2,000	100.0
가구(보호자)	6,000	5,831	97.2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	300	300	100.0
담임교사	1,121 ¹⁾	1,112	99.2

주: 1) 각 학교당 4개 학급의 담임(총 1,200명)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급수가 4개미만인 학교는 1~3개 학급의 담임만을 조사함.

2. 2차년도 조사 결과

2차년도의 유효 표본은 6,000명의 패널 중 조사불능자(군대, 유학, 가출, 원양어선, 보호소, 이민, 사망 등) 183명을 제외한 5,817명이다.

유효표본 중 5,256명의 패널을 조사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 성공률은 90.4%였으며, 가구의 경우는 6,000개의 가구 중 5,399개의 가구를 조사 성공하여 가구의 조사 성공률은 90%였다.

<표 I-7> 2차(2005)년도 조사 결과

(단위 : 명, %)

조사대상	유효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계	조사대상별	
중학교 3학년생	5,817 ¹⁾	5,256	3	90.4
일반계 고등학생			1,287	
전문계 고등학생			477	
대학생			2,456	
취업자, 비진학자			1,033	
가구(보호자)	6,000 ²⁾	5,399		90.0

주: 1) 조사 불능자 183명 제외 - 군대 88명, 유학 40명, 가출 49명, 원양어선 3명, 보호소 1명, 이민 1명, 사망 1명

2) 조사불능자의 가구도 조사 대상임.

3. 3차년도 조사 결과

3차년도의 유효 표본은 6,000명의 패널 중 조사불능자(군대, 유학, 가출, 해외연수, 원양어선, 보호소, 이민, 사망 등) 1,248명을 제외한 4,752명이다.

유효표본 중 4,088명의 패널을 조사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 성공률은 86.0%였으며, 가구의 경우는 6,000개의 가구 중 4,676개의 가구를 조사 성공하여 가구의 조사 성공률은 77.9%였다.

<표 I-8> 3차(2006)년도 조사 결과

(단위 : 명, %)

조사대상	유효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계	조사대상별	
일반계 고등학생	4,752 ¹⁾	4,088	1,273	86.0
전문계 고등학생			467	
대학생			1,791	
취업자, 비진학자			557	
가구(보호자)			6,000 ²⁾	

주: 1) 조사 불능자 1248명 제외 - 군대 1106명, 유학 69명, 가출 50명, 해외연수 6명, 원양어선 5명, 보호소 3명, 이민 3명, 사망 4명, 해외취업 1명, 행방불명 1명

2) 조사불능자의 가구도 조사 대상임.

4. 1~3차년도 조사 결과

유효 표본 수는 1차년도 6,000명, 2차년도 5,817명, 3차년도 4,752명이다. 2차년도 183명이었던 조사불능자가 3차년도에 1,248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사불능자의 증가는 군입대자의 증가가 원인이다.

2차년도 군입대자는 88명이었으며, 3차년도 군입대자는 1,106명이었다.

조사성공률은 1차년도 100%, 2차년도 90.4%, 3차년도 86.0%이다.

<표 I-9> 1~3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단위 : 명, %)

표본 수 및 조사 성공률		1차년도 (2004년)		2차년도 (2005년)		3차년도 (2006년)	
유효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6,000	6,000	5,817	5,256	4,752	4,088
	조사실패 표본 수(명)		0		561		664
조사불능 표본 수(명) ¹⁾		0		183		1,248	
조사 성공률(%) ²⁾		100.0		90.4		86.0	

주: 1) 조사불능 사유 : 군입대, 유학, 가출, 해외연수, 이민, 원양어선, 보호소, 사망 등

2) 조사성공률 = (조사성공 표본 수 / 유효 표본 수) * 100

1, 2, 3차년도 모두 조사를 성공한 패널 수는 3,919명(6,000명 기준 65.3%)이었다.

1차년도 중학교 3학년생 중 1, 2, 3차년도 모두 조사를 성공한 경우는 1,671명(2,000명 기준 83.6%)이며, 1차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1, 2, 3차년도 모두 조사를 성공한 경우는 1,225명(2,000명 기준 61.3%)이고, 1차년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1, 2, 3차년도 모두 조사를 성공한 경우는 1,023명(2,000명 기준 51.6%)이었다.

1차(2004)년도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코호트 4,000명에 대한 1, 2, 3차년도 연속 조사성공률은 패널의 군입대로 인하여 중학교 3학년생 코호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I-10> 1~3차년도 패널 상태변화(1~3차년도 모두 조사 성공한 패널 기준)

(단위 : 명)

1차년도(2004년)		2차년도(2005년)		3차년도(2006년)	
조사대상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대상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대상	조사성공 표본 수(명)
중학교 3학년생	2,000	중학교 3학년생	3	일반계고등학생	3
		일반계고등학생	1,287	일반계고등학생 전문계고등학생 취업자·비진학자	1,208 10 2
		전문계고등학생	477	일반계고등학생 전문계고등학생 취업자·비진학자	4 433 3
		취업자·비진학자	11	일반계고등학생 전문계고등학생 취업자·비진학자	1 1 6
		계	1,778	계	1,671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	대학생	1,391	대학생 취업자·비진학자	906 16
		취업자·비진학자	398	대학생 취업자·비진학자	202 101
		계	1,789	계	1,225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	대학생	1,065	대학생 취업자·비진학자	568 28
		취업자·비진학자	624	대학생 취업자·비진학자	63 364
		계	1,689	계	1,023
계	6,000	5,256		3,919 ¹⁾	

주: 1) 1·2·3차년도 모두 조사 성공한 패널 수임. 즉 3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4,088명 중 2차년도 조사에는 실패한 169명의 패널은 제외하고 집계한 것임.

제4절 유의사항

1. 가중치¹⁾ 적용

본 보고서의 통계 수치(빈도, 평균 등)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 적용된 가중치는 모집단 특성(성별, 지역, 학교 유형 등)이 반영되도록 조정된 값이며, 모집단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중치를 표본 수 기준으로 재조정된 값이다.

모집단 수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치를 적용한 통계수치와 표본 수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치를 적용한 통계수치는 빈도에서는 차이(모집단 수와 표본 수의 차이)가 있으나, 비율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보고서의 통계수치(빈도)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 구성 비율을 재조정된 값이다. 즉, 결과표의 통계수치(빈도)는 모집단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구성 비율을 재조정된 후 반올림한 결과²⁾를 나타낸 것이다.

2. 무응답 처리

본 자료의 무응답 유형으로는 ‘잘 모름’, ‘응답거부’, ‘해당없음’이 있으며,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질문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 할 경우 무응답 유형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잘 모름’, ‘응답거부’, ‘해당없음’을 결측치로 처리하고, 통계수치(빈도, 평균)를 산출하였다.

3. 조사대상 구분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을 크게 3가지(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는 6가지(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분 참고. 제2장에 설명된 가중치는 모집단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표본 수를 기준으로 재조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2) 비율 재조정 후 반올림한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 합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빈도에서의 비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올림을 하기 전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반올림 이전에는 서로 다른 값이 반올림한 후에 동일한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등학생은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생은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으로 구분하였다. 2년제 대학생에는 2~3년제 대학생이 해당되며, 4년제 대학생에는 4~6년제 대학생과 외국소재대학 재학생, 외국소재대학의 국내분교 재학생이 해당된다.

비진학자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취업자로 구분하였고, 그 외를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취업자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되며, 미취업자에는 취업준비자 등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재수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해당된다.

제 2 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1절 표본설계

제2절 가중치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1절 표본설계

1.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KEEP의 모집단은 2004년 현재 중학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KEEP의 조사모집단은 『2003년 교육통계연보』의 (전수)조사대상 중학교 2,903개 학교 중 제주도 42개, 도서벽지 166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46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2,249개 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748개 학교 중 제주도 12개, 도서벽지 31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4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631개 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1,297개 학교 중 제주도 17개, 도서벽지 38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5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167개 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중 보통과가 있는 200개 학교 중 도서벽지 24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8개 학교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28개 학교를 합한 1,295개 학교이다. 2003학년도에 2학년인 학생은 2004학년도에 3학년이 되며, 학생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31명 이상의 2학년이 있는 학교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표 II-1〉, 〈표 II-2〉 참조)

<표 II-1> 조사 모집단의 결정과정

(단위 : 개, 명)

구 분	총 학교수	제주도	도시·벽지	학생 수		조사 모집단
				0명	1~30명	
중학교	2,903 ¹⁾	42	166	44	402	2,249
전문계 고등학교	748 ²⁾	12	31	16	58	631
일반계 고등학교	1,497	17	62	47	76	1,295
일반계	(1,297)	(17)	(38)	(39)	(36)	(1,167)
전문계 보통과	(200) ³⁾	(0)	(24)	(8)	(40)	(128)
전체	5,148	71	259	107	536	4,175

주 : 1) 분교 53개 학교 포함.

2)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계열 변경한 14개 학교 중 2개 학교 포함.

3) 종합고등학교 199개 및 계열을 변경한 11개 종합고등학교 중 보통과가 있는 학교 포함.

<표 II-2> 지역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단위 : 개, 명)

구 분 지역	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전문계	일반계			중학교	전문계 ¹⁾	일반계		
			계	일반고	전문계 보통과			계	일반고	전문계 보통과
서울	357	78	204	204	0	120,826	25,456	94,686	94,686	0
부산	159	46	82	82	0	47,991	16,731	29,755	29,755	0
대구	107	21	56	56	0	36,474	8,699	24,416	24,416	0
인천	87	28	49	49	0	35,793	10,133	21,709	21,709	0
광주	69	13	45	45	0	20,506	5,056	13,601	13,601	0
대전	73	13	39	38	1	20,227	4,527	14,601	14,386	215
울산	42	11	25	25	0	16,452	3,828	10,287	10,287	0
경기	392	110	229	182	47	132,889	28,181	80,688	75,351	5,337
강원	83	34	63	44	19	16,537	5,386	11,380	8,554	2,826
충북	91	30	43	43	0	18,409	7,056	11,638	11,638	0
충남	155	36	70	69	1	22,791	7,120	16,279	16,175	104
전북	123	52	83	59	24	23,446	7,587	16,096	13,545	2,551
전남	156	51	78	73	5	21,583	8,337	14,660	14,350	310
경북	169	59	112	102	10	30,529	8,458	22,958	21,632	1,326
경남	186	49	117	96	21	39,964	8,645	28,677	26,710	1,967
전체	2,249	631	1,295	1,167	128	604,417	155,200	411,431	396,795	14,636

주: 1) 전문계 보통과 학생 수 제외.

2. 표본추출방법

KEEP의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학교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을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등 15개 지역(단, 제주도는 제외)으로 층화하고, 전국 학생 수 대비 층화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추출 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표 II-3>, <표 II-4> 참조)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을 공업고, 상업고, 기타고(가사고, 농업고,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해양고는 전국 학생 수 대비 비중이 낮아 기타고로 통합)로 층화하고, 전국의 학생 수 대비 층화된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유형별로 추출 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표 II-5> 참조)

<표 II-3> 지역별 표본학교 수(중학교)

(단위 : 개, 명, %)

지역	지역별 조사구		지역별 학생 수 비율(%)	지역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서울	357	120,826	19.99	20
부산	159	47,991	7.94	8
대구	107	36,474	6.03	6
인천	87	35,793	5.92	6
광주	69	20,506	3.39	3
대전	73	20,227	3.35	3
울산	42	16,452	2.72	3
경기	392	132,889	21.99	22
강원	83	16,537	2.74	3
충북	91	18,409	3.05	3
충남	155	22,791	3.77	4
전북	123	23,446	3.88	4
전남	156	21,583	3.57	3
경북	169	30,529	5.05	5
경남	186	39,964	6.61	7
전체	2,249	604,417	100	100

<표 II-4> 지역별 표본학교 수(일반계 고등학교)

(단위 : 개, 명, %)

지역	지역별 조사구		지역별 학생 수 비율(%)	지역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서울	204	94,686	23.01	23
부산	82	29,755	7.23	7
대구	56	24,416	5.93	6
인천	49	21,709	5.28	5
광주	45	13,601	3.31	3
대전	39	14,601	3.55	3
울산	25	10,287	2.50	2
경기	229	80,688	19.61	20
강원	63	11,380	2.77	3
충북	43	11,638	2.83	3
충남	70	16,279	3.96	4
전북	83	16,096	3.91	4
전남	78	14,660	3.56	4
경북	112	22,958	5.58	6
경남	117	28,677	6.97	7
전체	1,295	411,431	100	100

<표 II-5> 학교유형별 표본학교 수(전문계 고등학교)

(단위 : 개, 명, %)

학교유형	학교유형별 조사구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	학교유형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공업고	202	63,059	40.63	41
상업고	194	59,279	38.20	38
기타고	235	32,862	21.17	21
전체	631	155,200	100	100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각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4개의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각 학급당 학생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학급 수가 4개 이하인 경우는 모든 학급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학급의 학생 수가 x명인 경우 5명을 추

출하기 위해 표본간격(sampling interval ; $y=x/5$)을 설정하고, $[1, y]$ 구간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첫 번호(z)를 선정하고, (z) , $(z+y)$, $(z+2y)$, $(z+3y)$, $(z+4y)$ 번호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즉, 추출된 학급에서 계통추출법으로 5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각 학교당 총 20명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제2절 가중치

1. 가중치 개요

종단연구(longitudinal survey)에서는 횡단면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s) 뿐만 아니라 종단면가중치(longitudinal weights)가 필요하다. 1차년도 가중치는 횡단면조사의 일반적인 가중치 부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횡단면가중치 이외에 종단면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불균등 추출확률 보정, 무응답 보정, 사후층화 보정의 3단계를 거쳐 계산된다.

① 1단계 : 불균등 추출확률(unequal selection probability) 보정

추출확률은 표본추출 과정에서 계산되며,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로 구한다.

② 2단계 : 무응답(non-response) 보정

무응답으로 인하여 조사목표 표본 수와 실제 조사성공 표본 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응답 보정을 한다. 응답률은 조사목표 표본 수에 대한 실제 조사성공 표본 수의 비율로 계산되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구한다.

③ 3단계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의 총합이 실제 모집단 수와 같도록 보정한다. 사후층화 보정값은 가중치의 총합에 대한 실제 모집단 수의 비율로 구한다.

2. 1차년도 가중치

① 추출확률 : 불균등 추출확률(unequal selection probability) 보정

학생의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들의 곱으로 계산되며,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출확률은 지역별(15개 시, 도) 전체 학교 수와 표본 학교 수에 따라 다르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추출확률은 학교유형별(공업고, 상업고, 기타고) 전체 학교 수와 표본 학교 수에 따라 다르다.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지역별 학교 추출확률} = \frac{\text{지역별 표본 학교 수}}{\text{지역별 전체 학교 수}}$$

▶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학교유형별 학교 추출확률} = \frac{\text{학교유형별 표본 학교 수}}{\text{학교유형별 전체 학교 수}}$$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은 각 학교의 전체 학급 수와 표본 학급 수에 따라 학교별로 다르다.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text{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 \frac{\text{추출된 학교의 표본 학급 수}}{\text{추출된 학교의 전체 학급 수}}$$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은 각 학급의 전체 학생 수와 표본 학생 수에 따라 학급별로 다르다.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text{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 \frac{\text{추출된 학급의 표본 학생 수}}{\text{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 수}}$$

학생의 최종적인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된다. 학생의 최종적인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추출확률

학생의 추출 확률 =

$$\text{지역(학교 유형)별 학교 추출확률} \times \text{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 \times \text{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BY_{w1})

$$\text{학생의 추출 확률 보정 가중치 (} BY_{w1} \text{)} = \frac{1}{\text{학생의 추출 확률}}$$

② 응답률 : 무응답(non-response) 보정

1차년도 조사에서는 표본 학생 6,000명 모두 응답하였다. 모든 학생의 응답률은 1이므로,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BY_{w2})

$$\text{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 BY_{w2} \text{)} = 1$$

③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학생의 가중치 총합은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와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200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의 비율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 총합 및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 총합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지역(학교유형)별} \cdot \text{성별}} BY_w1 \times BY_w2 \\ &= \sum_{\text{지역(학교유형)별} \cdot \text{성별}}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end{aligned}$$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BY_w3)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BY_w3 \text{)} = \frac{\text{지역(학교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지역(학교유형)별 가중치 총합}}$$

④ 1차년도 가중치

학생의 최종적인 가중치(BY_weight)는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BY_w1),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BY_w2),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BY_w3)의 곱으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BY_weight)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BY_weight)

$$\begin{aligned} \text{학생의 가중치(} BY_weight \text{)} &= BY_w1 \times BY_w2 \times BY_w3 \\ &=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times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end{aligned}$$

3. 2차년도 가중치

① 응답률 : 무응답(non-response) 보정

응답률은 지역, 성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지역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4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text{응답률} = \frac{(\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1_w1$)

$$\begin{aligned}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F1_w1) &= \frac{1}{\text{응답률}} \\ &= \frac{(\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유효 표본 수}}{(\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 \end{aligned}$$

②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가중치 총합은 1차년도 가중치와 2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2\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1_w1 \\ &= \sum_{2\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2\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가중치 총합(대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1\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1_w1 \\ &= \sum_{1\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2\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가중치 총합(취업자, 미취업자 등 비진학자)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1\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BY_weight \times F1_w1 \\ &= \sum_{1\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2\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1_w2 \text{)} = \frac{(2\text{차년도 학교지역} \cdot \text{성별}) \text{ 전체 학생 수}}{(2\text{차년도 학교지역} \cdot \text{성별}) \text{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대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1_w2 \text{)} = \frac{(1\text{차년도 학교지역} \cdot \text{성별}) \text{ 전체 학생 수}}{(1\text{차년도 학교지역} \cdot \text{성별}) \text{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비진학자)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1_w2 \text{)} = \frac{(1\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text{ 전체 학생 수}}{(1\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text{ 가중치 총합}}$$

③ 2차년도 가중치

2차년도의 최종적인 가중치($F1_weight$)는 1차년도 가중치(BY_weight), 2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F1_w1$), 2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의 곱으로 계산된다. 2차년도 가중치($F1_weight$)는 다음과 같다.

▶ 2차년도 가중치($F1_weight$)

$$2차년도 가중치(F1_weight) = BY_weight \times F1_w1 \times F1_w2$$

= 1차년도 가중치 × 2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 2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4. 3차년도 가중치

① 응답률 : 무응답(non-response) 보정

응답률은 지역, 성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지역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4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응답률 = \frac{(기준별) 3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기준별) 3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2_w1$)

$$무응답 보정 가중치(F2_w1) = \frac{1}{응답률}$$

$$= \frac{(기준별) 3차년도 유효 표본 수}{(기준별) 3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

②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가중치 총합은 1차년도 가중치와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3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2_w1 \\ &= \sum_{\text{3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3\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2_w2$)(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2_w2 \text{)} = \frac{(\text{3차년도 학교지역} * \text{성별}) \text{ 전체 학생 수}}{(\text{3차년도 학교지역} * \text{성별}) \text{ 가중치 총합}}$$

③ 3차년도 가중치

3차년도의 최종적인 가중치($F2_weight$)는 1차년도 가중치(BY_weight),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F2_w1$), 3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2_w2$)의 곱으로 계산된다.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는 다음과 같다.

▶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3차년도 가중치 (} F2_weight \text{)} &= BY_weight \times F2_w1 \times F2_w2 \\ &=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3\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times 3\text{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대학생, 비진학자)

$$\begin{aligned} \text{3차년도 가중치 (} F2_weight \text{)} &= BY_weight \times F2_w1 \\ &=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3\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제 3 장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 제1절 보호자의 특성
- 제2절 가구소득과 지출
- 제3절 가정생활
- 제4절 여가생활

제 3 장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제1절 보호자의 특성

패널 학생들의 보호자 유형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91.3%가 친부모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그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4년제 대학생이 89.9%로 친부모 비율이 높았고, 2년제 대학생 82%, 전문계 고등학생 80.7%, 미취업자 71.6%, 취업자 64.7%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취업자의 경우는 편부 또는 편모의 비율이 28.2%로 다른 그룹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변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3차년도에 보호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반영하였다. 2차년도와 결과를 비교를 해 보면, 미취업자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2차년도의 미취업자는 보호자의 특성이나 가구의 경제적 환경 등이 고등학생이나 4년제 대학생 그룹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냈다. 즉 친부모의 비율이 84.3%로 고등학생 전체 88.5%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편부나 편모의 비율도 2차년도에는 각각 4.4%, 7.2%였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친부모의 비율이 71.6%로 비율이 낮아졌고, 편부가 7.8%, 편모가 11.4%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2차년도의 미취업자는 재수생의 비율이 80.3%로 월등하게 높았던 반면, 3차년도의 미취업자는 45.6%가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그룹의 특성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 보호자 유형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친부모	326(80.7)	1,062(91.3)	421(82.0)	1,004(89.9)	133(64.7)	166(71.6)
부모	16(4.0)	14(1.2)	6(1.2)	18(1.6)	7(3.5)	11(4.8)
편부	23(5.8)	22(1.9)	24(4.6)	30(2.7)	25(12.1)	18(7.8)
편모	30(7.5)	56(4.9)	54(10.5)	53(4.8)	33(16.1)	26(11.4)
기타	8(2.0)	9(0.8)	9(1.7)	11(1.0)	7(3.6)	10(4.4)
전체	404(100.0)	1,163(100.0)	513(100.0)	1,117(100.0)	206(100.0)	232(100.0)

남성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그룹을 제외하면 남성보호자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80% 이상이였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과 4년제 대학생들의 남성보호자 경우에는 90%를 넘어서거나 거의 90%에 가까운 남성보호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은 82.9%였고, 전문계 고등학생 그룹이 81%, 미취업자는 80%였다. 취업자의 경우는 67.5%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남성보호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6.4%로 다른 그룹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남성보호자의 현재 수입 유무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남성보호자 없음	43(9.9)	58(4.8)	56(10.3)	56(4.7)	40(16.4)	30(11.3)
예	354(81)	1,106(90.6)	450(82.9)	1,052(89.8)	163(67.5)	211(80)
아니오	40(9.1)	56(4.6)	37(6.9)	64(5.5)	39(16.1)	23(8.7)
전체	438(100.0)	1,220(100.0)	543(100.0)	1,172(100.0)	242(100.0)	263(100.0)

다음은 패널들의 남성보호자 월 평균 소득에 대한 결과이다. 그룹별로 소득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소득으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 그룹의 경우 35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생들의 남성보호자가 311만원, 미취업자는 272만원, 2년제 대학생 219만원, 전문계 고등학생이 213만원, 취업자 그룹의 경우는 190만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2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는데, 2차년도에는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의 평균이 284만원(미취업자의 남성보호자)이었으나 3차년도에는 350만원을 넘고 있다.

<표 III-3> 남성보호자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00만원 미만	40(11.9)	31(3.0)	25(5.9)	16(1.7)	18(12.1)	16(8.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3(30.5)	154(14.9)	135(32.4)	175(17.9)	61(40.4)	36(19.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4(27.7)	317(30.7)	142(34.2)	288(29.5)	44(29.1)	48(25.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0(26.7)	410(39.7)	95(22.9)	366(37.5)	21(14.2)	72(38.6)
500만원 이상	11(3.2)	121(11.7)	19(4.5)	131(13.4)	6(4.2)	15(8.0)
전체	338(100.0)	1,033(100.0)	416(100.0)	976(100.0)	151(100.0)	187(100.0)
평균	2,130,100원	3,555,700원	2,199,700원	3,117,500원	1,904,500원	2,726,600원

남성보호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그룹별로 다소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관리직’이 21%로 가장 높고,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4.5%,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은 12.6%였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건설 관련직’이 15.3%로 가장 높았고, ‘관리직’ 1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3.4%, ‘영업 및 판매 관련직’과 ‘기계 관련직’이 각각 10.2%, 10.1%이었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 ‘관리직’은 19.2%로 가장 높았고,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3%, ‘건설 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은 12.5%였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의 응답 패턴과 매우 유사한데, ‘관리직’이 24.4%로 가장 높고,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3.7%,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은 13.6%였다.

미취업자 그룹의 경우는 ‘관리직’의 비율이 22.5%로 가장 높고,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이 16.8%였다.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은 14.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3.8%, ‘건설 관련직’ 9.8%로 몇 개의 업종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업자 그룹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농림, 어업 관련직’의 비율이 17.4%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다음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17.3%, ‘관리직’ 16.8%, ‘건설 관련직’이 15.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9.8%로 이 그룹 역시 남성보호자의 직업이 몇 개의 업종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표 III-4> 남성보호자 직업분류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관리직	51(15.0)	222(21.0)	84(19.2)	249(24.4)	26(16.8)	45(22.5)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32(9.2)	133(12.6)	55(12.5)	139(13.6)	5(3.2)	33(16.8)
금융 보험 관련직	3(0.9)	22(2.1)	3(0.6)	20(2.0)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2(0.7)	26(2.5)	2(0.4)	46(4.5)	2(1.5)	2(1.0)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3(0.8)	16(1.6)	5(1.2)	12(1.2)	0(0.0)	3(1.4)
보건 의료 관련직	1(0.4)	17(1.7)	4(1.0)	11(1.1)	0(0.0)	3(1.3)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0.0)	10(1.0)	1(0.2)	6(0.6)	1(0.4)	0(0.0)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0.3)	10(0.9)	3(0.7)	7(0.7)	0(0.0)	0(0.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46(13.4)	78(7.4)	57(13.0)	96(9.4)	27(17.3)	29(14.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5(10.2)	153(14.5)	38(8.7)	140(13.7)	15(9.8)	27(13.8)
경비 및 청소 관련직	4(1.1)	11(1.0)	23(5.2)	8(0.8)	2(1.3)	2(1.1)
건설 관련직	52(15.3)	75(7.1)	55(12.6)	75(7.4)	23(15.1)	20(9.8)
기계 관련직	35(10.1)	67(6.3)	13(3.0)	58(5.7)	8(4.9)	4(1.9)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17(5.1)	28(2.7)	22(5.0)	17(1.7)	3(1.9)	4(2.1)
전기 전자 관련직	8(2.2)	30(2.8)	6(1.4)	23(2.2)	0(0.0)	4(1.9)
정보 통신 관련직	1(0.4)	18(1.7)	2(0.5)	8(0.8)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1(3.1)	33(3.1)	6(1.3)	27(2.7)	7(4.7)	3(1.3)
농림 어업 관련직	23(6.7)	57(5.4)	41(9.4)	40(4.0)	27(17.4)	16(8.0)
군인	3(0.9)	23(2.2)	3(0.7)	13(1.3)	0(0.0)	0(0.0)
기타	15(4.2)	28(2.7)	14(3.2)	23(2.2)	9(5.8)	5(2.5)
전체	343(100.0)	1,057(100.0)	437(100.0)	1,022(100.0)	155(100.0)	199(100.0)

여성 보호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보호자의 일자리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취업자’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은 여성 보호자의 51%-57%가 일자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남성보호자에 비하면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취업자’ 그룹의 경우는 여성보호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8%로 남성보호자의 특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도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III-5> 여성보호자의 현재 수입 유무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여성보호자 없음	32(7.4)	25(2.1)	23(4.3)	37(3.2)	36(14.8)	21(7.9)
예	234(53.5)	671(55.0)	306(56.5)	601(51.2)	115(47.6)	150(57.0)
아니오	171(39.1)	524(42.9)	213(39.3)	534(45.6)	91(37.6)	92(35.1)
전체	438(100.0)	1,220(100.0)	543(100.0)	1,172(100.0)	242(100.0)	263(100.0)

여성보호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생 그룹이 16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생 150만원 미취업자 그룹이 136만원, 2년제 대학생 그룹이 123만원, 전문계 고등학생과 취업자 그룹은 각각 104만원으로 그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보호자들의 월평균 소득의 그룹별 양상은 남성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여성보호자들의 월평균도 남성보호자들과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그룹을 비교해보면, 2차년도에는 146만원(미취업자 그룹)이었고, 가장 낮은 그룹은 취업자 그룹으로 84만원이었다.

<표 III-6> 여성보호자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00만원 미만	79(41.4)	145(29.1)	80(36.2)	114(25.8)	37(43.5)	18(17.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9(51.5)	211(42.3)	110(49.7)	199(45.1)	37(43.6)	71(65.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4.5)	80(16.1)	19(8.5)	61(13.7)	10(11.8)	14(13.3)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2.6)	53(10.6)	11(5.0)	55(12.4)	1(1.1)	5(4.4)
500만원 이상	0(0.0)	9(1.9)	1(0.6)	13(3.0)	0(0.0)	0(0.0)
전체	191(100.0)	498(100.0)	222(100.0)	442(100.0)	86(100.0)	108(100.0)
평균	1,040,400원	1,505,000원	1,232,000원	1,622,000원	1,047,800원	1,361,700원

여성보호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업 및 판매 관련직’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관리직’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21.7%로 가장 높았고 ‘음식서비스 관련직’ 11.2%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집단들에 비해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비율이 11.3%로 높았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음식서비스 관련직’이 33.6%로 월등하게 높았고,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6.1%,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과 ‘관리직’이 각각 8.9%, 8.3%로 높았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9.1%로 가장 높았고, ‘관리직’과 ‘음식서비스 관련직’이 각각 14.9%와 14.7%, ‘농림, 어업 관련직’도 11.1%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의

특징은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24%로 가장 높고, ‘음식서비스 관련직’이 14.3%로 높게 나타난 것은 비슷하나,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이 10.2%,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비율이 9.9%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 본 그룹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취업자의 여성보호자는 농업, 어업 관련직의 비율이 17.5%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여성보호자 직업분류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관리직	18(8.3)	66(10.3)	44(14.9)	52(9.1)	14(12.2)	17(12.5)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20(8.9)	72(11.3)	13(4.5)	58(10.2)	4(3.9)	8(6.2)
금융 보험 관련직	6(2.6)	20(3.1)	6(2.2)	24(4.2)	1(0.8)	5(3.6)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3(1.3)	42(6.5)	8(2.8)	57(9.9)	0(0.0)	5(3.5)
보건 의료 관련직	5(2.4)	21(3.3)	6(2.0)	19(3.4)	3(2.5)	2(1.3)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4)	15(2.3)	3(1.0)	6(1.0)	0(0.0)	0(0.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1.3)	3(0.5)	4(1.4)	6(1.1)	1(0.9)	1(0.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6(16.1)	139(21.7)	57(19.1)	138(24.0)	15(13.6)	24(17.3)
경비 및 청소 관련직	9(4.2)	18(2.9)	10(3.3)	10(1.8)	5(4.1)	9(6.6)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9(3.9)	16(2.5)	7(2.2)	11(1.9)	0(0.1)	7(4.9)
음식 서비스 관련직	74(33.6)	72(11.2)	44(14.7)	82(14.3)	22(20.0)	26(19.0)
기계 관련직	5(2.3)	17(2.7)	7(2.2)	21(3.6)	3(2.5)	1(0.4)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1(4.9)	21(3.2)	22(7.4)	23(3.9)	11(9.8)	10(7.3)
전기 전자 관련직	5(2.5)	33(5.2)	16(5.5)	12(2.1)	1(0.7)	4(3.3)
식품 가공 관련직	1(0.6)	10(1.6)	5(1.6)	6(1.0)	2(1.7)	5(3.9)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8(3.8)	20(3.2)	7(2.2)	17(2.9)	8(7.5)	1(0.8)
농림 어업 관련직	5(2.4)	42(6.6)	33(11.1)	24(4.3)	20(17.5)	11(8.4)
기타	1(0.7)	14(2.1)	6(2.1)	8(1.4)	3(2.3)	1(0.8)
전체	222(100.0)	642(100.0)	298(100.0)	573(100.0)	112(100.0)	137(100.0)

제2절 가구소득과 지출

본 절에서는 응답자들의 가구소득과 지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일반계 고등학생 그룹은 39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생 그룹은 354만원, 미취업자는 286만원, 2년제 대학생은 250만원, 전문계 고등학생 227만원, 취업자는 203만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생 가구의 소득은 273만원, 전문계 고등학생 가구는 266만원으로 두 그룹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3차년도에는 396만원과 227만원으로 고등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대학생 그룹 역시 2차년도에는 4년제 대학생이 277만원, 2년제 대학생이 211만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3차년도에는 354만원과 250만원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도 2차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8> 가구소득의 분포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00만원 미만	54(13.0)	52(4.6)	48(9.6)	47(4.3)	42(18.3)	24(10.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4(27.5)	126(11.1)	120(24.1)	153(14.1)	73(32.1)	58(24.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3(27.1)	280(24.6)	146(29.1)	227(20.9)	59(26.0)	42(17.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2(26.8)	471(41.4)	145(28.9)	436(40.1)	44(19.4)	87(36.6)
500만원 이상	23(5.6)	209(18.4)	42(8.4)	224(20.6)	10(4.2)	27(11.6)
전체	416(100.0)	1,138(100.0)	501(100.0)	1,086(100.0)	227(100.0)	238(100.0)
평균	2,277,900원	3,961,400원	2,502,300원	3,541,200원	2,038,300원	2,866,800원

자산규모에 있어서도 위에서 살펴본 가구 소득과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취업자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모두 자산총액이 '1억원-2억원 미만'에서 가장 응답율이 높았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가구는 '1억원-2억원 미만'이 24.9%로 가장 높았고, '5000-7500만원 미만' 13.6%, '2억-3억원 미만' 12.9%, '3억-4억 미만'은 9.7%순이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가구는 '5000-7500만원 미만'이 23.7%로 가장 높았고, '1억-2억 미만'이 21.5%, '1000만원 미만' 13.9%, '1000-2500만원 미만' 12%, 2500-5000만원 미만은 10.7%로 일반계 고등학생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응답이 많았다. 대학생 그룹을 비교해 보면, 2년제 대학생 가구보다는 4년제 대학생 가구의 경우가 자산 총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비진학자 그룹의 경우 취업자 그룹은 '1000만원 미만'의 응답이 18.9%로 6개의 그룹 중 가장 높았고, '5000-7500만원 미만'이 23%, '2500-5000만원 미만'이

17.4%, '1000~2500만원 미만'이 10.6%로 낮은 수준의 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자산총액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000만원 미만	45(13.9)	34(4.0)	32(7.7)	38(4.3)	31(18.9)	18(10.0)
1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39(12.0)	47(5.5)	29(7.1)	33(3.7)	18(10.6)	21(11.3)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5(10.7)	68(7.9)	43(10.4)	63(7.2)	29(17.4)	15(8.1)
50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76(23.7)	118(13.6)	60(14.5)	87(9.9)	38(23.0)	21(11.6)
7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9(5.9)	64(7.4)	34(8.3)	43(4.9)	12(7.1)	9(4.7)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69(21.5)	215(24.9)	102(24.8)	237(26.9)	27(16.4)	45(24.3)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2(3.7)	111(12.9)	54(13.1)	147(16.7)	7(4.0)	23(12.8)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2(3.6)	83(9.7)	35(8.6)	83(9.4)	3(1.6)	5(2.8)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1.8)	29(3.3)	7(1.6)	30(3.4)	1(0.7)	8(4.2)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3.0)	72(8.3)	11(2.6)	87(9.9)	0(0.0)	15(8.3)
10억원 이상	1(0.2)	22(2.6)	5(1.3)	34(3.8)	0(0.3)	4(2.0)
전체	322(100.0)	864(100.0)	412(100.0)	883(100.0)	167(100.0)	183(100.0)

패널들의 가구 부채 유무와 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40% 가량이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으로 46%였고, 가장 낮은 비율은 4년제 대학생 그룹으로 36.6%였다. 부채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그룹이 1억 1천 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그룹은 취업자 3,935만원이었다.

<표 III-10> 현재 부채 유무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있다	187(46.0)	475(41.3)	196(37.9)	405(36.6)	94(40.3)	108(43.6)
없다	220(54.0)	676(58.7)	321(62.1)	702(63.4)	140(59.7)	139(56.4)
전체	407(100.0)	1,151(100.0)	517(100.0)	1,107(100.0)	234(100.0)	247(100.0)
평균	114,305,300원	62,207,900원	47,899,700원	58,932,700원	39,358,800원	67,983,600원

월평균 저축액의 경우 소득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평균값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생 가구의 경우는 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생 69만원, 미취업자 가구 53만원, 2년제 대학생 가구 46만원, 전문계 고등학생 36만원, 취업자의 경우는 33만원으로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은 저축액을 보이고 있다.

<표 III-11> 월평균 저축액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20만원 미만	185(47.0)	315(28.8)	205(42.4)	320(30.7)	119(54.3)	106(45.1)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80(20.4)	174(15.9)	80(16.7)	144(13.8)	45(20.7)	28(11.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2(18.3)	269(24.6)	94(19.4)	198(19.0)	23(10.4)	44(18.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3(11.0)	238(21.8)	84(17.4)	256(24.5)	26(12.1)	40(16.9)
200만원 이상	13(3.4)	98(8.9)	20(4.1)	126(12.1)	6(2.5)	18(7.6)
전체	394(100.0)	1,094(100.0)	483(100.0)	1,044(100.0)	219(100.0)	235(100.0)
평균	367,300원	696,000원	461,800원	775,900원	331,700원	535,600원

월평균 생활비의 경우도 저축액과 비슷한 양상이다. 소득과 자산이 가장 많은 4년제 대학생 가구의 경우는 20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생 가구 205만원, 미취업자 가구 184만원, 2년제 대학생 가구 157만원, 전문계 고등학생 153만원, 취업자의 경우는 125만원으로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은 저축액을 보이고 있다.

<표 III-12>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00만원 미만	83(20.3)	98(8.7)	92(18.7)	82(7.7)	75(33.7)	42(17.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86(45.3)	431(38.1)	232(46.9)	377(35.4)	95(42.9)	100(41.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5(27.9)	370(32.7)	131(26.5)	357(33.5)	46(20.9)	61(25.1)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6(6.3)	200(17.7)	38(7.8)	222(20.9)	5(2.4)	29(11.8)
500만원 이상	1(0.2)	32(2.8)	1(0.1)	28(2.6)	0(0.2)	10(4.2)
전체	410(100.0)	1,131(100.0)	494(100.0)	1,065(100.0)	222(100.0)	242(100.0)
평균	1,532,800원	2,050,500원	1,573,700원	2,081,200원	1,257,800원	1,844,400원

패널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패널의 상태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 26만원으로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일부 3수생이 포함되어 있는 미취업자의 경우 16만원으로 다음 순이었다. 4년제 대학생 그룹이 8만원,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6만원, 2년제 대학생 4만원, 취업자의 경우 2만원 수준으로 그룹 중 가장 낮은 사교육비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해당자의 다수가 재수생으로 예상되는 미취업자 36만원,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각 22만원, 21만원, 4년제 대학생과 2년제 대학생

의 경우는 9만원과 8만원이었고, 취업자의 경우는 4만원인 점과 비교할 때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3> 패널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없음	300(73.0)	505(45.2)	444(84.8)	861(76.6)	221(94.0)	180(69.7)
10만원 미만	18(4.4)	17(1.5)	5(1.0)	18(1.6)	0(0.0)	4(1.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8(6.8)	47(4.2)	20(3.7)	72(6.4)	3(1.1)	5(2.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7(4.1)	90(8.0)	17(3.3)	52(4.7)	0(0.1)	3(1.3)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4(8.2)	208(18.6)	18(3.5)	54(4.8)	6(2.5)	27(10.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3(3.1)	176(15.8)	17(3.3)	47(4.2)	5(2.2)	23(8.7)
100만원 이상	1(0.3)	75(6.7)	2(0.5)	20(1.8)	0(0.0)	15(5.8)
전체	411(100.0)	1,117(100.0)	524(100.0)	1,123(100.0)	234(100.0)	258(100.0)
평균	67,200원	262,000원	44,900원	82,400원	21,100원	168,000원

제3절 가정생활

현재 패널 응답자들의 거주지 형태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인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94% 정도가 부모님 등 보호자 집에서 생활하였고, 미취업자의 경우도 87.1%가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약 81%가 부모님 집이었고, 16%는 기숙사, 자취, 하숙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기숙사가 8.4%, 하숙, 자취가 16.9%로 1차년도와 비교(기숙사 15%, 자취 9.7%)할 때,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자취나 하숙으로 많이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는 부모님 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6%에 그쳤고, 기숙사 생활이 25%로 매우 높았다. 전반적으로 2차년도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I-14> 거주형태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부모(보호자)집	438(93.8)	1,198(94.1)	459(80.8)	892(72.9)	162(61.6)	244(87.1)
하숙	0(0.1)	2(0.2)	1(0.2)	27(2.2)	0(0.1)	3(1.2)
자취	4(0.9)	5(0.4)	62(10.9)	180(14.7)	22(8.5)	12(4.4)
기숙사	15(3.2)	59(4.6)	30(5.4)	103(8.4)	66(25.0)	9(3.1)
친인척 등 아는 사람집	7(1.6)	7(0.5)	9(1.6)	17(1.4)	12(4.6)	7(2.6)
기타	2(0.4)	2(0.2)	6(1.1)	4(0.3)	1(0.2)	5(1.6)
전체	466(100.0)	1,273(100.0)	568(100.0)	1,222(100.0)	263(100.0)	281(100.0)

그룹별로 가정생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특히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7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고, 2년제 대학생의 경우도 65%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자는 52%,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51.3%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응답이 12.2%정도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전혀 그렇지 않다	18(3.9)	11(0.9)	5(0.9)	3(0.2)	5(1.7)	7(2.3)
그렇지 않다	39(8.3)	77(6.1)	34(6.1)	60(4.9)	23(8.6)	17(6.0)
보통이다	171(36.6)	397(31.3)	160(28.1)	293(24.0)	100(37.7)	84(29.8)
그렇다	187(40.0)	571(44.9)	280(49.2)	644(52.7)	119(44.8)	141(50.4)
매우 그렇다	53(11.3)	215(16.9)	89(15.7)	223(18.3)	19(7.2)	32(11.5)
전체	467(100.0)	1,272(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고등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집으로 오는 경우는 38.3%였고, 자율학습을 하는 등 학교에서 보낸다는 응답은 27.8%, 학원으로 간다는 응답은 19.3%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52.1%가 집이라고 응답하였고, 학교나 학원이라는 응답은 각각 8.3%, 9.8%로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이었다. 대신 ‘친구 집’이나 ‘PC방, 오락실’ 등의 응답은 약 15%로 방과 후 활동이 일반계 고등학생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방과 후 시간 보내는 곳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집	243(52.1)	487(38.3)
학교(자율학습)	39(8.3)	354(27.8)
학원	46(9.8)	246(19.3)
독서실	1(0.1)	105(8.2)
친구 집	18(3.9)	11(0.9)
PC방, 오락실	51(10.9)	23(1.8)
기타	70(14.9)	47(3.7)
전체	467(100.0)	1,273(100.0)

고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어머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51.4% 응답하였고, 전문계 고등학생도 36.6%가 응답하였다. 다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는 비율이 일반계 고등학생은 17%, 전문계 고등학생은 24.7%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17> 방과 후 집에 있는 사람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어머니	171(36.6)	654(51.4)
아버지	31(6.6)	71(5.6)
형제 또는 자매	101(21.7)	249(19.6)
친인척	19(4.0)	41(3.2)
아무도 없음	115(24.7)	216(17.0)
기타	30(6.5)	41(3.2)
전체	467(100.0)	1,272(100.0)

지난 1년간 가출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은 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4.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두 그룹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차년도 결과인 일반계 고등학생 2%, 전문계 고등학생 5.2%보다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III-18> 가출 경험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예	19(4.1)	19(1.5)
아니오	448(95.9)	1,254(98.5)
전체	467(100.0)	1,273(100.0)

제4절 여가생활

본 절에서는 응답자들의 여가생활 전반을 그룹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가시간에 대해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먼저 평일 여가시간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2.4시간으로 가장 작았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은 4.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4.0시간, 미취업자가 4.8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의 경우 2년제 대학생은 4.7시간, 4년제 이상 대학생의 경우는 4.9시간으로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일 여가 시간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평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시간 미만	3(0.6)	52(4.1)	2(0.3)	6(0.5)	1(0.3)	11(3.9)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6(3.5)	329(25.9)	21(3.7)	32(2.6)	16(6.1)	37(13.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64(13.8)	419(32.9)	72(12.7)	122(10.0)	34(12.8)	53(19.2)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83(17.8)	240(18.9)	96(16.9)	211(17.3)	72(27.4)	29(10.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86(18.4)	109(8.5)	97(17.0)	221(18.1)	62(23.6)	31(11.2)
5시간 이상	214(45.8)	123(9.7)	281(49.5)	628(51.5)	79(29.8)	118(42.3)
전체	466(100.0)	1,271(100.0)	568(100.0)	1,220(100.0)	264(100.0)	278(100.0)
평균	4.3시간	2.4시간	4.7시간	4.9시간	4.0시간	4.8시간

휴일의 경우 그 양상이 좀 다른데 가장 여가 시간이 적은 그룹은 미취업자로 6.8시간이었고,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생 6.9시간, 취업자 7.9시간이었다. 다음은 4년제 대학생 8.4시간으로 2년제 대학생 8.5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은 8.9시간으로 휴일 여가시간이 가장 긴 그룹이었다.

<표 III-20> 휴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시간 미만	0(0.1)	3(0.2)	0(0.1)	8(0.6)	1(0.3)	3(0.9)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0.3)	10(0.8)	6(1.1)	7(0.6)	5(2.0)	10(3.7)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6(1.3)	51(4.1)	18(3.3)	32(2.6)	14(5.2)	19(6.7)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5(1.0)	112(8.9)	20(3.6)	51(4.2)	20(7.7)	33(11.8)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28(6.1)	124(9.8)	22(3.8)	44(3.6)	21(8.0)	25(8.8)
5시간 이상	422(91.2)	969(76.3)	498(88.2)	1,081(88.4)	203(76.8)	191(68.2)
전체	463(100.0)	1,269(100.0)	565(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평균(시간)	8.9	6.9	8.5	8.4	7.9	6.8

응답 패널들이 평일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TV 시청’과 ‘컴퓨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TV 시청이 일반계 고등학생은 44.9%, 전문계 고등학생은 37.2%였고, 컴퓨터 역시 일반계 고등학생은 27%, 전문계 고등학생은 약 31%로 높았다. 4년제 대학생들의 경우는 컴퓨터가 TV 시청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컴퓨터가 36.9%, TV 시청은 21.4%였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TV 시청이 35.8%, 컴퓨터는 30.2%로 TV 시청이 다소 높았다. 취업자의 경우는 TV 시청이 41.6%로 컴퓨터 28.5%보다 높았으나, 미취업자의 경우는 컴퓨터가 37.1%로 TV 시청 28.1%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일반계 고등학생이 독서나 휴식의 비율이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은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이나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았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비율이 7.4%로 높았고,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 6.2%로 높았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경우는 ‘휴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8.4%, 8.6%로 높은 응답 순위였다.

<표 III-21>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평일-첫번째)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TV 시청	174(37.2)	567(44.9)	203(35.8)	262(21.4)	110(41.6)	78(28.1)
컴퓨터	145(31.0)	340(27.0)	171(30.2)	451(36.9)	75(28.5)	103(37.1)
독서	25(5.4)	96(7.6)	18(3.1)	79(6.5)	7(2.6)	17(6.0)
운동	17(3.7)	42(3.4)	20(3.5)	74(6.0)	10(3.6)	16(5.6)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등 관람	6(1.2)	8(0.6)	23(4.0)	70(5.7)	8(3.1)	4(1.3)
종교 활동	1(0.2)	4(0.3)	0(0.0)	11(0.9)	1(0.3)	3(0.9)
동아리(동호회) 활동	4(0.9)	15(1.2)	7(1.3)	76(6.2)	0(0.0)	3(1.0)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 등	22(4.7)	10(0.8)	15(2.7)	21(1.7)	6(2.3)	2(0.9)
쇼핑	3(0.6)	5(0.4)	11(2.0)	13(1.0)	4(1.6)	3(1.0)
아르바이트	22(4.8)	5(0.4)	42(7.4)	64(5.2)	9(3.6)	8(2.9)
가사 일 돕기	6(1.3)	6(0.4)	5(1.0)	4(0.4)	2(0.6)	3(1.1)
낮잠	11(2.4)	22(1.8)	5(0.9)	14(1.2)	8(3.0)	7(2.5)
휴식	19(4.2)	116(9.2)	33(5.9)	55(4.5)	22(8.4)	24(8.6)
기타	11(2.3)	27(2.1)	14(2.4)	29(2.4)	2(0.7)	8(3.0)
전체	467(100.0)	1,262(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78(100.0)

휴일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평일에 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여전히 컴퓨터 비율이 모든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TV 시청 비율은 감소하였다. 대신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활동 비율에 평일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 비율이 12.2%로 높았고, ‘운동’도 6.0%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 등’이 7.4%로 높았고, ‘운동’이 7.0%,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관람 등’도 4.4%로 높았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았고, 취업자의 경우는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 등’의 비율이 10.5%였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휴식’을 한다는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표 III-22>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휴일-첫번째)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TV 시청	79(16.9)	322(25.3)	111(19.6)	215(17.6)	67(25.5)	52(18.4)
컴퓨터	152(32.5)	411(32.3)	142(25.0)	323(26.4)	46(17.4)	91(32.5)
독서	14(2.9)	31(2.5)	11(1.9)	49(4.0)	4(1.4)	7(2.5)
운동	33(7.0)	77(6.0)	23(4.1)	70(5.7)	8(3.0)	17(6.0)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등 관람	21(4.4)	155(12.2)	84(14.8)	149(12.2)	36(13.7)	20(7.3)
종교 활동	22(4.6)	54(4.2)	30(5.3)	85(7.0)	3(1.3)	19(6.8)
동아리(동호회) 활동	6(1.3)	18(1.4)	3(0.5)	20(1.7)	1(0.3)	3(1.0)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 등	35(7.4)	59(4.6)	35(6.1)	44(3.6)	28(10.5)	10(3.7)
쇼핑	14(3.0)	20(1.6)	22(3.8)	33(2.7)	21(8.1)	8(3.0)
아르바이트	31(6.6)	10(0.8)	39(6.8)	118(9.7)	12(4.4)	4(1.3)
가사 일 돕기	12(2.6)	16(1.3)	11(2.0)	14(1.1)	1(0.3)	7(2.7)
낮잠	22(4.7)	53(4.2)	25(4.5)	23(1.9)	13(4.8)	13(4.8)
휴식	19(4.0)	35(2.8)	23(4.1)	49(4.0)	20(7.5)	25(8.9)
기타	10(2.2)	12(1.0)	9(1.6)	31(2.5)	5(1.9)	4(1.3)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1(100.0)	264(100.0)	281(100.0)

TV 시청 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응답자 전반적으로 휴일 시청시간이 평일 시청시간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평일 TV 시청 시간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1.1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취업자와 4년제 대학생 1.5시간, 미취업자 1.6시간, 2년제 대학생 1.8시간, 전문계 고등학생이 1.9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휴일 TV 시청시간은 미취업자가 2.2시간으로 가장 작았고, 취업자 2.6시간, 4년제 대학생 2.9시간, 일반계 고등학생 3.1시간, 2년제 대학생 3.2시간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이 3.6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23> TV 시청시간-평일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30분 미만	38(8.3)	304(24.0)	65(11.5)	210(17.2)	19(7.4)	66(24.0)
30분 이상~1시간 미만	17(3.6)	147(11.6)	33(5.8)	86(7.1)	18(6.7)	29(10.6)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42(30.5)	513(40.5)	172(30.3)	400(32.9)	113(43.2)	65(23.7)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49(32.0)	208(16.4)	172(30.3)	339(27.9)	81(30.9)	56(20.5)
3시간 이상	119(25.6)	95(7.5)	126(22.2)	182(14.9)	31(11.9)	59(21.3)
전체	466(100.0)	1,267(100.0)	567(100.0)	1,216(100.0)	263(100.0)	275(100.0)
평균	1.9시간	1.1시간	1.8시간	1.5시간	1.5시간	1.6시간

휴일 TV 시청시간은 미취업자가 2.3시간으로 가장 작았고, 4년제 대학생 2.5시간, 취업자 2.6시간, 일반계 고등학생 2.8시간, 2년제 대학생 2.9시간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이 3.4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24> TV 시청시간-휴일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30분 미만	18(4.0)	80(6.3)	44(7.8)	139(11.4)	16(5.9)	47(17.0)
30분 이상~1시간 미만	4(0.8)	23(1.8)	12(2.1)	24(2.0)	7(2.7)	6(2.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54(11.7)	185(14.6)	85(14.9)	216(17.8)	53(20.3)	48(17.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93(20.0)	312(24.6)	116(20.4)	280(23.0)	59(22.4)	66(23.8)
3시간 이상	296(63.5)	671(52.8)	312(54.9)	559(45.9)	128(48.8)	110(39.8)
전체	465(100.0)	1,272(100.0)	568(100.0)	1,219(100.0)	263(100.0)	276(100.0)
평균	3.4시간	2.8시간	2.9시간	2.5시간	2.6시간	2.3시간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보면, 취업자가 12%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의 6.1%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2년제 대학생이 3.9%, 일반계 고등학생이 3.2%였고, 전문계 고등학생이 2.9%, 4년제 대학생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컴퓨터 사용여부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예	454(97.2)	1,232(96.9)	546(96.1)	1,210(99.0)	233(88.0)	263(93.9)
아니오	13(2.9)	40(3.2)	22(3.9)	13(1.0)	32(12.0)	17(6.1)
전체	467(100.0)	1,272(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컴퓨터 이용 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이 평일에는 1.2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휴일에는 2.8시간으로 평일과 휴일의 이용 시간이 차이를 보인다. 미취업자의 경우 평일 이용시간 평균이 2.2시간이고 휴일에는 2.5시간으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역시 평일과 휴일의 이용 시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미취업자와 더불어 컴퓨터 이용시간이 전반적으로 낮은 그룹이었다. 평일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룹은 2년제 대학생들이었고

휴일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룹은 전문계 고등학생으로 평균 3.5시간이었다.

<표 III-26> 컴퓨터 이용시간-평일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30분 미만	14(3.0)	215(17.6)	13(2.4)	25(2.1)	15(6.6)	24(9.2)
30분 이상~1시간 미만	32(7.1)	164(13.5)	35(6.5)	82(6.8)	24(10.2)	18(7.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30(28.8)	517(42.4)	159(29.6)	414(34.5)	94(40.6)	83(31.9)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30.8)	216(17.7)	174(32.3)	355(29.6)	51(21.9)	53(20.4)
3시간 이상	137(30.3)	107(8.8)	157(29.2)	326(27.1)	48(20.7)	82(31.5)
전체	452(100.0)	1,219(100.0)	539(100.0)	1,203(100.0)	232(100.0)	261(100.0)
평균	2.1시간	1.2시간	2.2시간	2.1시간	1.9시간	2.2시간

<표 III-27> 컴퓨터 이용시간-휴일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30분 미만	11(2.5)	15(1.3)	32(6.0)	38(3.2)	18(7.8)	17(6.4)
30분 이상~1시간 미만	7(1.6)	30(2.5)	13(2.5)	31(2.6)	9(3.8)	13(5.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58(12.7)	199(16.2)	80(14.7)	232(19.2)	73(31.6)	62(23.9)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97(21.3)	364(29.7)	134(24.7)	306(25.4)	48(20.9)	61(23.6)
3시간 이상	280(61.9)	617(50.4)	284(52.2)	599(49.6)	83(35.9)	107(41.1)
전체	453(100.0)	1,225(100.0)	544(100.0)	1,207(100.0)	232(100.0)	260(100.0)
평균	3.5시간	2.8시간	2.8시간	2.8시간	2.4시간	2.5시간

응답자들의 평소 독서 경험과 그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고서나 만화책, 무협지, 잡지 등을 제외하고 평소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년제 대학생이 88.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일반계 고등학생이 80.6%가 책을 읽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년제 대학생은 73%, 취업자는 61.6%, 미취업자는 57.4%, 전문계 고등학생은 56.2%만이 독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독서 경험 여부와는 달리 전문계 고등학생이 3.6권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생이 3권, 일반계 고등학생 2.6권 순으로 응답하였다. 책을 가장 적게 읽는 그룹은 미취업자로 한달 평균 2.2권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28> 독서경험여부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예	262(56.2)	1,026(80.6)	414(73.0)	1,078(88.2)	163(61.6)	161(57.4)
아니오	205(43.8)	247(19.4)	154(27.0)	145(11.8)	101(38.4)	120(42.6)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평균	3.6권	2.6권	2.5권	3.0권	2.4권	2.2권

독서 분야를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가 가장 많은 응답 분야는 ‘문학’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63.4%, 취업자의 60.4%가 응답하였다. 다음은 ‘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 읽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미취업자의 37.9%, 2년제 대학생은 31.4%, 책을 읽는 비중이 가장 큰 4년제 대학생 그룹의 경우는 30.9%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 응답으로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과학, 기술, 컴퓨터 분야’의 응답이 높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독서 분야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문학(시, 소설류)	148(56.5)	649(63.4)	223(53.7)	536(49.7)	98(60.4)	71(44.1)
과학, 기술, 컴퓨터	6(2.2)	39(3.8)	12(2.9)	30(2.8)	1(0.6)	6(3.6)
경제, 경영 관련	4(1.4)	19(1.9)	16(3.8)	43(4.0)	4(2.7)	6(3.5)
사회과학	3(1.0)	14(1.4)	0(0.0)	34(3.2)	0(0.0)	6(3.5)
예술, 문화, 스포츠	15(5.7)	34(3.4)	13(3.2)	38(3.5)	2(1.1)	1(0.5)
종교	1(0.4)	3(0.3)	7(1.7)	28(2.6)	1(0.9)	6(3.7)
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	66(25.2)	230(22.4)	130(31.4)	333(30.9)	47(28.6)	61(37.9)
기타	20(7.6)	35(3.4)	14(3.4)	37(3.5)	9(5.7)	5(3.4)
전체	262(100.0)	1,025(100.0)	414(100.0)	1,078(100.0)	163(100.0)	161(100.0)

다음은 응답자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55.7%,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38.4%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경우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내 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4년제 대학생의 45.5%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2년제 대학생은 21%로 활동율이 낮았고, 취업자는 10.9%, 미취업자는 9.8%만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룹별로 동아리 활동 개수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전문계 모두 1.4개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그룹들도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평균 개수는 1.4개-1.7개로 그룹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으며, 2차년도에 비해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 여부나 활동 수가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0> 동아리 활동 여부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예	179(38.4)	709(55.7)	119(21.0)	556(45.5)	29(10.9)	28(9.8)
아니오	287(61.6)	564(44.3)	449(79.0)	667(54.5)	235(89.1)	253(90.2)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2(100.0)	264(100.0)	281(100.0)
평균	1.4개	1.4개	1.4개	1.5개	1.7개	1.6개

동아리 활동 할애시간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이 2.0시간, 전문계 고등학생이 2.9시간으로 대학생이나 비진학자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나 비진학자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2개까지 질문하였는데, 아래 <표 >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아리 활동 할애시간에 대한 것이다.

동아리 활동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은 미취업자로 6.7시간이었고, 4년제 대학생이 5.7시간, 취업자 4.4시간, 2년제 대학생 4.3시간 순이었다. 2차년도 결과와 종합해 보면, 응답 패널들의 특성이 활동하는 동아리 수는 줄어들었으나, 그 동아리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 동아리 활동 할애시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1시간 미만	8(4.2)	61(8.6)	6(5.2)	12(2.2)	2(5.7)	2(8.9)
1시간 이상~5시간 미만	150(84.2)	588(83.1)	78(65.5)	331(59.5)	17(59.5)	15(53.8)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9(5.3)	47(6.7)	21(17.9)	100(18.1)	3(10.2)	7(24.1)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0(5.6)	8(1.2)	10(8.2)	75(13.5)	7(23.3)	1(3.2)
20시간 이상	1(0.7)	3(0.4)	4(3.2)	37(6.6)	0(1.3)	3(10.0)
전체	178(100.0)	708(100.0)	118(100.0)	556(100.0)	29(100.0)	28(100.0)
평균	2.9	2.0	4.3	5.7	4.4	6.7

고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 의견을 제외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스포츠, 댄스’가 19.4%로 가장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청소년 단체를 포함한 ‘봉사활동’이 17%였고 일반계 고등학생은 11.7%로 나타났다. 전문고의 경우는 ‘스포츠, 댄스’ 분야가 13.5%, ‘영화, 연극, 사진 등’이 8.7%, ‘미술(회화, 공예, 만화)’이 6.7% 순이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영화, 연극, 사진 등’이 10.6%, ‘음악’이 10.1%, ‘독서, 문예 등’은 6.8%였고, ‘수학, 과학 컴퓨

터 관련'분야도 6.5%로 나타났다.

<표 III-32> 동아리 활동분야(고등학생)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수학, 과학, 컴퓨터 관련	10(5.4)	46(6.5)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3(1.6)	28(3.9)
독서, 문예 등	10(5.6)	48(6.8)
영화, 연극, 사진 등	16(8.7)	75(10.6)
방송, 신문, 교지편집 등	8(4.6)	24(3.5)
환경	2(1.3)	6(0.8)
봉사활동(청소년 단체 포함)	30(17.0)	83(11.7)
게임	7(4.0)	16(2.2)
시사, 정치 등	0(0.0)	8(1.2)
스포츠, 댄스	24(13.5)	137(19.4)
음악	11(6.4)	71(10.1)
미술(회화, 공예, 만화)	14(8.0)	32(4.5)
종교	1(0.3)	18(2.6)
기술, 기능 동아리(자동차, 요리 등)	13(7.5)	15(2.2)
탐사	0(0.0)	6(0.8)
기타	29(16.1)	94(13.2)
전체	179(100.0)	708(100.0)

대학생과 취업자 또는 미취업자들의 동아리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경우는 ‘문화, 예술’ 활동이 4년제 대학생 20.6%, 2년제 대학생 19.4%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레저’ 분야도 4년제 대학생 19.5%, 2년제 대학생 18.1%였다. 다음은 ‘종교’ 활동이나 ‘봉사활동’ ‘친목도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진학자의 특징은 대학생들에 비해 몇가지 활동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취업자의 경우 ‘게임, 오락’, ‘문화예술’, ‘친목도모’, ‘스포츠, 레저’ 등의 순이었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문화예술’이 40.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게임, 오락’ 25%, ‘친목도모’ 11.7%의 순이었다. 또한 학습이나 시험 관련 활동은 거의 응답이 없었다.

<표 III-33> 동아리 활동분야(1순위)-대학생, 비진학자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외국어 학습	1(1.1)	23(4.2)	0(0.0)	0(0.0)
컴퓨터관련학습	8(7.0)	22(4.0)	0(0.0)	0(0.0)
시험준비	1(0.5)	14(2.5)	0(0.6)	0(0.0)
문화, 예술	23(19.4)	114(20.6)	6(21.3)	11(40.3)
문학	1(0.8)	6(1.1)	0(0.0)	2(7.1)
종교	13(10.6)	60(10.8)	2(6.8)	0(0.0)
시민운동단체	2(2.1)	8(1.5)	0(0.0)	0(0.0)
봉사	11(9.1)	54(9.8)	0(0.0)	0(0.0)
게임, 오락	8(6.4)	18(3.2)	7(22.9)	7(25.0)
정치	0(0.0)	1(0.2)	0(0.0)	0(0.0)
스포츠, 레저	22(18.1)	109(19.5)	4(14.9)	0(0.0)
신문방송	0(0.0)	22(3.9)	0(0.0)	0(0.0)
친목도모	14(11.5)	50(9.1)	5(15.9)	3(11.7)
기타	16(13.4)	54(9.7)	5(17.7)	4(15.9)
전체	119(100.0)	556(100.0)	29(100.0)	28(100.0)

응답자들의 용돈 수준과 사용처,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돈 액수 평균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5만 2천원, 전문계 고등학생은 7만 7천원이었다. 용돈 액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미취업자로 그 평균은 약 43만원이었다. 취업자는 15만원으로 2차년도(23만원)에 비해 용돈 규모가 감소하였다. 다음은 4년제 대학생이 25만원, 2년제 대학생이 23만원이었다.

<표 III-34> 용돈(액수)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3만원 미만	70(15.0)	264(20.8)	10(1.7)	8(0.6)	26(29.6)	52(0.0)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127(27.3)	423(33.3)	12(2.1)	15(1.2)	17(19.8)	0(0.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43(30.8)	435(34.2)	37(6.4)	43(3.6)	8(9.1)	0(1.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81(17.3)	117(9.2)	146(25.7)	222(18.2)	11(12.4)	2(8.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6.4)	21(1.7)	155(27.3)	414(33.9)	5(5.9)	0(0.4)
30만원 이상	15(3.2)	10(0.8)	209(36.8)	518(42.4)	20(23.1)	17(69.9)
전체	465(100.0)	1,271(100.0)	568(100.0)	1,220(100.0)	88(100.0)	25(100.0)
평균	77,457원	52,437원	231,050원	251,843원	155,785원	429,837원

응답자의 전반적인 용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식사 및 간식비용’이었고 그 다음은 ‘교통비용’, ‘의류 및 미용관련 비용’이 차지하였다. 위 세 항목을 제외한 그룹별 특성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오락비용’ 12.9%, ‘학용품 및 도서구입 비용’이 12.2%, ‘문화활동 비용’ 9.1%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학용품 및 도서 구입비용’은 4.6% 낮았고, ‘오락비용’이 15.7%로 높았다. 대학생의 경우 문화활동 비용과 음주 및 흡연 비용이 7%와 5%대로 높았고, 취업자의 경우 통신비용이 7.1%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경우는 ‘음주 및 흡연비용’이 8.5%로 높았다.

<표 III-35> 용돈의 용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학용품 및 도서 구입비용	22(4.6)	155(12.2)	15(2.7)	42(3.4)	2(0.9)	28(10.0)
식사 및 간식비용	167(35.8)	521(40.9)	238(42.0)	628(51.4)	69(26.2)	106(37.7)
의류 및 미용 관련비용	90(19.3)	130(10.2)	87(15.3)	124(10.1)	88(33.5)	36(12.9)
건강관리비용(운동 등)	2(0.3)	12(0.9)	1(0.3)	10(0.9)	2(0.6)	5(1.7)
통신비용	5(1.1)	7(0.5)	14(2.4)	26(2.1)	19(7.1)	11(3.9)
문화활동비용(영화관, 연극, 공연 등)	23(5.0)	116(9.1)	41(7.3)	97(7.9)	20(7.7)	19(6.6)
교통비용	65(13.8)	149(11.7)	106(18.6)	180(14.7)	27(10.3)	28(10.0)
음주 및 흡연 비용	12(2.6)	2(0.2)	29(5.1)	60(4.9)	17(6.6)	24(8.5)
오락비용(노래방, PC방, 게임관련 지출 등)	73(15.7)	164(12.9)	26(4.6)	38(3.2)	13(4.9)	14(4.9)
저축	2(0.5)	10(0.8)	5(0.9)	11(0.9)	5(2.1)	1(0.2)
기타	6(1.3)	8(0.6)	6(1.1)	6(0.5)	1(0.2)	10(3.5)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용돈의 출처는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은 97.1%가 전문계 고등학생은 84.9%가 부모님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도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받는다는 의견이 71.3%로 높았고, 미취업자는 64.9%, 2년제 대학생은 61.1%가 응답하였다. 단 취업자는 5.9%가 부모님께 받는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93.9%는 스스로 벌어서 충당한다는 의견이었다. 2차년도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생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한다는 의견이 3.6%에서 13.1%로 크게 늘어났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6> 용돈 출처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부모(보호자)	396(84.9)	1,236(97.1)	347(61.1)	871(71.3)	16(5.9)	182(64.9)
형제자매	5(1.1)	3(0.3)	4(0.8)	0(0.0)	0(0.0)	3(1.1)
친척	2(0.4)	4(0.3)	0(0.1)	1(0.1)	0(0.0)	0(0.1)
스스로 벌어서	61(13.1)	29(2.3)	213(37.5)	334(27.3)	248(93.9)	77(27.6)
기타	3(0.5)	1(0.1)	3(0.6)	16(1.3)	1(0.2)	18(6.3)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다음은 고등학생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시기의 친구 관계는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차년도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표 >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친한 친구 여부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남	여	남	여
있음	247(97.9)	212(98.8)	664(99.2)	602(99.8)
없음	5(2.1)	2(1.2)	6(0.8)	1(0.2)
전체	252(100.0)	215(100.0)	670(100.0)	603(100.0)

그렇다면 친구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교급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고 남학생의 경우는 게임, 운동, 음악, 영화, 독서 등 ‘취미’와 관련한 대화가 49.9%로 월등하게 높았다. 다음은 ‘학교생활’이 16.4%, ‘공부 및 향후 진로’가 9.9%, ‘친구’와 관련한 대화가 8.8%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일반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가 27.9%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관련한 대화 14.4%, ‘진로’ 13.2%, ‘취미’ 관련 12.8%, ‘공부’와 관련한 대화가 12%, ‘연예인이나 TV’와 관련한 대화가 10.7%, 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전문고 남학생의 경우도 일반고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취미’와 관련한 대화가 59.4%로 매우 높았고, ‘학교생활’이 13.9%, ‘친구’와 관련한 대화가 10.2%였고 ‘공부 및 향후 진로’에 대한 대화는 그리 높지 않았다. 전문고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와 관련한 대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연예인이나 TV’와 관련한 대화가 17.5%,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가 17.3%, ‘취미’관련은 8.1%로 일반고 여학생들에 비해 대화 주제가 쏠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38> 친한 친구와의 대화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공부	6(2.5)	5(2.4)	65(9.9)	72(12.0)
진로	9(3.5)	31(14.8)	57(8.6)	80(13.2)
가정생활	2(0.9)	3(1.3)	8(1.2)	11(1.8)
학교생활	34(13.9)	37(17.3)	109(16.4)	168(27.9)
취미(게임, 운동, 음악, 영화, 독서 등)	147(59.4)	17(8.1)	331(49.9)	77(12.8)
연예인, TV	5(2.2)	37(17.5)	13(1.9)	65(10.7)
친구(이성친구 포함)	25(10.2)	62(29.0)	58(8.8)	87(14.4)
정치, 사회	0(0.0)	0(0.0)	1(0.2)	1(0.2)
종교, 철학, 문학	3(1.1)	0(0.0)	1(0.1)	3(0.4)
쇼핑, 패션	3(1.1)	10(4.5)	3(0.4)	16(2.6)
기타	13(5.3)	11(5.1)	18(2.7)	24(4.0)
전체	247(100.0)	212(100.0)	664(100.0)	602(100.0)

친한 친구들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남학생들의 경우 'PC방, 오락실'이 일반계 고등학생 35.5%, 전문계 고등학생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 순위는 '대화'로 일반계 고등학생 33%, 전문계 고등학생 36.3%로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 76.5%, 실업고생 63.8%가 '대화'라고 응답하여 여학생들은 주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고 남학생의 경우 '운동'을 같이 한다는 응답이 10.9%, '노래방'을 같이 간다는 응답도 5.6%를 차지하였다. 일반고 여학생의 경우 '영화 6.7%, '노래방' 6.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고 남학생의 경우는 'PC방, 오락실', '대화' 다음으로 '운동' 8.1%, '노래방' 6.4%가 나와 전문고 남학생들의 친구와의 활동이 별로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고 여학생의 경우는 '대화' 다음으로 '영화' 9.5%, '노래방'이 7.8%, '쇼핑' 7.1%, 'PC방, 오락실'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친한 친구와의 활동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대화	90(36.3)	135(63.8)	219(33.0)	461(76.5)
학원, 과외	0(0.0)	2(1.0)	32(4.8)	21(3.5)
독서실, 도서관	0(0.1)	1(0.4)	22(3.3)	5(0.9)
비디오방, DVD방	0(0.2)	1(0.5)	3(0.4)	1(0.2)
PC방, 오락실	109(44.2)	13(6.4)	236(35.5)	4(0.6)
노래방	16(6.4)	17(7.8)	37(5.6)	38(6.3)
만화방	1(0.4)	0(0.0)	0(0.0)	3(0.4)
술집, 댄스클럽	2(0.6)	3(1.4)	6(0.9)	0(0.0)
영화	6(2.2)	20(9.5)	28(4.2)	40(6.7)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	0(0.0)	1(0.3)	0(0.1)	6(1.0)
쇼핑	2(0.8)	15(7.1)	1(0.1)	12(2.0)
운동	18(7.1)	0(0.0)	73(10.9)	0(0.0)
종교활동	0(0.0)	0(0.0)	2(0.2)	5(0.8)
기타	4(1.6)	4(1.7)	6(0.9)	6(1.0)
전체	247(100.0)	212(100.0)	664(100.0)	602(100.0)

다음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은 약 69%, 전문계 고등학생은 54.2%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62.5%, 2년제 대학생은 61.3%가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미취업자는 51.9%로 그룹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고, 취업자는 62.2%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그룹으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10.6%, 미취업자 그룹이 13.3%로 나타났다.

<표 III-40> 건강정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매우 허약하다	6(1.2)	3(0.2)	4(0.7)	3(0.3)	3(1.1)	1(0.5)
허약하다	44(9.4)	86(6.7)	33(5.8)	115(9.4)	18(6.9)	36(12.8)
보통이다	165(35.3)	333(26.1)	183(32.2)	340(27.8)	79(29.9)	98(34.8)
건강하다	168(35.9)	638(50.2)	285(50.1)	583(47.7)	137(52.0)	117(41.5)
매우 건강하다	86(18.3)	213(16.8)	63(11.2)	181(14.8)	27(10.2)	29(10.4)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하루 평균 수면시간 평균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6.2시간으로 집단 중 가장 적었고, 반대로 전문계 고등학생은 7.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조사 당시 1학년이지만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학원 수강 등 하루 일과가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면시간이 적은 순으로 살펴보면, 미취업자가 6.5시간, 취업자는 6.9시간, 대학생은 7시간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I-41> 수면시간

(단위 : 시간)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하루 평균 수면 시간	7.1	6.2	7.0	7.0	6.9	6.5

제 4 장

구직활동과 근로경험

제1절 구직활동

제2절 재학 중 근로 경험

제 4 장

구직활동과 근로경험

제1절 구직활동

KEEP 3차(2006)년도 조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이 아닌 비진학자 즉, 취업자와 미취업자 패널들에게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동안의 구직활동(아르바이트를 제외)에 대해 묻고 있다.

구직활동관련 문항은 구직활동 경험여부와 미경험의 이유, 구직활동 기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과 실패 회수, 구직실패의 주된 이유, 다양한 취업준비 방법들의 경험과 도움정도, 취업정보를 얻는 경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Work-Net 운영) 검색 및 상담경험과 도움정도, 사설취업사이트의 검색과 도움정도,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경험과 도움정도, 허위구인광고 경험 등으로 구성된다.³⁾

3차(2006)년도에 조사된 비진학자 패널 중 취업자는 264명, 미취업자는 274명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동안의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구직활동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1>과 같다.

구직활동 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49.0%와 미취업자의 23.6%는 구직활동을 경험하였고, 취업자의 51.0%와 미취업자의 76.4%는 구직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는 취업자의 경우 '취업 중'이 68.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진학을 준비 중'이 8.7%를 차지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진학을 준비 중'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 예정'(14.9%)과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8.9%)이 상대

3) 전체적 문항 구성은 2차(2005)년도와 동일하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사설취업사이트, 사설취업알선기관에 대한 문항이 현실적 구직활동 고려하여 좀 더 보강되었다.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직활동 미경험 이유의 결과에 있어서 취업자는 ‘취업중’이, 미취업자는 ‘진학 준비 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차(2005)년도 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나타났던 취업을 목표로 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이 3차(2006)년도 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 IV-1> 구직활동(아르바이트 제외) 경험 여부와 미경험 이유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구직 활동 경험 있음		129(49.0)	64(23.6)
구직 활동 경험 없음		135(51.0)	209(76.4)
구직활동 미경험사유	진학을 준비 중	12(8.7)	120(57.2)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	2(1.7)	19(8.9)
	자격시험 준비 중	3(2.0)	7(3.5)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	1(0.8)	1(0.6)
	취업 중	92(68.2)	9(4.4)
	군입대 예정	6(4.5)	31(14.9)
	육아나 가사로 인해	0(0.0)	5(2.5)
	취업이 잘되지 않아 구직활동의욕상실	4(2.7)	2(0.7)
	취업 하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이 없음	3(2.0)	5(2.2)
	기타	13(9.3)	11(5.1)
전체		264(100.0)	274(100.0)

구직활동 경험자들의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동안의 구직활동 평균 기간은 취업자가 25.7주, 미취업자가 14.7주로 분석되었다.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는 ‘28주 이상’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주 이하’, ‘3주~7주’, ‘8주~12주’는 각각 10%대(11.5%, 14.5%,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3주~7주’가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8주~12주’가 21.8%를, 그 다음으로는 ‘28주 이상’이 18.8%, ‘13주~17주’가 11.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2 > 구직활동 기간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2주 이하	15(11.5)	2(3.5)
3주~7주	19(14.5)	23(35.1)
8주~12주	17(13.6)	14(21.8)
13주~17주	5(4.2)	7(11.5)
18주~22주	2(1.9)	2(2.7)
23주~27주(6개월)	9(7.0)	4(6.7)
28주 이상	61(47.2)	12(18.8)
전체	129(100.0)	64(100.0)
평균	25.7주	14.7주

주: 구직기간을 '0'이라 응답한 경우에는 '2주 이하'에 포함.

구직 실패 경험은 구직활동 경험자 대비 취업자가 18.3%, 미취업자가 24.9%로 비교적 적은 수가 구직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 실패 경험자 1인의 평균 구직 실패 회수는 취업자가 3회, 미취업자가 4회로,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평균 1회 정도 더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패 회수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1회'와 '2회'에 응답이 몰려 있는 가운데 미취업자(63.2%)가 취업자(56.8%)보다 몰림 현상이 6.4%p 높고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자(19.0%)가 미취업자(15.8%)보다 3.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 구직 실패 경험 및 실패 횟수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구직 실패 경험 있음		24(18.3)	16(24.9)
실패 횟수	1회	5(21.4)	5(32.5)
	2회	8(35.4)	5(30.7)
	3회	2(7.4)	3(17.9)
	4회	4(16.8)	1(3.1)
	5회 이상	5(19.0)	3(15.8)
구직 실패 경험 없음		106(81.7)	48(75.1)
전체		129(100.0)	64(100.0)

구직과정 실패에 대한 이유로는 취업자의 경우 '면접을 잘 못 봐서'(22.6%)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자격증이 없어서'(8.8%), '학력 때문에'(8.3%), '학교 성적이 나빠서'(6.5%), '외모 때문에'(6.5%),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6.3%), '경력이 부족해서'(4.3%), '인맥 및 배경부족'(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경력이 부족해서'(27.0%), '학력 때문에'(26.8%),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21.0%)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면접을 잘

못 봐서'(8.0%), '자격증이 없어서'(7.7%), '외모 때문에'(3.1%) 등의 이유가 조사되었다.

<표 IV-4> 구직과정 실패 이유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학력 때문에	2(8.3)	4(26.8)
학교 성적이 나빠서	2(6.5)	0(0.0)
면접을 잘 못봐서	5(22.6)	1(8.0)
자격증이 없어서	2(8.8)	1(7.7)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	2(6.3)	3(21.0)
경력이 부족해서	1(4.3)	4(27.0)
외모 때문에	2(6.5)	1(3.1)
인맥 및 배경부족	0(0.4)	0(0.0)
기타	9(36.5)	1(6.4)
전체	24(100.0)	16(100.0)

KEEP 조사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 형태와 그 경험이 각각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9개의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표 IV-5>는 9개 항목에 대한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 여부의 분석 결과이며, <표 IV-6>은 취업 준비 경험이 주었던 도움정도를 5점 척도에서 3점 척도로 재정리한 결과이다.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취업정보 검색'(취업자 50.1%, 미취업자 57.1%)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는 사람(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취업자 44.6%, 미취업자 49.6%), 그 다음은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취업 부탁'(취업자 21.1%, 미취업자 35.4%), '자격증 취득'(취업자 20.5%, 미취업자 21.1%),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취업자 16.1%, 미취업자 17.2%)의 순이었다. 그 외에는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 '면접 훈련', '직업적성·흥미검사', '취업박람회 참여'를 통한 준비 경험이 적게는 1.7%(취업자)에서 많게는 10.9%(미취업자)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1)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	9(7.1)	7(10.9)
2) 자격증 취득	26(20.5)	14(21.1)
3) 취업 정보 검색	65(50.1)	37(57.1)
4) 아는 사람(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58(44.6)	32(49.6)
5)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취업 부탁	27(21.1)	23(35.4)
6) 면접훈련	8(5.9)	5(7.7)
7) 직업적성·흥미검사	2(1.7)	3(5.1)
8) 취업박람회 참여	4(2.8)	3(4.2)
9)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	21(16.1)	11(17.2)

각 항목에 따른 취업 준비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업적성·흥미검사’와 ‘취업박람회 참여’를 제외하고는 취업자나 미취업자 모두 제시된 취업 준비 항목에 대해 부정(‘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적 평가보다는 긍정(‘매우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는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의 경우에 90.6%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자격증 취득’,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방문 취업 부탁’, ‘아는 사람(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경우에는 54% 이상의 과반수 응답자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취업 정보 검색’이나 ‘면접훈련’,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도 36% 이상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미취업자도 ‘아는 사람(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와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 경우에 50% 이상의 응답자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 검색’,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취업 부탁’, ‘면접훈련’ 경우도 30% 넘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직업적성·흥미검사’와 ‘취업박람회 참여’의 경우에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자는 ‘직업적성·흥미검사’ 경우에 최소한의 긍정적인 응답도 없이 부정적인 응답만 36.1%를 차지하였고, ‘취업박람회 참여’의 경우도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1.2%p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자는 ‘직업적성·흥미검사’와 ‘취업박람회 참여’ 경우에 각각 54.7%, 50.3%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IV-6>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의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1)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	9	9.4	0.0	90.6	7	7.1	40.6	52.2
2) 자격증 취득	26	9.2	13.0	77.8	14	25.2	40.9	33.9
3) 취업 정보 검색	65	11.2	52.8	36.1	37	18.9	33.3	47.9
4) 아는 사람(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58	16.9	29.1	54.1	32	14.2	31.0	54.8
5)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방문 취업 부탁	27	14.2	23.2	62.5	23	18.1	48.6	33.4
6) 면접훈련	8	0.0	50.2	49.8	5	14.1	55.2	30.7
7) 직업적성, 흥미검사	2	36.1	63.9	0.0	3	15.4	43.4	41.2
8) 취업박람회 참여	4	41.8	18.6	39.6	3	18.4	26.8	54.7
9)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	21	29.5	24.2	46.3	11	8.4	41.3	50.3

주: 부정-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긍정-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표 IV-7>은 취업을 위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가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한 결과이다. 취업정보 취득 경로 1순위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취업자 60.3%, 미취업자 56.9%).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취업자의 경우 ‘친구 또는 선후배’(12.7%)에게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며, 그 외에도 ‘학교(교사, 게시판 등)’, ‘부모 또는 친척’, ‘신문, TV 등 언론매체’, ‘직업훈련기관(직업학교 등)’, ‘학원(교사, 게시판 등)’, ‘생활정보지’,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도 취업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신문, TV 등 언론매체’(14.2%)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과 ‘친구 또는 선후배’(11.2%)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각각 10% 넘게 차지하였으며, 그 외로 ‘부모 또는 친척’, ‘생활정보지’, ‘사설취업알선기관’, ‘학교(교사, 게시판 등)’ 등의 통해서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5% 미만의 응답들도 조사되었다.

2순위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취업자 37.9%, 미취업자 3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10% 이상의 응답을 보인 것으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신문, TV 등 언론매체’, ‘인터넷(취업사이트 등)’과 미취업자의 ‘부모 또는 친척’이라는 응답이다.

<표 IV-7> 취업정보 취득 경로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 정보 경로(1순위)	학교(교사, 게시판 등)	8(6.4)	1(1.0)
	신문, TV 등 언론매체	6(4.5)	9(14.2)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77(60.3)	37(56.9)
	부모 또는 친척	7(5.7)	5(7.5)
	친구 또는 선후배	16(12.7)	7(11.2)
	생활정보지	3(2.4)	3(4.2)
	공공취업알선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	-
	사설취업알선기관	1(1.1)	1(1.5)
	학원(교사, 게시판 등)	3(2.5)	0(0.0)
	직업훈련기관(직업학교 등)	5(3.6)	0(0.0)
	취업 박람회(설명회)	-	-
	기타	1(0.8)	2(3.6)
	전체	128(100.0)	64(100.0)
취업 정보 경로(2순위)	학교(교사, 게시판 등)	4(3.3)	1(1.8)
	신문, TV 등 언론매체	20(15.8)	12(19.3)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18(14.4)	13(20.1)
	부모 또는 친척	10(8.1)	8(12.8)
	친구 또는 선후배	48(37.9)	21(33.0)
	생활정보지	12(9.1)	4(5.8)
	공공취업알선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1(1.1)	1(1.6)
	사설취업알선기관	-	-
	학원(교사, 게시판 등)	2(1.9)	0(0.0)
	직업훈련기관(직업학교 등)	0(0.0)	1(1.2)
	취업 박람회(설명회)	1(0.4)	0(0.0)
	기타	10(8.0)	3(4.3)
	전체	127(100.0)	64(100.0)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⁴⁾ 취업 정보를 검색 해 본 경험과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상담원에게 상담한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8>에 나타나 있다.

워크넷(Work-Net)에서 취업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6.6%, 미취업자의 10.5%가 검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

4) 워크넷(www.work.go.kr). 정보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 각종 취업관련 정보와 직업적성 흥미검사, 사이버 직업상담, 사이버 채용박람회, 집단 상담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으로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2.6%, 미취업자의 5.0%가 상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8>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활용과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워크넷 ¹⁾ 에서의 취업정보 검색 경험	검색 경험 있음		9(6.6)	7(10.5)
	도움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3(34.8)	1(15.4)
		보통이다.	1(14.8)	4(59.7)
		그렇다	3(32.1)	1(10.9)
		매우 그렇다	2(18.3)	1(14.0)
검색 경험 없음		121(93.4)	57(89.5)	
전체		129(100.0)	64(100.0)	
상담원에게 상담경험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	상담 경험 있음		3(2.6)	3(5.0)
	도움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1(28.0)	0(0.0)
		보통이다.	0(0.0)	3(77.5)
		그렇다	2(45.1)	1(22.5)
		매우 그렇다	1(26.9)	0(0.0)
상담 경험 없음		126(97.4)	61(95.0)	
전체		129(100.0)	64(100.0)	

* 주: 1) 워크넷(www.work.go.kr)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동안 사설 취업사이트에서의 취업정보 검색 경험과 도움정도, 헤드헌팅업체나 취업사이트, 직업소개소 등의 사설 취업알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상담원에게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사설취업사이트에서 취업정보를 검색한 경험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41.4%, 미취업자의 53.7%가 검색 경험이 있으며,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취업자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 도움(46.5%)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도움(13.6%)보다 4배정도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는 10배정도 높게 나타났다(긍정적 도움 41.1%, 부정적 도움 4.0%). 사설취업알선기관(헤드헌팅업체, 취업사이트, 직업소개소)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상담원에게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는 취업자가 3.4%, 미취업자가 10.2%로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처럼 경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사설 취업 사이트 및 취업알선 기관의 활용과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사설취업사이트 취업정보 검색 경험	검색 경험 있음		54(41.4)	35(53.7)
	도움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4.4)	0(0.0)
		그렇지 않다.	5(9.2)	1(4.0)
		보통이다.	21(40.0)	19(54.9)
		그렇다	19(34.7)	14(41.1)
		매우 그렇다	6(11.8)	0(0.0)
검색 경험 없음		76(58.7)	30(46.3)	
전체		129(100.0)	64(100.0)	
사설 취업알선기관 ¹⁾ 상담원에게의 상담경험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	상담 경험 있음		4(3.4)	7(10.2)
	도움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0(0.0)	1(8.4)
		보통이다.	1(20.9)	3(45.0)
		그렇다	3(61.8)	2(32.8)
		매우 그렇다	1(17.3)	1(13.8)
상담 경험 없음		125(96.6)	58(89.8)	
전체		129(100.0)	64(100.0)	

* 주: 1) 사설 취업알선기관: 헤드헌팅업체, 취업사이트, 직업소개소 등

구직 및 취업과정에서 허위구인광고를 접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5.9%, 미취업자의 12.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0 > 허위구인광고 경험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예	8(5.9)	8(12.7)
아니오	121(94.1)	56(87.4)
전체	129(100.0)	64(100.0)

제2절 재학 중 근로경험

KEEP 3차(2006)년도 조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패널들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기간 중에 경험한 근로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 경험은 사회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일에 따른 학력상태와 시간의 활용성, 노동시장에로의 접근 용이성, 사회에서 인정하는 책임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는 일의 종류들이 동일할 수는 없다. KEEP 3차(2006)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특징을 감안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접하게 되는 일의 종류 차이 뿐 아니라 경험하는 일의 수에 있어서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한 일에 대해 한 가지만을,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한 일에 대해 세 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모두 살펴보지 않고 대학생의 문항 구성을 고등학생에 맞추어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은 467명, 일반계 고등학생은 1,273명, 2년제 대학생은 567명, 4년제 대학생은 1,223명으로, 이중 전문계 고등학생의 35.0%, 일반계 고등학생의 7.6%, 2년제 대학생의 74.3%, 4년제 대학생의 72.5%가 근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학 중 근로경험의 비중은 2차(2005)년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조사 시점까지'의 근로경험 비중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⁵⁾, 전문계 고등학생이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보다,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재학 중 근로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2차(2005)년도와 동일하다.

<표 IV-11> 근로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근로경험 있음	163(35.0)	97(7.6)	421(74.3)	886(72.5)
근로경험 없음	304(65.0)	1,176(92.4)	146(25.7)	337(27.5)
전체	467(100.0)	1,273(100.0)	567(100.0)	1,223(100.0)

5) 2차(2005)년도 근로경험: 전문계 고등학생 22.9%, 일반계 고등학생 4.2%, 2년제 대학생 64.3%, 4년제 대학생 61.7%

고등학생과 대학생 패널리 재학 중에 경험한, 모든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1인당 총 연간근로 소득의 평균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84만 1천원, 일반계 고등학생이 73만 5천원, 2년제 대학생이 2백 70만 9천원, 4년제 대학생이 1백 98만 3천원으로, 전체 소득에 있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소득이 월등히 높으며, 교급 별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10만 7천원 정도 더 높고, 2년제 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보다 72만 6천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전체 재학 중 근로에 대한 총 소득(1인당 평균)

(단위 : 원)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총 소득	841,153	734,554	2,708,525	1,982,603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재학 중에 가장 오래한 일의 종류에 대한 결과는 <표 IV-22-1>와 <표 IV-22-2>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하게 되는 재학 중 근로의 종류로는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음식점, 커피숍 서빙 또는 배달’(전문계 고등학교 41.8%, 일반계 고등학교 39.8%)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패스트푸드 점원’ 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계 고등학교 16.4%, 일반계 고등학교 11.0%). 그 외 가장 오랫동안 한 일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주유소 주유원’(5.4%), ‘편의점, 상점점원’(4.7%), ‘건설현장, 공장 노동’(4.1%), ‘전단지, 스티커 부착’(3.3%) 등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단지, 스티커 부착’(9.1%), ‘편의점, 상점점원’(5.1%), ‘주유소 주유원’(4.6%), ‘건설현장, 공장 노동’(3.9%) 일이 있다. 또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중에는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보조’,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신문, 우유, 서류 배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아기, 노인 돌보기’, ‘유흥업소 관련 종사(호객, 서빙 등)’, ‘사무, 설문조사 업무 보조’ 등의 일들을 오랫동안 했던 일로 접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V-13-1> 고등학생의 재학 중 일의 종류

(단위 : 명(%))

구분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주유소 주유원	9(5.4)	4(4.6)
패스트푸드점 점원	27(16.4)	11(11.0)
음식점, 커피숍 서빙 또는 배달	68(41.8)	39(39.8)
편의점, 상점점원	8(4.7)	5(5.1)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보조	4(2.3)	4(3.6)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5(2.8)	1(0.8)
신문, 우유, 서류 배달	3(2.1)	4(3.8)
전단지, 스티커 부착	5(3.3)	9(9.1)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2(1.1)	1(1.5)
건설현장, 공장 노동	7(4.1)	4(3.9)
사무, 설문조사 업무 보조	0(0.0)	1(0.7)
아기, 노인 돌보기	1(0.6)	0(0.4)
유흥업소 관련 종사(호객, 서빙 등)	1(0.6)	1(1.1)
기타	24(14.8)	14(14.6)
전체	163(100.0)	97(100.0)

대학생의 경우에는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모두 ‘매장·판매직·서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년제 대학생 65.9%, 4년제 대학생 55.3%), 그 다음으로는 2년제 대학생은 ‘기능·생산·노무’(7.2%), ‘전문직·특수직’(6.2%), ‘사무직’(5.0%), ‘상담·홍보·행사’(4.7%), ‘교내 아르바이트’(4.3%), ‘학원교육(독서실)’(3.2%), ‘컴퓨터’(1.8%), ‘운전·운송·배달’(1.7%) 순으로 나온 것에 반해,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독서실)’(18.6%), ‘기능·생산·노무’(7.6%), ‘사무직’(5.4%), ‘상담·홍보·행사’(4.9%), ‘교내아르바이트’(3.1%), ‘전문직·특수직’(2.5%), ‘운전·운송·배달’(1.4%), ‘컴퓨터’(1.1%), ‘농림업·어업·축산업’(0.2%)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2> 대학생의 재학 중 일의 종류

(단위 : 명(%))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교내 아르바이트	18(4.3)	28(3.1)
사무직	21(5.0)	48(5.4)
상담·홍보·행사	20(4.7)	43(4.9)
매장·판매직·서빙	277(65.9)	490(55.3)
학원·교육(독서실)	13(3.2)	165(18.6)
기능·생산·노무	30(7.2)	67(7.6)
운전·운송·배달	7(1.7)	13(1.4)
컴퓨터	8(1.8)	10(1.1)
전문직·특수직	26(6.2)	22(2.5)
농림업·어업·축산업	0(0.0)	1(0.2)
전체	421(100.0)	886(100.0)

재학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한 일의 근로기간은 일한 기간을 총 주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전문계 고등학생이 9.8주, 일반계 고등학생이 6.9주, 2년제 대학생이 17.2주, 4년제 대학생이 15.1주로, 2년제 대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년제 대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순이며, 일반계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1개월~3개월 미만'이 47.6%로 가장 높고, '1주~1개월 미만'이 26.5%로 두 번째로 높으며, '3개월 이상'이 25.3%, '1주 미만'이 0.6%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1주~1개월 미만'이 44.2%로 가장 높고, '1개월~3개월 미만'이 43.1%로 두 번째로 높으며, '3개월 이상'은 11.9%, '1주 미만'은 0.7%를 차지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이 48.3%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1개월~3개월 미만'이 45.8%로 높으며, '1주~1개월 미만'은 6.0%를 차지하는 반면,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1개월~3개월 미만'이 49.8%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이 38.3%로 높으며, '1주~1개월 미만'은 11.8%를 차지하였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 평균 근무일수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4.9일, 일반계 고등학생이 4.5일, 2년제 대학생이 5.1일, 4년제 대학생이 4.4일로,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2년제 대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4년제 대학생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4> 가장 오랫동안 한 일의 총기간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1주 미만	1(0.6)	1(0.7)	0(0.0)	0(0.0)
1주~1개월 미만	43(26.5)	41(44.2)	25(6.0)	104(11.8)
1개월~3개월 미만	78(47.6)	40(43.1)	192(45.8)	439(49.8)
3개월 이상	41(25.3)	11(11.9)	203(48.3)	338(38.3)
전체	163(100.0)	93(100.0)	419(100.0)	881(100.0)
평균	9.8주	6.9주	17.2주	15.1주

※ 주: 3개월은 13주로 계산

재학 중 근로의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평균 시간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6.7시간, 일반계 고등학생이 6.9시간, 2년제 대학생이 7.9시간, 4년제가 7.0시간으로,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2년제 대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순이며, 전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근무 시간에 대한 범주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하루 근무 시간은 '2~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3시간 미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6~9시간 미만'은 42.8%로 가장 높고, '2~3시간 미만'은 37.7%, '9~13시간 미만'은 18.2%로 전문계 고등학생의 전체 98.7%를 차지하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2~6시간 미만'이 40.6%로 가장 높고, '6~9시간 미만'은 32.0%이며, '9~13시간 미만'은 19.7%로 일반계 고등학생 전체 92.3%를 차지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6~9시간 미만'이 44.2%로 가장 많고, '9~13시간 미만'이 34.5%, '2~6시간 미만'이 18.9%로 2년제 대학생 전체의 97.6%를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도 '6~9시간 미만'이 40.4%로 가장 많고, '2~6시간 미만'은 29.3%, '9~13시간 미만'은 26.2%로 4년제 대학생 전체의 95.9%를 차지하였다.

<표 IV-15> 하루 근무시간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2시간 미만	1(0.6)	2(1.9)	2(0.4)	15(1.7)
2~6시간미만	62(37.7)	39(40.6)	80(18.9)	259(29.3)
6~9시간미만	70(42.8)	31(32.0)	186(44.2)	356(40.4)
9~13시간미만	30(18.2)	19(19.7)	146(34.5)	231(26.2)
13시간 이상	1(0.7)	6(5.9)	8(1.9)	22(2.5)
전체	163(100.0)	97(100.0)	421(100.0)	883(100.0)
평균	6.7시간	6.9시간	7.9시간	7.0시간

재학 중 근로의 단위소득기준(소득지급기준) 형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시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전문계 고등학생 57.0%, 일반계 고등학생 42.6%), 그 다음으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은 '월급'이 22.3%, '일급'이 15.8%, '주급'이 3.6%, '성과급'이 1.3% 순으로 차지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은 '일급'이 24.6%, '월급'이 19.9%, '주급'이 9.0%, '자영업 소득' 2.2%, '성과급' 1.7% 순으로 차지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모두 '월급'이 55.1%와 47.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시급'이 34.5%와 37.1%, 그 다음으로는 '일급'이 8.1%와 10.6%, '주급'이 1.3%와 3.7%, '성과급'이 0.9%와 0.8%, '자영업 소득'이 0.1%와 0.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6> 단위소득기준(소득지급기준)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계	일반계	2년제	4년제
시급	93(57.0)	41(42.6)	145(34.5)	328(37.1)
일급	26(15.8)	24(24.6)	34(8.1)	94(10.6)
주급	6(3.6)	9(9.0)	6(1.3)	33(3.7)
월급	36(22.3)	19(19.9)	232(55.1)	422(47.6)
성과급	2(1.3)	2(1.7)	4(0.9)	7(0.8)
자영업소득	0(0.0)	2(2.2)	1(0.1)	2(0.2)
전체	163(100.0)	97(100.0)	421(100.0)	886(100.0)

재학 중 일을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문계 고등학생 62.5%, 일반계 고등학생 68.5%, 2년제 대학생 64.1%, 4년제 대학생 67.6%). 그 다음으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가 13.6%,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가 9.9%,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가 2.8%, '전공과 유관하므로'가 1.2%, '부모나 친

지의 권유로'가 1.0%였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가 14.4%,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가 5.4%, '부모나 친지의 등의 권유로'가 1.8%,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는 각각 1.6%씩, '전공과 연관하므로'는 0.4%로 조사되었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가 10.2%,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가 9.0%, '전공과 연관하므로'가 7.2%, '개인적 흥미와 관심 때문에'가 3.9%,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가 1.4%,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가 0.9%, '부모나 친지의 등의 권유로'가 0.8%였으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가 7.6%, '개인적 흥미와 관심 때문에'가 6.0%,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가 5.8%, '전공과 연관하므로'가 4.2%, '부모나 친지의 등의 권유로'가 3.2%,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가 0.9%,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가 0.6%로 조사되었다.

<표 IV-17> 일을 하게 된 중요 이유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전공과 연관하므로	2(1.2)	0(0.4)	30(7.2)	37(4.2)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	-	6(1.4)	8(0.9)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3(2.0)	2(1.6)	43(10.2)	52(5.8)
용돈이 필요해서	102(62.5)	67(68.5)	270(64.1)	598(67.6)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22(13.6)	5(5.4)	38(9.0)	67(7.6)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5(2.8)	2(1.6)	4(0.9)	6(0.6)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때문에	16(9.9)	14(14.4)	16(3.9)	53(6.0)
부모나 친지의 권유로	2(1.0)	2(1.8)	3(0.8)	29(3.2)
기타	12(7.1)	6(6.2)	11(2.7)	35(4.0)
전체	163(100.0)	97(100.0)	421(100.0)	886(100.0)

아르바이트 구인경로를 살펴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 구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전문계 고등학생 52.4%, 일반계 고등학생 54.8%, 2년제 대학생 32.3%, 4년제 대학생 31.6%), 그 다음으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지나가다 우연히 들러서'(13.3%),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11.4%), '신문, 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9.9%), '기타'(6.2%),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6.1%), '학교를 통해'(0.7%)서 순이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11.6%), '지나가다 우연히 들러서'(10.6%), '신문, 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9.8%),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6.3%), '기타'(4.7%), '학교를 통해'(2.2%)서 순이었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인터넷 등을 찾아서'(17.4%), '신문, 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16.1%),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12.4%), '지나가다 우연히 들러서'(10.1%), '학교를 통해'(9.2%), '기타'(2.4%) 순

이었으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19.8%), ‘인터넷 등으로 찾아’(18.5%), ‘지나가다 우연히 들러서’(10.8%), ‘신문, 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10.5%), ‘기타’(5.6%), ‘학교를 통해’(3.2%)서 순이었다.

<표 IV-18> 아르바이트 구인경로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신문,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	16(9.9)	9(9.8)	68(16.1)	93(10.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19(11.4)	11(11.6)	52(12.4)	176(19.8)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	86(52.4)	53(54.8)	136(32.3)	280(31.6)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10(6.1)	6(6.3)	73(17.4)	164(18.5)
학교를 통해	1(0.7)	2(2.2)	39(9.2)	28(3.2)
청소년 단체를 통해	-	-	-	-
지나가다 우연히 들러서	22(13.3)	10(10.6)	43(10.1)	96(10.8)
기타	10(6.2)	5(4.7)	10(2.4)	50(5.6)
전체	163(100.0)	97(100.0)	421(100.0)	886(100.0)

주: 보기문항 ‘청소년 단체를 통해’는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설문지에만 있음

일을 그만 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이라는 보기 문항을 분리하여 현재 그 일의 지속여부와 그 일을 지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지금도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22.0%, 일반계 고등학생이 12.7%, 2년제 대학생이 27.2%, 4년제 대학생이 24.0%로 조사되었으며, 일을 그만 둔 경우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78.0%, 일반계 고등학생이 87.3%, 2년제 대학생이 72.9%, 4년제 대학생이 7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전문계 고등학생 16.4%, 일반계 고등학생 14.7%, 2년제 대학생 14.4%, 4년제 대학생 24.1%)를 제외하고,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가 36.1%와 2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로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수가 적어서’라는 이유가 12.9%로 두 번째로 높게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11.4%), ‘근로조건 환경이 나빠서’(4.8%), ‘집안의 반대로’(3.3%),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1.9%), ‘적성에 맞지 않아서’(1.3%) 등의 순이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된 것은 19.8%의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다음은 ‘집안의 반대로’(9.3%), ‘보수가 적어서’(7.8%),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5.4%), ‘근로조건 환경이 나빠서’(3.9%), ‘적성에 맞지 않아서’(0.8%) 등의 순이었다.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응답

이 동일하였는데, 첫 번째로 높은 응답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2년제 대학생 32.5%, 4년제 대학생 29.6%)였으며,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2년제 대학생 16.9.3%, 4년제 대학생 14.7%)였다. 그 외로 2년제 대학생의 경우 ‘보수가 적어서’(8.2%),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4.2%), ‘적성에 맞지 않아서’(3.9%),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3.2%), ‘집안의 반대’(0.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5.1%), ‘보수가 적어서’(4.0%), ‘적성에 맞지 않아서’(3.8%), ‘집안의 반대’(1.0%),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일의 지속 여부와 일을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음		36(22.0)	12(12.7)	114(27.2)	211(24.0)
지금은 그 일을 그만 두었음		127(78.0)	85(87.3)	306(72.9)	669(76.0)
일을 그만 둔 이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46(36.1)	21(25.1)	52(16.9)	98(14.7)
	적성에 맞지 않아서	2(1.3)	1(0.8)	12(3.9)	25(3.8)
	보수가 적어서	16(12.9)	7(7.8)	25(8.2)	27(4.0)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	2(1.9)	5(5.4)	10(3.2)	6(0.8)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6(4.8)	3(3.9)	13(4.2)	34(5.1)
	집안의 반대로	4(3.3)	8(9.3)	1(0.5)	7(1.0)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15(11.4)	17(19.8)	100(32.5)	198(29.6)
	계약기간이 끝나서	21(16.4)	12(14.7)	44(14.4)	161(24.1)
	기타	15(11.9)	11(13.2)	50(16.2)	113(16.9)
전체		162(100.0)	97(100.0)	420(100.0)	879(100.0)

제 5 장

직업경험과 직업생활

- 제1절 직업경험
- 제2절 직업생활
- 제3절 비경제활동 현황
- 제4절 경제의식

제 5 장

직업경험과 직업생활

제1절 직업경험

본 절은 3차(2006)년도 조사기간 중에 취업 및 비진학 상태에 있는 패널(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현 일자리 제외) 여부를 보면 취업자들의 경우 남자는 57.5%가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8%만 경험이 있고 69.2%가 일자리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로써 취업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졸업 후 현재 일자리를 갖기 이전에 다른 일자리 경험을 갖았던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 미취업자들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 각각 51.7%, 48.1%로 과반수 정도가 일자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대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1>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일자리 경험(현 일자리 제외) 여부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예	43(57.5)	58(30.8)	80(51.7)	56(48.1)
아니오	32(42.5)	131(69.2)	75(48.3)	61(51.9)
전체	75(100.0)	189(100.0)	155(100.0)	117(100.0)

일자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횟수를 살펴보면 1회와 2회로 대답한 경우가 79%(취업자 남자), 88.6%(취업자 여자), 86.5%(미취업자 남자), 82.3%(미취업자 여자)로 나타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0% 가량이 3회 수준의 경험을 갖았으며, 5회 이상 일자리 경험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대다수의 패널(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여간 일자리 경험은 1~2회임을 알 수 있다.

<표 V-2> 일자리 경험 횟수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17(40.7)	35(61.0)	46(57.6)	33(57.6)
2	16(38.3)	16(27.6)	23(28.9)	14(24.7)
3	4(9.9)	6(10.4)	5(6.4)	7(12.3)
4	2(5.0)	1(1.0)	4(5.3)	2(2.7)
5	3(6.2)	0(0.0)	1(0.8)	0(0.0)
7	0(0.0)	0(0.0)	0(0.0)	2(2.7)
14	0(0.0)	0(0.0)	1(1.0)	0(0.0)
전체	43(100.0)	57(100.0)	80(100.0)	56(100.0)

일자리 경험 횟수 중 1개월 이상 횟수를 보면 취업자, 미취업자 양쪽 집단 모두에서 1번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3~79%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2번 경험 비율도 현재 취업자의 경우 남자 34.4%, 여자 30.1%로 나타났다. 반면 3번 넘게 1개월 이상 일자리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취업자 집단에서 남자 12.8%, 여자 1.2%이고,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남자 6.0%, 여자 8.0%로 나타났다.

<표 V-3> 일자리 중 1개월 이상 경험 횟수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2(52.8)	37(68.7)	48(68.2)	42(78.7)
2	14(34.4)	16(30.1)	18(25.7)	7(13.3)
3	3(7.6)	1(1.2)	4(6.0)	4(8.0)
4	2(5.2)	0(0.0)	0(0.0)	0(0.0)
전체	41(100.0)	53(100.0)	70(100.0)	53(100.0)

(1) 첫 번째 일자리 현황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해당 산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매업(자동차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취업자, 미취업자 집단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앞에 언급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취업자 29.1%, 미취업자 34.1%로 산업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1%, 19.9%로 소매업의 뒤를 이었다. 세 번째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으로 취업자들 중에는 8.6%, 미취업자는 10.3%가 종사했던 것으로 대답했다. 나머지 산업들을 보면 상당히 낮은 비율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V-4>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음·식료품 제조업	1(0.8)	0(0.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6)	0(0.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7)	0(0.0)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0.0)	2(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8)	8(6.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5.6)	8(6.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4)	6(4.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1.6)	0(0.0)
종합건설업	1(1.6)	1(0.8)
전문직별 공사업	1(1.4)	0(0.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0.7)	1(0.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0.0)	1(0.6)
소매업; 자동차 제외	27(29.1)	42(34.1)
숙박 및 음식점업	21(22.1)	24(19.9)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1.4)	0(0.3)
통신업	0(0.0)	4(2.9)
보험 및 연금업	1(0.7)	0(0.0)
부동산업	0(0.0)	1(1.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3.3)	2(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9)	3(2.0)
사업지원 서비스업	1(0.6)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3.3)	1(0.7)
교육 서비스업	2(2.5)	0(0.0)
보건업	5(5.4)	4(2.9)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0(0.0)	2(1.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6)	13(10.3)
수리업	1(0.6)	0(0.0)
기타 서비스업	2(1.9)	0(0.0)
미분류	2(2.5)	1(0.7)
전체	94(100.0)	123(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해당 직업을 보면 취업자 집단에서는 식당 서비스 관련직이 21.7%,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판매원이 21.9%로 가장 높은 직업 경험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두 번째로는 판매원이 18.3%, 세 번째로는 판매 관련 단순직이 11.0%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의 경우에도 현 취업자들과 직업에 있어서의 별다른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역시 식당 서비스 관련직이 19.0%로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판매 관련 단순직과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이 13.3%와 10.1%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첫 번째 일자리의 산업이나 직업의 차이점은 크게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집단 모두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 보다는 단순 업무나 판매직, 서비스업으로 일자리 경험을 쌓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5>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직업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1(0.8)	2(1.3)
경영 관련 사무직	1(1.3)	3(2.5)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3(3.4)	1(0.6)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3(3.3)	0(0.0)
비서 및 사무보조원	1(0.9)	1(1.1)
학원강사	2(1.9)	0(0.0)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3(3.1)	4(3.0)
디자인 관련직	1(1.2)	0(0.0)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기술직	0(0.0)	1(0.6)
운송관련 단순직	4(3.9)	1(0.8)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5)	1(0.6)
판매원	17(18.3)	27(21.9)
판매 관련 단순직	10(11.0)	16(13.3)
모델 및 판매홍보직	1(0.6)	3(2.1)
경비 관련직	1(0.6)	3(2.1)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1)	0(0.0)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0.8)	0(0.0)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6(6.2)	12(10.1)
식당 서비스 관련직	20(21.7)	23(19.0)
건축완성 관련직	1(1.4)	0(0.0)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0.7)	1(0.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1(1.4)	4(3.5)
용접원	0(0.3)	0(0.0)
도장원 및 도금원	1(1.6)	0(0.0)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0.6)	3(2.4)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	5(5.7)	8(6.5)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0.6)	0(0.0)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용	1(0.7)	0(0.0)
생산관련 단순직	2(2.1)	5(3.9)
미분류	4(4.2)	5(3.8)
전체	93(100.0)	121(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취업 하고 돈을 받고 일하였다(아르바이트 포함)가 대부분이었으며, 다만 취업자 중 한 명이 무급가족종사자였으며 미취업자 중 한 명이 사업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표 V-6> 첫 번째 일자리 -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함(아르바이트 포함)	93(98.4)	122(99.2)
내 사업을 함(개인 사업, 과외,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	0(0.0)	1(0.8)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움	1(1.5)	0(0.0)
전체	95(100.0)	123(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형태를 보면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임시직이 각각 52.6%, 59.3%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은 각각 41.3%, 29.1%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용직이었던 비율도 11.7%로 다소 높게 나타난 가운데 현재 취업자의 경우가 미취업자 보다 상용직의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V-7>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 형태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상용직	39(41.3)	35(29.1)
임시직	9(52.6)	72(59.3)
일용직	6(6.1)	14(11.7)
전체	93(100.0)	122(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 형태가 상용직이었던 패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정규직이었던 비중이 취업자, 미취업자 집단에서 각각 83.5%, 79.5%로 나타났다.

<표 V-8> 첫 번째 일자리 - 근무형태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정규직	32(83.5)	28(79.5)
비정규직	6(16.5)	7(20.5)
전체	39(100.0)	35(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취업자의 경우에는 전일제가 64.8%에 달하고 시간제는 35.2%에 불과한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시간제가 54.8%로 전일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9> 첫 번째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시간제	33(35.2)	67(54.8)
전일제	60(64.8)	55(45.2)
전체	93(100.0)	123(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취업자의 경우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에서 55.1% 비율로 가장 많은 분포를 기록했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응답 비율이 60.8%로 가장 많은 대답을 하였다.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취업자 집단에선 29.4%, 미취업자 집단에선 23.5%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 집단의 첫 번째 일자리 소득 평균은 86만원이고 미취업자 집단의 소득 평균은 79만원 이었다.

<표 V-10> 첫 번째 일자리 -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0~50만원 미만	10(10.4)	15(12.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1(55.1)	72(60.8)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7(29.4)	28(23.5)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3.9)	2(2.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1)	1(1.0)
300만원 이상	0(0.0)	0(0.0)
전체	92(100.0)	118(100.0)
평균	86만원	79만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의 경우, 6일이 취업자 54.7%, 미취업자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일이 각각 17.9%, 38.0%로 나타났다. 한편 7일이라는 응답도 취업자 16.7%, 미취업자 11.8%로 나타나 청년층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나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2	5(5.1)	4(3.6)
4	5(5.6)	3(2.8)
5	17(17.9)	46(38.0)
6	52(54.7)	53(43.8)
7	16(16.7)	14(11.8)
전체	95(100.0)	121(100.0)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의 경우,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 모두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 취업자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의 비율이 무려 82.5%에 달하고 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에서 60시간이상 근무했다는 비율이 각각 47.3%와 30.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50시간이상~60시간미만’ 비율도 각각 16.9%, 11.4%로 나타나 장시간근로가 우려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취업자 집단이 평균 51.5시간, 미취업자 집단이 평균 47.3시간으로 조사되어, 취업자 집단의 장기간근로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로시간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0~10시간 미만	2(1.9)	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5(5.5)	5(4.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4(3.7)	9(7.5)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6.4)	15(12.2)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17(18.3)	42(34.9)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6(16.9)	14(11.4)
60시간 이상	45(47.3)	36(30.1)
전체	94(100.0)	121(100.0)
평균	51.5시간	47.3시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로는 취업자의 경우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20.6% 비율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가 38.5%의 비율로 일자리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 외에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보수가 적어서’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취업자들의 경우 적성과 근무 환경 요

소가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로 결정적인 요소이었으며 미취업자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 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3>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전망이 없어서	6(6.0)	8(6.9)
적성에 맞지 않아서	19(20.6)	6(4.7)
보수가 적어서	11(11.7)	6(5.2)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15(15.9)	14(11.8)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로	4(4.2)	1(1.1)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0(0.0)	0(0.0)
계약기간이 끝나서	2(2.2)	8(6.3)
해고 당해서	0(0.3)	0(0.0)
사업체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3(3.6)	4(2.9)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6(6.1)	47(38.5)
기타	28(29.4)	28(22.6)
전체	93(100.0)	123(100.0)

(2) 두 번째 일자리 현황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에서 해당 산업과 그 직업의 빈도수를 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이 27.6%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으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이 각각 17.7%, 17.2%로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산업들은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작은 비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4> 두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제 1차 금속산업	1(1.8)	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8)	0(0.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0)	1(2.3)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4.0)	0(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8(25.2)	8(27.9)
숙박 및 음식점업	9(27.6)	9(33.8)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1.4)	0(0.0)
통신업	1(3.6)	3(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	1(3.9)
사업지원 서비스업	1(2.2)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6)	0(0.0)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6(17.7)	5(17.2)
미분류	0(0.0)	2(5.7)
전체	32(100.0)	27(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의 해당 직업을 보면 다양한 직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식당 서비스 관련직'이 각각 27.6%,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그 다음으로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이 각각 15.1%, 15.5%로 나타났으며, '판매원'이 각각 14.8%, 14.4%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5> 두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 중분류별 빈도수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1(2.6)	0(0.0)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5(14.5)	1(2.8)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1(3.6)	0(0.0)
비서 및 사무보조원	1(3.0)	0(0.0)
운송관련 단순직	1(2.6)	0(0.0)
판매원	5(14.8)	4(14.4)
판매 관련 단순직	2(5.8)	0(0.0)
모델 및 판매홍보직	1(2.2)	1(3.9)
경비 관련직	2(5.0)	0(0.0)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0(0.0)	3(12.4)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5(15.1)	4(15.5)
식당 서비스 관련직	9(27.6)	10(35.5)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0(0.0)	1(3.9)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	0(0.0)	1(2.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0.0)	3(9.2)
미분류	1(3.0)	0(0.0)
전체	32(100.0)	27(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한다(아르바이트 포함)는 응답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두 번째 일자리 -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함(아르바이트 포함)	32(100.0)	27(100.0)
내 사업을 함(개인 사업, 과외,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	0(0.0)	0(0.0)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움	0(0.0)	0(0.0)
전체	32(100.0)	27(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의 형태를 보면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임시직이 각각 61.0%, 76.7%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이 각각 28.4%, 15.4%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비율도 10.6%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 취업자의 경우가 미취업자보다 상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V-17> 두 번째 일자리 - 일자리 형태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상용직	9(28.4)	4(15.4)
임시직	20(61.0)	21(76.7)
일용직	3(10.6)	2(7.9)
전체	32(100.0)	27(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 형태가 상용직이었던 패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취업자 집단은 모두가 정규직이었으며,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한 명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두 번째 일자리 - 근무형태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정규직	9(100.0)	3(81.7)
비정규직	0(0.0)	1(18.3)
전체	9(100.0)	4(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취업자의 경우에는 전일제가 59.1%에 달하고 시간제는 40.9%인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시간제가 52.0%로 전일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19> 두 번째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시간제	13(40.9)	14(52.0)
전일제	19(59.1)	13(48.0)
전체	32(100.0)	27(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취업자의 경우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에서 54.6% 비율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의 비율은 28% 수준인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위 구간별로 각각 38.1%, 39.3%로 나타났다. 한편 5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취업자 집단에선 15.4%, 미취업자 집단에선 18.2%로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한 명도 응답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일자리에서의 평균 임금은 취업자 집단이 81만원, 미취업자 집단이 86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V-20> 두 번째 일자리 -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0~50만원 미만	5(15.4)	5(18.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8(54.6)	10(38.1)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9(28.0)	11(39.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9)	1(4.3)
200만원 이상	0(0.0)	0(0.0)
전체	32(100.0)	27(100.0)
평균	81만원	86만원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의 경우, 5일이 취업자 40.9%, 미취업자 4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일이 각각 34.8%, 29.9%로 나타났다. 한편 7일이라는 응답도 취업자 16.7%, 미취업자 14.9%로 나타나 청년층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나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두 번째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2	1(1.8)	0(1.7)
3	1(2.6)	0(0.0)
4	1(3.2)	3(10.0)
5	13(40.9)	12(43.5)
6	11(34.8)	8(29.9)
7	5(16.7)	4(14.9)
전체	32(100.0)	27(100.0)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에서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 역시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이고 있다. 40시간이상 근무했다는 비율이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 각각 87.8%, 46.9%에 달하였으며, 특히 취업자 집단에서는 60시간 이상 비율이 41.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미취업자에서도 28%에 달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과 4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V-22> 두 번째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로시간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0~10시간 미만	0(0.0)	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1.8)	0(1.7)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2.6)	3(9.9)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7.8)	9(31.6)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9(26.7)	3(12.2)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19.6)	5(16.7)
60시간 이상	13(41.5)	8(28.0)
전체	32(100.0)	27(100.0)
평균	53시간	46시간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두 번째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다양하게 응답되었다. 취업자의 경우 ‘보수가 적어서’ 30.2%, ‘적성에 맞지 않아서’ 17.7%, ‘계약기간이 끝나서’ 11.9%,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9.4% 순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취업자 집단과 같은 이유인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21.1%, ‘적성에 맞지 않아서’ 8.2%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취업자의 경우 첫 번째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 둔 것이 35.1%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표 V-23> 두 번째 일자리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 명(%))

	취업자	미취업자
전망이 없어서	2(5.9)	1(2.4)
적성에 맞지 않아서	6(17.7)	2(8.2)
보수가 적어서	10(30.2)	2(5.9)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3(9.4)	6(21.1)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로	0(0.0)	0(0.0)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0(0.0)	0(0.0)
계약기간이 끝나서	4(11.9)	0(0.0)
해고 당해서	0(0.0)	0(0.0)
사업체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1(2.0)	0(0.0)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1(1.8)	10(35.1)
기타	7(21.0)	7(27.3)
전체	32(100.0)	27(100.0)

제2절 직업생활

본 절은 3차(2006)년도 조사기간 중에 취업 상태에 있는 패널(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일자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시점에 있는 청년층들의 현재 일자리의 개수를 보면 거의 모두가 1개이며, 전체 응답자 중 여섯 명이 2개나 3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표 V-24> 현재 일자리 개수

(단위 : 명(%))

	취업자	
	남자	여자
1	71(94.7)	186(98.7)
2	2(2.9)	2(1.3)
3	2(2.4)	0(0.0)
전체	75(100.0)	188(100.0)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인 97.7%가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한다(아르바이트 포함)'는 응답을 하였다.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식당주인 등 내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가족친척 도움 등의 응답은 상당히 낮은 비율의 응답률로 나타나, 돈을 받고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청년층 직업생활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V-25> 현재 일자리 유형

(단위 : 명(%))

	취업자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함(아르바이트 포함)	258(97.7)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과외,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	3(1.2)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움	3(1.1)
전체	264(100.0)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첫 번째 일자리로써 임금근로자인 258명의 입사 형식을 보면, '소개나 추천'이 51.6%에 달했고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가 22.7%로 나타난 가운데 '공개채용(취직시험)'의 경우는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26> 임금근로자 - 입사 형식

(단위 : 명(%))

	임금근로자
공개채용(취직시험)	31(12.0)
소개나 추천	133(51.6)
스카우트	4(1.6)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59(22.7)
기타	31(12.1)
전체	258(100.0)

임금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24.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소매업(자동차 제외)’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각각 14.1%와 11.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는 임금근로자들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통신업에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외에는 여러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표 V-27> 일 해당 산업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음·식료품 제조업	2(0.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7)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6)	통신업	8(3.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5)	금융업	0(0.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1.8)	부동산업	2(0.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0.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1.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0.3)
제 1차 금속산업	1(0.3)	연구 및 개발업	1(0.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3.4)	사업지원 서비스업	0(0.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3(24.6)	교육 서비스업	4(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	보건업	14(5.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0)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1(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1.4)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9(7.5)
종합건설업	3(1.1)	회원 단체	2(0.7)
전문직별 공사업	2(0.8)	수리업	0(0.2)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2(0.6)	기타 서비스업	5(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3.0)	미분류	4(1.5)
소매업; 자동차 제외	36(14.1)	전체	256(100.0)
숙박 및 음식점업	30(11.7)		

현재 임금 근로자의 직업별 빈도수를 보면 ‘전기, 전자부품, 제품조립 및 검사원’ 직업 분야가 25.7%로 다른 직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두 번째로는 판매원이 9.5%였고 식당 서비스 관련 직이 8.7%로 뒤를 이었으며,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경영 관련 사무직,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이 좀 많이 나타났고, 나머지 직업별로는 낮은 비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8> 일 해당 직업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2(0.7)	조주사	3(1.1)
경영 관련 사무직	12(4.9)	식당 서비스 관련직	22(8.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16(6.2)	건축완성 관련직	1(0.5)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11(4.4)	자동차 정비원	0(0.2)
비서 및 사무보조원	10(4.0)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직원	1(0.4)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0.2)	로봇조작 및 자동조립라인 조직원	0(0.1)
학원강사	3(1.1)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0.8)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0.3)	관금 관련직	0(0.0)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0(3.9)	용접원	1(0.3)
디자인 관련직	1(0.4)	금속제조 관련 조직원	0(0.1)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1(0.3)	비금속제조관련 조직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0.8)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1(0.4)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직원	4(1.7)
운송관련 단순직	2(0.8)	전공	1(0.5)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0(0.2)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3(1.3)
판매원	24(9.5)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직원	1(0.2)
판매 관련 단순직	8(3.1)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	65(25.7)
경비 관련직	2(0.9)	식품공학 기술자	1(0.4)
계기검집, 수급 및 주차관리 관련직	1(0.5)	식품가공 관련직	5(2.0)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5(2.0)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직원	1(0.6)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0.3)	생산관련 단순직	4(1.4)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3(5.1)	미분류	7(2.7)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3(1.1)		
주방장 및 조리사	1(0.4)	전체	253(100.0)

임금 근로자들의 상용직 여부에 있어서는 72.1%가 상용직, 임시직이 25%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일자리 형태가 상용적인 패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93.3%, 비정규직이 6.7%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V-29> 현재 일자리 - 일자리 형태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상용직	185(72.1)
임시직	64(25.0)
일용직	8(3.0)
전체	256(100.0)

<표 V-30> 현재 일자리 - 근무형태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정규직	172(93.3)
비정규직	12(6.7)
전체	185(100.0)

상용직이 아닌 임금 근로자들 중 비 상용직 근무 이유를 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고,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가 25.9%로 나타났다. 한편 ‘원하는 상용직을 구하지 못해서’는 20.6%로 응답하고 있어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80% 가량이 상용직과 비 상용직의 차이점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알 수 있다.

<표 V-31> 현재 일자리 - 비상용직 근무 이유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상용직을 원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15(20.6)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	22(30.7)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서	19(25.9)
기타	16(22.8)
전체	72(100.0)

일자리 근무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76.5%에 달하고 시간제는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현재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시간제	60(23.5)
전일제	196(76.5)
전체	257(100.0)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78.8%로 월등히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재단, 사단) 법인단체’가 18.1%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기관(공무원, 직업군인, 경찰)’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동 합동기업’은 일부의 경우로 나타났다.

<표 V-33> 현재 일자리 - 직장 소속유형

(단위 : 명(%))

	임금근로자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02(78.8)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재단, 사단)법인단체	1(0.6)
정부기관(공무원, 직업군인, 경찰 등)	46(18.1)
전체	6(2.5)
	256(100.0)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직장의 종업원의 규모를 보면 ‘10인 이하’의 경우가 3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두 번째로는 상반되게 ‘1,000인 이상’이 26.1%로 나타났고 그 밖의 경우에는 ‘11인 ~ 49인’이 18.1% ‘50인 ~ 299인’이 13.6%, ‘300인 ~ 999인’이 11.5%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V-34> 현재 일자리 - 종업원 규모

(단위 : 명(%))

	임금근로자
10인 이하	77(30.8)
11인~49인	45(18.1)
50인~299인	34(13.6)
300인~999인	29(11.5)
1,000인 이상	66(26.1)
전체	251(100.0)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67.5%, ‘고용보

협'과 '산재보험'이 66.8% 가입되어 있었고,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는 57.3%가 가입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이로써 30~40% 가량의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자리에 채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V-35> 현재 일자리 -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예	147(57.3)
	아니오	109(42.7)
국민건강보험	예	173(67.5)
	아니오	83(32.5)
고용보험	예	171(66.8)
	아니오	85(33.2)
산재보험	예	171(66.8)
	아니오	85(33.2)
전체		256(100.0)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의 경우, 6일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일이 29.1%로 나타났다. 한편 7일이라는 응답도 9.8%로 나타나 청년층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나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6> 현재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단위 : 명(%))

	임금근로자
2	6(2.2)
3	2(0.7)
4	2(0.7)
5	74(29.1)
6	147(57.5)
7	25(9.8)
전체	256(100.0)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보면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60시간 이상' 근무 한다는 응답도 3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부합하는 40시간 미만을 응답한 경우는 8.5%에 불과하고, 평균으로도 52시간으로 나타나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7> 현재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무시간

(단위 : 명(%))

	임금근로자
0~10시간 미만	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2.2)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4(1.6)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4.7)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97(37.9)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55(21.5)
60시간 이상	82(32.0)
전체	255(100.0)
평균	52시간

일주일 총 정규 근무시간을 보면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60시간 이상' 근무 한다는 응답도 25.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부합하는 40시간 미만을 응답한 경우는 9.4%에 불과하고, 평균으로도 50.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V-38> 현재 일자리 - 일주일 총 정규 근무시간

(단위 : 명(%))

	임금근로자
0~10시간 미만	0(0.1)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2.3)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5(1.8)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3(5.2)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116(45.3)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50(19.8)
60시간 이상	66(25.6)
전체	255(100.0)
평균	50.3시간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에서 43.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한편 '5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취업자도 7.3% 정도 있었으며, 3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근로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평균치로 보면 9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현재 일자리 -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임금근로자
0~50만원 미만	18(7.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9(43.9)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6(42.9)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4.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1.5)
300만원 이상	0(0.0)
전체	248(100.0)
평균	94만원

월평균 초과 근로수당을 보면 96.2%가 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하였고,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이 3.1%였고, 150만원 이상 받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V-40> 현재 일자리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단위 : 명(%))

	임금근로자
0~50만원 미만	216(96.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3.1)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6)
150만원 이상	0(0.0)
전체	225(100.0)
평균	9만원

월평균 특별급여에 있어서도 5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이 91.4%였고,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응답이 8.6%였다. 한편 100만원 이상 특별급여를 받는다는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V-41> 현재 일자리 - 월평균 특별급여

(단위 : 명(%))

	임금근로자
0~50만원 미만	198(91.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9(8.6)
100만원 이상	0(0.0)
전체	217(100.0)
평균	10.6만원

현재 일자리의 임금 산정 방식으로는 월급제가 70.8%였으며, 시간급제가 17.5%, 연봉계약제가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당제는 2.8%, 기본급없이 능력,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0.5%로 나타났다.

<표 V-42> 현재 일자리 - 임금 산정 방식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연봉계약제	21(8.3)
월급제	181(70.8)
주급제 또는 격주제	0(0.0)
일당제	7(2.8)
시간급제	45(17.5)
기본급없이 능력, 실적에 따라 결정됨	1(0.5)
기타	0(0.0)
전체	256(100.0)

임금을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다는 취업자는 95.6%였으며,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현재 일자리 - 임금 받는 곳

(단위 : 명(%))

	임금근로자
현재 일하고 있는 곳	245(95.6)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11(4.4)
전체	257(100.0)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노동조합 여부를 보면 ‘노동조합이 없다’는 응답이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노동조합이 있고,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2.8%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년층들이 임금근로자로 소속한 상당수의 일자리에 노동조합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청년층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V-44> 현재 일자리 - 노동조합 여부

(단위 : 명(%))

	임금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다	188(77.7)
노동조합이 있고, 현재 가입하고 있다	23(9.5)
노동조합이 있고,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다	31(12.8)
전체	242(100.0)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의 일·업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먼저 ‘전공과 잘 맞는다’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한 취업자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취업자도 각각 23.9%, 1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공과 잘 맞는다고 대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업무와 전공과의 적합성이 높지 못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과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62%로 크게 높았으며, ‘내 수준보다 낮다’라고 대답한 취업자도 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취업자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보다 업무에 있어서 더 높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과 교육수준’ 질문에는 ‘내 수준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0.9%, ‘내 수준보다 낮다’가 25.8%로 응답되어 기술과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였다.

<표 V-45> 현재 일자리 - 일·업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일과 전공 일치도	전혀 그렇지 않다	31(12.2)
	그렇지 않다	61(23.9)
	보통이다	99(38.7)
	그렇다	57(22.4)
	매우 그렇다	7(2.8)
일과 기술, 능력 수준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3(1.1)
	내 수준보다 높다	29(11.4)
	내 수준과 비슷하다	159(62.0)
	내 수준보다 낮다	59(23.0)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6(2.5)
일과 교육 수준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3(1.2)
	내 수준보다 높다	24(9.6)
	내 수준과 비슷하다	155(60.9)
	내 수준보다 낮다	66(25.8)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6(2.5)
전체		256(100.0)

일(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를 보면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53.3%인 가운데 ‘그렇다’라는 응답이 27.5%, ‘매우 그렇다’가 1.1%로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나, 일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V-46> 현재 일자리 - 일·업무 만족 평가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전혀 그렇지 않다		5(2.0)
그렇지 않다		41(16.1)
보통이다		136(53.3)
그렇다		70(27.5)
매우 그렇다		3(1.1)
전체		256(100.0)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임금, 직장의 안정성 질문에서는 보통이상을 기준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불만족한다는 부정적인 답변보다 높았던 반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복지후생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묻

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26.8%, ‘전혀 그렇지 않다’ 9.3%로 나타나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이 현재의 근무여건에는 일정정도 만족하며 일하고 있는 반면 미래의 발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만족 내지는 불확실성을 높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V-47> 현재 일자리 - 근무여건 만족도

(단위 : 명(%))

		임금근로자
근무환경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4(1.4)
	그렇지 않다	33(13.0)
	보통이다	110(42.8)
	그렇다	98(38.4)
	매우 그렇다	11(4.3)
	전체	256(100.0)
근무시간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0(3.9)
	그렇지 않다	50(19.3)
	보통이다	100(39.0)
	그렇다	88(34.5)
	매우 그렇다	8(3.3)
	전체	257(100.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0.3)
	그렇지 않다	20(7.7)
	보통이다	95(36.9)
	그렇다	126(49.3)
	매우 그렇다	15(5.9)
	전체	256(100.0)
임금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4(5.5)
	그렇지 않다	56(21.8)
	보통이다	100(38.9)
	그렇다	81(31.6)
	매우 그렇다	6(2.2)
	전체	257(10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24(9.3)
	그렇지 않다	69(26.8)
	보통이다	105(40.9)
	그렇다	53(20.6)
	매우 그렇다	6(2.4)
	전체	257(100.0)
복지후생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0(3.8)
	그렇지 않다	66(26.1)
	보통이다	97(38.0)
	그렇다	64(25.2)
	매우 그렇다	17(6.9)
	전체	254(100.0)
직장의 안정성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1(4.5)
	그렇지 않다	41(15.9)
	보통이다	91(35.6)
	그렇다	95(36.9)
	매우 그렇다	18(7.2)
	전체	257(100.0)

앞에 근무만족도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만족하고 있었듯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유무를 묻는 질문에도 찾지 않는다는 취업자가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48> 현재 일자리 - 다른 일자리 찾는 유무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예	47(18.5)
아니오	209(81.5)
전체	256(100.0)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고 응답한 취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이유를 보면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가 적어서’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3.9%, 19.7%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른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은 미래 문제와 임금 및 적성 문제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V-49> 현재 일자리 - 다른 일자리 찾는 이유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	15(32.6)
적성에 맞지 않아서	9(19.7)
보수가 적어서	11(23.9)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1(2.1)
동료 및 상관과의 불화	0(0.9)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0(0.4)
고용상태가 불안해서	0(0.0)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2(3.5)
기타	8(16.8)
전체	47(100.0)

제3절 비경제활동 현황

본 절은 3차(2006)년도 조사기간 중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패널(학생)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현황에서 미취업자들에게 지난 1주일간 일자리 유무를 묻은 결과, 41%의 경우만 일자리가 있었다고 하였고, 95.9%의 청년층 미취업자들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없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 1주일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보면 미취업자의 10.5%만이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청년층 미취업자들의 대다수가 지난 1주일간에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임을 알 수 있다.

<표 V-50>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단위 : 명(%))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일자리 여부	예	11(4.1)	-		
	아니오	260(95.9)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여부	예	27(10.5)
				아니오	232(89.5)
			전체	260(100.0)	
전체	271(100.0)	-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층들이 구직활동을 안한 이유로는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가 50.6%로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입대 예정이어서'가 18.2%, 취업시험이나 자격시험 준비 중인 경우가 11.9% 등으로 나타났다.

<표 V-51>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안한 이유

(단위 : 명(%))

	미취업자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118(50.6)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 중이어서	20(8.7)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7(3.2)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1(0.5)
군입대 예정이어서	42(18.2)
육아나 가사로 인하여	6(2.5)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5(2.0)
취업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4(1.8)
기타	29(12.6)
전체	232(100.0)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들의 일할 의사 여부를 보면 81.3%가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 반면 18.7%는 군입대 예정이나 대학 진학 준비를 이유로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 일할 의사 여부

(단위 : 명(%))

	미취업자
예	31(81.3)
아니오	7(18.7)
전체	38(100.0)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적어도 얼마의 월소득이면 일을 하겠는가(한계소득)를 묻은 결과 56%가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을 응답하였고, 22.7%가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을 응답하였다. 반면 150만원이상 응답률은 모두 합해서 21.4%에 불과하였다.

<표 V-53> 한계 소득

(단위 : 명(%))

	미취업자
0~50만원 미만	0(0.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22.7)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8(56.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7.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7.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0)
400만원 이상	2(6.5)
전체	31(100.0)

제4절 경제의식

본 절은 3차(2006)년도 조사기간 중에 고2(18세), 대학생·취업비진학(21세) 상태에 있는 패널(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의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우선 분석 대상자는 경제의식 관련 문항에 대한 결측자 등을 제외하고 총 3,596명이며, 연령·교급으로 분류하면 고등학생이 42.7%, 대학생 및 취업비진학 상태의 성인이 57.3%이다.⁶⁾

<표 V-54> 경제의식 관련 분석 대상자 특성

구 분		분석 대상자 수(명)	구성비 (%)
전 체		3,596	100.00
성별	남 자	1,570	43.66
	여 자	2,026	56.34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18세	1,537	42.74
	(일반계)	1,129	31.40
	(전문계)	408	11.35
	성인: 21세	2,059	57.26
	(대학)	1,587	44.13
	(취업비진학)	472	13.13

소비 행동 가운데 ‘물건 구매시 꼼꼼히 체크하는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그렇다는 응답이 50% 정도로써 15% 가량에 불과한 (매우)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좀 더 꼼꼼히 체크하고, 교급(연령)별로는 고등학생보다는 성인이, 특히 대학생이 꼼꼼히 체크한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높았다.

6) 본 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의 자료로 성별, 연령 및 교급별, 그리고 특정 문항들을 고려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표 V-55> 소비 행동 - 구매시 꼼꼼히 체크하는 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자	1.53	15.56	33.55	37.50	11.86	
	여 자	0.79	11.12	29.55	46.69	11.86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1.15	16.39	31.36	41.98	9.12
		전문고	1.23	17.40	37.75	34.07	9.56
	성인	대학생	1.07	9.65	28.50	45.96	14.82
		비진학자	1.07	12.79	34.97	40.72	10.45

소비 행동 가운데 '물건 구매시 충분히 가격 비교하는 가'에 있어서 (매우)그렇다는 응답이 64% 정도로써 (매우)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좀 더 충분히 비교하고, 교급(연령)별로는 성인, 특히 대학생이 가격비교를 충분히 하는 경향이 크게 높았다.

<표 V-56> 소비 행동 - 구매시 가격비교 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자	2.68	14.53	24.09	42.83	15.87	
	여 자	0.79	11.07	21.06	51.16	15.92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2.04	13.91	23.74	47.39	12.93
		전문고	2.45	14.22	20.10	49.75	13.48
	성인	대학생	1.07	10.47	21.07	48.71	18.68
		비진학자	1.70	15.11	25.53	41.91	15.74

소비 행동 가운데 '충동구매 경향'에 있어서 (매우)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 정도로써 (매우)그렇다는 응답 29%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응답 비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편 교급(연령)별로는 성인에 비해 고등학생이,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충동구매 경향이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충동구매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7> 소비 행동 - 총동구매 경향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자	9.12	38.27	30.36	19.13	3.13	
	여 자	4.74	29.84	33.20	28.11	4.10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7.71	40.34	30.94	18.53	2.48
		전문고	9.07	32.11	31.13	24.51	3.19
	성인	대학생	5.55	30.52	32.85	26.67	4.41
		비진학자	5.74	28.51	32.13	29.15	4.47
용돈액수	5만원 미만		10.49	41.49	30.30	16.20	1.52
	5~10만원 미만		7.61	36.45	31.06	21.39	3.49
	10~20만원 미만		5.69	34.12	32.54	24.17	3.48
	20만원 이상		4.45	27.36	32.90	30.16	5.13

소비 행동 가운데 ‘유명상표 구매 성향’에 있어서 (매우)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3% 정도로써 (매우)그렇다는 응답 11% 수준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성별, 연령(교급)별 구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로 드러나지 않았다.

<표 V-58> 소비 행동 - 유명상표 구매 성향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자	20.65	41.17	26.13	10.58	1.47	
	여 자	19.70	45.33	24.79	9.33	0.84	
고등 및 성인	고등학생	일반고	19.49	44.02	26.04	9.39	1.06
		전문고	16.91	38.97	29.66	12.75	1.72
	성인	대학생	21.30	43.67	24.70	9.33	1.01
		비진학자	20.43	45.74	22.34	10.43	1.06

소비 행동 가운데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과 ‘유행에 민감한 경향’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물건을 더 오래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크게 높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응답비율도 크게 높게 나타났다.

<표 V-59> 소비 행동 - 물건 최대한 사용 및 유행 민감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물건 최대한 사용	남 자	0.96	15.44	42.31	32.61	8.68
	여 자	1.68	20.30	42.37	30.67	4.99
유행 민감	남 자	11.67	38.52	36.03	12.69	1.08
	여 자	5.93	35.56	39.75	17.38	1.38

경제현안에 대한 견해로써 노사문제, 빈부격차, 실업 문제를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생활수준별 구분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학생 신분에 있는 청년층, 특히 대학생들이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위 경제현안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보는 견해가 전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0> 경제문제 견해 I

(단위 : %)

구 분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	보통이다	양호한 편이다	매우 양호하다	
노사문제	고등학생	일반고	10.83	61.90	26.02	1.07	0.18
		전문고	8.11	42.75	46.44	2.70	0.00
	성인	대학생	11.07	60.03	27.70	1.14	0.06
		비진학자	8.96	48.19	39.02	3.84	0.00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	고등학생	일반고	29.88	57.62	11.52	0.89	0.09
		전문고	18.92	50.12	27.76	3.19	0.00
	성인	대학생	31.71	54.26	12.95	0.95	0.13
		비진학자	23.35	56.05	19.32	1.27	0.00
실업문제	고등학생	일반고	40.78	47.43	10.73	0.98	0.09
		전문고	33.82	44.85	20.59	0.74	0.00
	성인	대학생	34.95	52.37	11.74	0.82	0.13
		비진학자	33.33	47.98	17.20	1.49	0.00

물가와 부동산투기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65% 가량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성인(대학생, 취업비진학자)들이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성의 경우,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V-61> 경제문제 견해 II

(단위 : %)

구 분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	보통이다	양호한 편이다	매우 양호하다	
물가문제	성별	남 자	11.66	45.29	39.94	2.87	0.25	
		여 자	10.07	50.27	38.32	1.33	0.00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8.06	44.11	45.00	2.66	0.18
			전문고	8.82	40.93	47.06	3.19	0.00
		성인	대학생	12.35	50.35	35.60	1.58	0.13
			비진학자	13.59	56.26	29.30	0.85	0.00
	근로경험	경험있음	11.87	52.02	34.70	1.35	0.06	
		경험없음	9.65	44.24	43.30	2.65	0.17	
부동산투기 문제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18.53	50.98	29.17	1.33	0.00
			전문고	13.30	39.41	45.57	1.23	0.49
	성인	대학생	19.76	51.27	28.02	0.95	0.00	
		비진학자	16.84	49.89	31.34	1.92	0.00	

경제 미래관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52%)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낙관하는 비율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과 성인들 사이에 일관된 큰 차이는 없으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62>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단위 : %)

구 분		매우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낙관적인 편이다	매우 낙관적이다
고등학생	일반고	5.59	54.84	30.35	8.61	0.62
	전문고	4.41	41.91	47.30	5.88	0.49
성인	대학생	4.73	43.41	40.44	11.29	0.13
	비진학자	4.66	48.73	38.14	8.05	0.42

경제적 성공 요소에 대한 질문에 71%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인의 노력을 지적했다. 이러한 성향은 고등학생의 경우가 성인보다 다소 더 높았으며, 성인의 경우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연줄을 답한 비율이 보다 높았다.

<표 V-63> 경제적 성공의 중요 요소

(단위 : %)

구 분		부모(보호자)의 도움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연줄	본인의 노력	운	기타
고등학생	일반고	5.58	17.89	70.42	4.61	1.51
	전문고	7.60	10.78	74.75	5.39	1.47
성인	대학생	3.59	19.91	71.14	3.78	1.58
	비진학자	5.51	16.10	71.19	5.51	1.69

한편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해 거의 과반수(47.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여자(47.9%)가 남자(45.9%)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V-64> 학교성과 경제적 성공 연관성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자	13.89	31.99	29.57	20.91	3.63
	여 자	11.06	36.87	30.26	19.99	1.83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31.7%) 또는 대학 졸업 때까지(51.8%)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12%, 결혼할 때까지는 3% 내외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모의 경제적 책임시기를 훨씬 더 길게 바라보고 있으며, 연령(교급)별로는 취업비진학자,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률이 큰 차이를 보이며 낮아지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때까지만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다.

<표 V-65> 부모의 자식에 대한 경제적 책임시기

(단위 : %)

구 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평생	
성별	남 자	35.25	50.16	11.92	2.49	0.19	
	여 자	28.95	53.11	13.34	4.40	0.20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39.59	50.75	7.44	2.13	0.09
		전문고	43.24	41.28	10.81	4.18	0.49
	성인	대학생	17.67	63.34	15.52	3.22	0.25
		비진학자	50.00	24.79	17.58	7.63	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2.65	40.00	13.24	3.82	0.29	
	100~200만원 미만	39.16	43.10	13.80	3.68	0.26	
	200~300만원 미만	30.32	53.05	12.44	3.85	0.34	
	300~500만원 미만	27.77	57.38	11.60	3.16	0.09	
	500~700만원 미만	22.56	59.45	14.63	3.35	0.00	
	700만원 이상	26.76	57.04	11.97	4.23	0.00	

학교 경제교육이 도움을 주는가를 질문한 항목들에서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은 20% 수준을 밑돈 반면 부정적인 답변과 보통이라는 유보적 답변이 각각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현안이나 문제 이해에 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취업비진학자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크게 높았으며,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래 직업 설계에 있어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래직업을 결정한 사람의 긍정적 답변 비율이 결정 못한 사람보다 크게 높다. 바람직한 경제적 가치관 정립에 관해서는 취업비진학자, 일반계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순으로 부정적인 견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66> 학교 경제교육 유용성 평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현안이나 문제 이해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9.06	30.55	45.38	14.12	0.89
			전문고	4.93	30.05	55.91	8.62	0.49
		성인	대학생	5.86	30.25	47.64	15.63	0.63
			비진학자	8.92	35.46	39.07	15.92	0.64
합리적인 소비생활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1	29.41	51.76	13.24	0.88
		100~200만원 미만		6.04	28.52	47.31	17.74	0.39
		200~300만원 미만		3.96	25.68	52.49	17.42	0.45
		300~500만원 미만		7.40	25.37	47.22	19.03	0.97
		500~700만원 미만		8.84	23.78	46.65	18.90	1.83
		700만원 이상		9.15	21.83	42.25	24.65	2.11
장래 직업 설계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7.19	23.60	47.65	20.14	1.42
			전문고	4.91	18.92	50.86	23.10	2.21
		성인	대학생	6.70	28.87	44.41	18.19	1.83
			비진학자	9.77	31.42	43.10	14.65	1.06
	미래직업 결정여부	결정		6.31	20.92	46.05	24.04	2.68
		미결정		6.99	30.53	46.70	15.01	0.78
바람직한 경제가치관 정립	연령 및 교급	고등학생	일반고	6.48	26.44	49.60	16.59	0.89
			전문고	4.18	20.15	58.97	15.72	0.98
		성인	대학생	5.36	23.91	51.17	18.42	1.14
			비진학자	7.86	32.48	42.04	16.56	1.06

제 6 장

진로지도와 진로계획

- 제1절 적성인지 및 진로지도
- 제2절 희망 교육 수준 및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 제3절 미래 직업
- 제4절 진학 계획

제 6 장

진로지도와 진로계획

제1절 적성인지 및 진로지도

자신의 적성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고등학생의 59.5%, 대학생의 63.4%, 비진학자의 5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적성인지 수준은 전문계 고등학생 46.9%, 일반계 고등학생 64.2%로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적성 인지 수준은 차이가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의 절반이상이 자신의 적성을 모르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는 2년제 대학생 61.4%, 4년제 대학생 64.3%로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적성 인지 수준은 비슷하며, 비진학자의 경우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적성인지 비율은 54%로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대학생의 적성인지 수준(63.4%)이 비진학자의 적성인지 수준(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1> 적성 인지 여부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비진학자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예	219(46.9)	817(64.2)	349(61.4)	787(64.3)	143(54.0)	152(54.0)
아니오	248(53.1)	456(35.8)	219(38.6)	436(35.7)	122(46.0)	129(46.0)
전체	467(100.0)	1273(100.0)	568(100.0)	1223(100.0)	264(100.0)	281(100.0)

적성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스스로의 판단으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적성·흥미검사를 통해서’,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급별 응답 분포를 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51.5%, 일반계 고등학생의 53%가 ‘스스로의 판단으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생 26.9%, 일반계 고등학생 35.3%가 ‘적성·흥미검사를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적성·흥미검사를 통해서 적성을 알게 된 비율이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일반계 고등학생(6%)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생(1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2> 적성을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적성·흥미검사를 통해서	59(26.9)	289(35.3)
스스로의 판단으로	113(51.5)	433(53.0)
부모님을 통해서	4(1.9)	13(1.6)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26(11.9)	49(6.0)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8(3.5)	9(1.1)
책이나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서	6(2.6)	12(1.5)
기타	4(1.8)	11(1.4)
전체	219(100.0)	817(100.0)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진로 관련 검사’에 대한 경험이 전문계 고등학생 69.6%, 일반계 고등학생 81.1%로 가장 많으며, ‘직업체험’에 대한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진로 관련 검사에 대한 경험은 70~80%정도로 높은 반면 그 외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40% 이하 수준이다. 특히 직업체험에 대한 경험은 전문계 고등학생 11.9%, 일반계 고등학생 5.4%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로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진로와 직업교과 이수’, ‘진로 관련 강연’, ‘진로 관련 검사’, ‘진로 상담’에 대한 경험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하였고,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에 대한 경험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일반계 고등학생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3>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경험	예	130(27.9)	452(35.5)
	아니오	337(72.1)	821(64.5)
	전체	467(100.0)	1,273(100.0)
진로관련 강연 경험	예	159(34.1)	457(35.9)
	아니오	308(65.9)	816(64.1)
	전체	467(100.0)	1,273(100.0)
학교 및 학과안내 경험	예	167(35.7)	397(31.2)
	아니오	300(64.3)	876(68.8)
	전체	467(100.0)	1,273(100.0)
진로관련 검사 경험	예	325(69.6)	1032(81.1)
	아니오	142(30.4)	241(18.9)
	전체	467(100.0)	1,273(100.0)
직업체험 경험	예	56(11.9)	68(5.4)
	아니오	411(88.1)	1205(94.6)
	전체	467(100.0)	1,273(100.0)
진로상담 경험	예	174(37.3)	509(40.0)
	아니오	293(62.7)	763(60.0)
	전체	467(100.0)	1,272(100.0)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와 직업 교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전문계 고등학생 61.7%, 일반계 고등학생 39.8%로 가장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만족한다(‘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26%) 보다 일반계 고등학생(46.5%)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진로 관련 강연’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전문계 고등학생 59.3%, 일반계 고등학생 51.1%로 가장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만족한다’(21.8%)라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18.9%)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25.3%)라는 응답이 ‘만족한다’(23.6%)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및 학과 안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전문계 고등학생 61.7%, 일반계 고등학생 54.8%로 가장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만족한다’(20%)라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18.3%)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22.8%)

와 ‘만족한다’(22.3%)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 관련 검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전문계 고등학생 52.2%, 일반계 고등학생 48.3%로 가장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만족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 28.9%, 일반계 고등학생 29.2%로 비슷한 수준이다.

‘직업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보통이다’(5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34.2%)라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6.3%)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그렇지 않다’(4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다’(48%)라는 응답이 ‘만족한다’(35.8%)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전문계 고등학생 59%, 일반계 고등학생 48.8%로 가장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만족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23.4%) 보다 일반계 고등학생(29.4%)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VI-4>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만족도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와 직업 교과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8(6.2)	73(16.1)
	그렇지 않다	26(19.8)	137(30.4)
	보통이다	80(61.7)	180(39.8)
	그렇다	16(12.3)	54(11.9)
	매우 그렇다	0(0.0)	8(1.8)
	전체	130(100.0)	452(100.0)
진로관련 강연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4(2.8)	26(5.6)
	그렇지 않다	26(16.1)	90(19.7)
	보통이다	95(59.3)	234(51.1)
	그렇다	32(19.8)	97(21.2)
	매우 그렇다	3(2.0)	11(2.4)
	전체	159(100.0)	457(100.0)
학교 및 학과안내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3(2.1)	11(2.8)
	그렇지 않다	27(16.2)	80(20.0)
	보통이다	103(61.7)	217(54.8)
	그렇다	33(20.0)	84(21.0)
	매우 그렇다	0(0.0)	5(1.3)
	전체	167(100.0)	397(100.0)
진로관련 검사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2(3.7)	42(4.1)
	그렇지 않다	49(15.2)	190(18.5)
	보통이다	170(52.2)	498(48.3)
	그렇다	86(26.4)	278(27.0)
	매우 그렇다	8(2.5)	23(2.2)
	전체	325(100.0)	1,031(100.0)
직업체험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0(0.5)	4(5.7)
	그렇지 않다	3(5.8)	29(42.3)
	보통이다	33(59.4)	11(16.1)
	그렇다	15(26.8)	19(27.9)
	매우 그렇다	4(7.4)	5(7.9)
	전체	56(100.0)	68(100.0)
진로상담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2(1.3)	20(3.9)
	그렇지 않다	28(16.2)	92(18.0)
	보통이다	103(59.0)	248(48.8)
	그렇다	38(21.9)	139(27.3)
	매우 그렇다	3(1.5)	11(2.1)
	전체	174(100.0)	509(100.0)

평소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관련 대화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으며, ‘직업, 학교, 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에 대한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을 각 항목별 비교해 보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 모든 항목에서 5~9%정도 높게 나타나며, ‘직업, 학교, 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에 대해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5>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있다	331(70.9)	970(76.2)
	없다	136(29.1)	303(23.8)
	전체	467(100.0)	1,273(100.0)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있다	333(71.3)	1,003(78.8)
	없다	134(28.7)	270(21.2)
	전체	467(100.0)	1,273(100.0)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있다	346(74.1)	1,058(83.2)
	없다	121(25.9)	214(16.8)
	전체	467(100.0)	1,272(100.0)
직업, 학교, 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있다	218(46.7)	679(53.4)
	없다	249(53.3)	594(46.6)
	전체	467(100.0)	1,273(100.0)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25.0%, 일반계 고등학생의 33.5%가 ‘인터넷’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학교선생님, 친구, 아버지, 어머니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전년도 응답 결과(2차년도 고등학생 자료)와 비교해 보면, 2차년도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 17%, 일반계 고등학생 23.8%였으며, 이는 전문계 고등학생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고,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다. 전년도에 응답 결과에 비해 ‘인터넷’의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6>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아버지	52(11.1)	100(7.8)
어머니	35(7.6)	89(7.0)
학교 선생님	106(22.7)	219(17.2)
학원 선생님	17(3.6)	94(7.4)
형제	15(3.3)	50(3.9)
친척	5(1.0)	14(1.1)
친구	67(14.3)	162(12.8)
선배	20(4.3)	31(2.4)
취업, 유학, 진학 박람회	4(0.9)	5(0.4)
진로정보제공 전문기관	2(0.4)	14(1.1)
신문, TV, 라디오	13(2.8)	32(2.5)
인터넷	117(25.0)	426(33.5)
진학정보 서적	0(0.0)	8(0.6)
기타	14(3.1)	29(2.3)
전체	467(100.0)	1,273(100.0)

‘진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21.3%, 일반계 고등학생의 22.4%가 ‘어머니’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모두 40%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부모님을 제외하면 ‘없음’이라는 응답이 전문계 고등학생 15.5%, 일반계 고등학생 17.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친구(14.1%), 학교선생님(14%) 순으로 나타나며,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학교선생님(13.1%), 친구(9.2%) 순으로 나타난다.

<표 VI-7> 진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아버지	82(17.5)	237(18.6)
어머니	99(21.3)	285(22.4)
학교 선생님	65(14.0)	166(13.1)
학원 선생님	10(2.1)	68(5.3)
형제	23(5.0)	31(2.4)
친척	6(1.2)	16(1.2)
친구	66(14.1)	118(9.2)
선배	12(2.7)	22(1.7)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2(0.5)	17(1.3)
종교인(목사, 신부, 스님 등)	1(0.2)	9(0.7)
없음	72(15.5)	222(17.5)
기타	28(6.0)	82(6.4)
전체	466(100.0)	1,272(100.0)

제2절 희망 교육 수준 및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고등학생의 희망 교육 수준을 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40.6%, 일반계 고등학생의 8.3%가 '2~3년제 대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의 45.4%, 일반계 고등학생의 75%는 '4~6년제 대학'을 희망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학(2~6년제) 진학 희망 비율은 83~86%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나, 대학 진학 희망자 중 '4~6년제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52.7%,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90%로 희망 대학의 유형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희망 교육 수준으로 고등학교를 응답한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11.9%인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0.8%로 매우 적은 비율이다.

<표 VI-8> 희망 교육 수준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고등학교	56(11.9)	10(0.8)
2~3년제 대학	190(40.6)	106(8.3)
4~6년제 대학	212(45.4)	953(75.0)
대학원 석사	5(1.1)	111(8.7)
대학원 박사	5(1.0)	91(7.2)
전체	467(100.0)	1,271(100.0)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66.4%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는 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95.9%가 대학에 진학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2.4%가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13.6%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VI-9>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대학 진학	310(66.4)	1,221(95.9)
취업 또는 창업	94(20.0)	21(1.6)
아직 결정하지 못함	63(13.6)	31(2.4)
전체	467(100.0)	1,272(100.0)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희망 이유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전문계 고등학생 53.3%, 일반계 고등학생 5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 받으므로’, ‘높은 소득을 기대 할 수 있어서’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10> 대학 진학 희망 이유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165(53.3)	712(58.3)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55(17.6)	221(18.1)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24(7.7)	63(5.2)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 받으므로	37(12.0)	152(12.5)
부모님의 기대에 따르기 위해	8(2.4)	24(2.0)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7(2.4)	6(0.5)
남들이 다 가니까	4(1.2)	13(1.1)
특별한 이유 없음	5(1.5)	12(0.9)
기타	6(1.8)	18(1.4)
전체	310(100.0)	1,221(100.0)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을 선택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47.4%, 일반계 고등학생의 61.3%가 ‘희망전공을 선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61.3%)의 희망전공 선택 비율이 전문계 고등학생(47.4%) 보다 높게 나타나며, 전문계 고등학생의 절반이상이 희망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희망 전공의 계열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공학계열’(34.1%)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열’(29.5%), ‘사회계열’(13.4%), ‘교육계열’(11.8%)의 순서로 희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사회계열’(24.3%)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열’(20.2%), ‘교육계열’(16%), ‘의학계열’(11.1%)의 순서로 희망하였다. 전문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희망 전공 분포에 차이가 있다.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희망한 전공이나,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다섯 번째로 희망하는 전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1> 희망 전공 선택 여부 및 희망 전공 계열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희망 전공 선택 여부	예	147(47.4)	748(61.3)
	아니오	163(52.6)	473(38.7)
	전체	310(100.0)	1,220(100.0)
희망 전공 계열	인문계열	1(0.7)	58(7.8)
	사회계열	20(13.4)	182(24.3)
	교육계열	17(11.8)	119(16.0)
	공학계열	50(34.1)	81(10.8)
	자연계열	6(4.2)	67(9.0)
	의약계열	7(4.6)	83(11.1)
	예체능계열	43(29.5)	151(20.2)
	특수계열	0(0.0)	3(0.4)
	미분류	3(1.7)	2(0.3)
	전체	146(100.0)	747(100.0)

고교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창업 희망 이유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돈을 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문계 고등학생 44%, 일반계 고등학생 54.1%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문계 고등학생 15.5%, 일반계 고등학생 20.4%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문계 고등학생 15.4%, 일반계 고등학생 13.3%로 세 번째로 많은 이유였다.

<표 VI-12> 취업 희망 이유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14(15.4)	3(13.3)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안 되어서	7(7.2)	0(0.0)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7(7.8)	1(4.9)
공부하기 싫어서	4(4.7)	0(0.0)
돈을 벌고 싶어서	41(44.0)	11(54.1)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5(15.5)	4(20.4)
가업을 잇기 위해	0(0.0)	0(0.0)
기타	5(5.4)	1(7.2)
전체	94(100.0)	21(100.0)

제3절 미래 직업

‘구체적인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39.8%, 일반계 고등학생의 55.4%, 2년제 대학생의 53.8%, 4년제 대학생의 45%가 ‘미래 직업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 미래 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더 높으며,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보다 미래 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VI-13>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예	186(39.8)	706(55.4)	305(53.8)	551(45.0)
아니오	281(60.2)	567(44.6)	262(46.2)	672(55.0)
전체	466(100.0)	1,273(100.0)	567(100.0)	1,223(100.0)

미래 직업을 결정한 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업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23.1%)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12.8%),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1.6%) 등을 희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28.9%)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18.3%), ‘보건, 의료 관련직’(12.8%) 등을 희망하였다. 한편 2년제 대학생에서는 ‘보건, 의료 관련직’(24.4%)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14.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14.6%),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12.2%) 등을 희망하였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22.4%)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16%),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15.7%) 등을 희망하였다.

<표 VI-14> 미래 직업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관리직	9(5.1)	49(7.0)	17(5.6)	35(6.5)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6(8.7)	29(4.2)	37(12.2)	86(15.7)
금융·보험 관련직	3(1.4)	14(2.0)	1(0.4)	11(1.9)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22(11.6)	203(28.9)	31(10.2)	123(22.4)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5(2.7)	44(6.2)	7(2.4)	22(4.1)
보건·의료 관련직	8(4.4)	90(12.8)	75(24.4)	39(7.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7)	16(2.3)	8(2.7)	21(3.9)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43(23.1)	129(18.3)	44(14.6)	88(16.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1.6)	6(0.8)	0(0.0)	1(0.2)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5)	2(0.3)	4(1.2)	2(0.5)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1.0)	4(0.6)	0(0.1)	2(0.5)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24(12.8)	33(4.8)	45(14.6)	29(5.3)
음식 서비스 관련직	6(3.2)	7(0.9)	6(2.0)	4(0.8)
건설 관련직	8(4.2)	17(2.4)	4(1.2)	11(1.9)
기계 관련직	11(5.9)	12(1.8)	2(0.7)	10(1.8)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접토·시멘트)	0(0.0)	0(0.0)	0(0.0)	1(0.3)
화학 관련직	0(0.0)	3(0.4)	0(0.0)	7(1.2)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0.4)	0(0.0)	0(0.0)	0(0.0)
전기·전자 관련직	5(2.8)	2(0.3)	4(1.4)	6(1.1)
정보통신 관련직	7(3.8)	11(1.6)	2(0.5)	11(2.0)
식품가공 관련직	2(1.0)	8(1.2)	3(1.0)	4(0.8)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0(0.0)	2(0.3)	0(0.0)	3(0.5)
농림어업 관련직	1(0.5)	2(0.2)	1(0.3)	1(0.2)
군인	5(2.9)	14(2.0)	6(1.9)	17(3.1)
미분류	3(1.7)	6(0.9)	8(2.6)	12(2.1)
전체	186(100.0)	702(100.0)	305(100.0)	549(100.0)

미래 희망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4년제 대학생에서는 ‘약간 안다’란 응답이 48~52%정도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잘 안다’란 응답이 많았다. 2년제 대학생에서는 ‘잘 안다’란 응답이 4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약간 안다’란 응답이 많았다.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해 잘 알고(‘잘 안다’ 또는 ‘매우 잘 안다’) 있는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 36.7%, 일반계 고등학생 41.6%로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2년제 대학생 60%, 4년제 대학생 45.3%로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 보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서 ‘전혀 모른다’란 응답은 매우 적다.

미래 희망 직업의 전망 및 보수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2년제 대학

생, 4년제 대학생 모두에서 ‘약간 안다’란 응답이 38~50%정도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잘 안다’란 응답이 많다. 전망 및 보수에 대해 잘 알고(‘잘 안다’ 또는 ‘매우 잘 안다’) 있는 비율은 전문계 고등학생 33%, 일반계 고등학생 37.3%로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2년제 대학생 50.3%, 4년제 대학생 42%로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 보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VI-15>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전혀 모른다	4(2.0)	1(0.1)	0(0.0)	2(0.3)
	잘 모른다	23(12.4)	46(6.6)	15(4.8)	33(6.0)
	약간 안다	91(48.9)	364(51.7)	107(35.3)	267(48.5)
	잘 안다	62(33.3)	247(35.0)	143(47.0)	198(36.0)
	매우 잘 안다	6(3.4)	47(6.6)	40(13.0)	51(9.3)
	전체	186(100.0)	705(100.0)	305(100.0)	551(100.0)
전망 및 보수	전혀 모른다	2(1.1)	3(0.4)	0(0.0)	2(0.4)
	잘 모른다	38(20.2)	84(11.8)	34(11.3)	60(10.9)
	약간 안다	85(45.7)	356(50.4)	117(38.5)	257(46.6)
	잘 안다	47(25.4)	225(31.8)	117(38.3)	188(34.1)
	매우 잘 안다	14(7.6)	39(5.5)	36(12.0)	44(7.9)
	전체	186(100.0)	706(100.0)	305(100.0)	551(100.0)

미래 직업을 결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문계 고등학생(72.1%), 일반계 고등학생(67.7%), 2년제 대학생(57.8%), 4년제 대학생(61.7%) 모두 첫 번째 이유로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생은 ‘높은 소득을 기대 할 수 있어서’(6.8%)라고 응답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8.6%), 2년제 대학생(17.6%), 4년제 대학생(16.3%)은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희망 이유로는 전문계 고등학생(26.4%), 일반계 고등학생(21%), 2년제 대학생(30.2%), 4년제 대학생(30.9%) 모두 ‘나의 발전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생(18%)과 일반계 고등학생(14.1%)에서는 ‘높은 소득을 기대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2년제 대학생(14%)과 4년제 대학생(12.8%)에서는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VI-16> 미래 직업 희망 이유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1순위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134(72.1)	478(67.7)	176(57.8)	340(61.7)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13(6.8)	41(5.8)	25(8.1)	31(5.7)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10(5.6)	61(8.6)	54(17.6)	90(16.3)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10(5.2)	43(6.1)	19(6.1)	48(8.8)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1.8)	12(1.7)	1(0.3)	8(1.4)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4(2.0)	12(1.7)	2(0.6)	5(0.9)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2.3)	7(1.0)	7(2.3)	11(2.0)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1.8)	23(3.2)	11(3.5)	8(1.4)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0.8)	22(3.1)	5(1.7)	6(1.1)
	기타	3(1.5)	7(1.0)	6(2.1)	4(0.8)
전체	186(100.0)	706(100.0)	305(100.0)	551(100.0)	
2순위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15(8.1)	91(13.0)	43(14.0)	70(12.8)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33(8.0)	99(14.1)	42(13.8)	68(12.4)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20(11.1)	89(12.7)	52(17.1)	67(12.2)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49(26.4)	148(21.0)	92(30.2)	170(30.9)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1.8)	39(5.6)	10(3.3)	22(4.0)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7(3.6)	69(9.8)	13(4.3)	49(8.9)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4.6)	40(5.6)	11(3.6)	11(2.0)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3(12.6)	56(8.0)	8(2.5)	33(6.0)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3(7.0)	52(7.4)	24(7.8)	43(7.7)
	기타	12(6.7)	20(2.9)	10(3.3)	17(3.0)
전체	184(100.0)	704(100.0)	304(100.0)	550(100.0)	

미래 희망 직업과 관련하여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역할 모델(role model)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50%, 일반계 고등학생의 55.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 ‘있다’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의 그 사람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41.8%, 일반계 고등학생의 45.5%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생의 28.6%, 일반계 고등학생의 31.2%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 이웃 등 아는 사람임’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 친인척, 선생님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각각 41.1%, 39.3%를 차지하는 반면에 ‘책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8~10%정도로 비교적 낮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VI-17> 미래 직업에 대한 역할 모델 유무 및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역할 모델 유무	예	93(50.0)	395(55.9)
	아니오	93(50.0)	311(44.1)
	전체	186(100.0)	706(100.0)
역할모델 알게 된 경로	책을 통해서	8(8.6)	40(10.0)
	언론 매체를 통해서	39(41.8)	180(45.5)
	되고 싶은 사람이 가족 또는 친인척임	12(12.5)	32(8.1)
	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 이웃 등 아는 사람임	27(28.6)	123(31.2)
	기타	8(8.5)	20(5.1)
	전체	93(100.0)	395(100.0)

대학생의 미래 희망 직업과 전공 일치 정도를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가 각각 59.0%, 5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란 응답이 각각 25.9%, 23.6%로 많았다. 2년제 대학생의 84.9%, 4년제 대학생의 76%가 미래 희망 직업과 전공이 일치한다는 반면에 2년제 대학생의 10.8%, 4년제 대학생의 16.1%는 희망 직업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8> 미래직업 전공과의 일치도

(단위 : 명(%))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전혀 그렇지 않다	21(6.8)	49(8.9)
그렇지 않다	12(4.0)	40(7.2)
보통이다	13(4.2)	44(8.0)
그렇다	79(25.9)	130(23.6)
매우 그렇다	180(59.0)	289(52.4)
전체	305(100.0)	551(100.0)

미래의 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아직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나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33.7%, 37.2%로 가장 많았고, 2년제 대학생에서는 ‘나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와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생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34~37%정도인 반면에 대학생에서는 25~28%정도로 고등학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표 VI-19> 미래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고	일반고	2년제	4년제
나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	95(33.7)	211(37.2)	72(27.6)	167(24.8)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어서	43(15.3)	114(20.1)	65(25.0)	134(19.9)
부모님(중요한 사람)과 의견 차이가 커서	6(2.3)	9(1.6)	0(0.0)	8(1.1)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	57(20.3)	123(21.8)	72(27.6)	243(36.2)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잘 할 자신이 없어서	53(18.7)	79(13.9)	27(10.1)	66(9.8)
관심이 없어서	13(4.5)	8(1.4)	4(1.3)	13(1.9)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므로	0(0.0)	0(0.0)	1(0.3)	0(0.0)
기타	15(5.2)	23(4.1)	21(8.1)	41(6.1)
전체	281(100.0)	567(100.0)	262(100.0)	672(100.0)

제4절 진학 계획

2007학년도 대학 진학 계획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2.5%, 4년제 대학생의 4%가 대학에 다시 진학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자의 13.8%, 미취업자의 45.6%가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대학 재진학 계획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자의 대학 진학 계획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20> 2007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 여부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예	14(2.5)	49(4.0)	36(13.8)	128(45.6)
아니오	553(97.5)	1,173(96.0)	228(86.2)	153(54.4)
전체	567(100.0)	1,221(100.0)	264(100.0)	281(100.0)

2007학년도에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는 패널의 대학 입시 준비 내용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10.7%, 4년제 대학생의 23.7%, 취업자의 2.8%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미취업자에서는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년제 대학생 6.9%, 4년제 대학생 2.1%, 취업자 5.9%, 미취업자 3.4%가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과 비진학자 모두에서 2~7%정도로 저조한 수준이다. EBS 수능 특강을 시청하고 있는 비율은 4년제 대학생이 27.3%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 13%, 취업자 9.2%의 순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과외를 받고 있는 비율은 4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에서 21~22%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며, 2년제 대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는 10%미만이다.

<표 VI-21> 대학입시 준비 내용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학원을 다니고 있다	예	2(10.7)	12(23.7)	1(2.8)	94(73.2)
	아니오	13(89.3)	37(76.3)	35(97.2)	34(26.8)
	전체	14(100.0)	49(100.0)	36(100.0)	128(100.0)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다	예	1(6.9)	1(2.1)	2(5.9)	4(3.4)
	아니오	13(93.1)	48(97.9)	34(94.1)	124(96.6)
	전체	14(100.0)	49(100.0)	36(100.0)	128(100.0)
EBS 수능특강을 시청하고 있다	예	0(0.0)	13(27.3)	3(9.2)	17(13.0)
	아니오	14(100.0)	35(72.7)	33(90.8)	111(87.0)
	전체	14(100.0)	49(100.0)	36(100.0)	128(100.0)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과외를 받고 있다	예	1(8.6)	10(20.8)	3(9.6)	29(22.7)
	아니오	13(91.4)	39(79.2)	33(90.4)	99(77.3)
	전체	14(100.0)	49(100.0)	36(100.0)	128(100.0)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년제 및 4년제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231,043원, 191,986원으로 2년제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4년제 대학생 보다 4만원정도 더 많으며, 이는 4년제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1.2배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9,173원이고, 미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1,219원으로 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 보다 약 10배정도 더 많게 나타난다.

각 그룹별 사교육비 분포를 비교해 보면, 2년제 대학생, 취업자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0원'인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4년제 대학생에서는 '10만원이상~20만원미만'이 27.5%로 가장 많으며, 미취업자에서는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이 42.7%로 가장 많다. 또한 취업자의 71.1%가 사교육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10.5%만이 사교육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취업자의 55.7%가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2>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0원	3(49.1)	3(8.3)	25(71.1)	13(10.5)
0원 초과~5만원 미만	0(0.0)	0(0.0)	4(10.0)	2(1.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0(0.0)	7(22.3)	1(1.5)	1(0.6)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0(0.0)	9(27.5)	2(6.5)	10(8.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0(0.0)	5(16.4)	0(0.0)	7(5.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2(26.8)	2(6.4)	2(7.0)	7(5.1)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0(0.0)	3(7.6)	1(1.7)	17(13.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24.1)	4(11.4)	1(2.3)	55(42.7)
100만원 이상	0(0.0)	0(0.0)	0(0.0)	17(13.0)
전체	6(100.0)	33(100.0)	36(100.0)	128(100.0)
평균	231,043원	191,986원	49,173원	501,219원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 과외 교습 시간 및 EBS 수능특강 시청시간을 보면, 2년제 대학생이 평일 3시간, 휴일 0시간, 4년제 대학생이 평일 2.7시간, 휴일 2시간, 취업자가 평일 1.2시간, 휴일 0시간, 미취업자가 평일 6.5시간, 휴일 4시간 동안 학원, 과외 교습 및 EBS 수능특강을 시청하고 있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이 평일 4.1시간, 휴일 4시간, 4년제 대학생이 평일 7.2시간, 휴일 7시간, 취업자가 평일 1.2시간, 휴일 1.1시간, 미취업자가 평일 4.9시간, 휴일 5.6시간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 입시 위해 일주일 동안 2년제 대학생이 43.6시간, 4년제 대학생이 67.2시간, 취업자가 14.1시간, 미취업자가 76.2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는 대학 입시를 위해 하루 평균 10시간정도 공부를 하고 있으며, 2년제 대학생은 6시간정도, 취업자는 2시간정도를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23>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시간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학원, 과외, EBS수능특강 시청 시간(평일)	0시간	3(41.2)	12(37.5)	29(81.4)	31(24.2)
	0시간 초과~1시간 미만	0(0.0)	0(0.0)	1(1.9)	0(0.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0(0.0)	6(18.2)	2(4.5)	4(3.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15.4)	4(11.9)	1(1.4)	3(2.2)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1(11.4)	6(17.5)	1(2.2)	11(8.7)
	5시간 이상~7시간 미만	0(0.0)	1(3.9)	1(1.6)	16(12.6)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32.0)	0(0.0)	0(0.0)	25(19.3)
	10시간 이상	0(0.0)	4(11.1)	2(6.9)	38(29.7)
	전체	6(100.0)	33(100.0)	36(100.0)	128(100.0)
	평균	3.0시간	2.7시간	1.2시간	6.5시간
학원, 과외, EBS수능특강 시청 시간(휴일)	0시간	6(93.6)	20(61.6)	32(86.8)	47(36.9)
	0시간 초과~1시간 미만	0(0.0)	0(0.0)	0(0.0)	0(0.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0(0.0)	0(0.0)	1(2.6)	4(2.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0(6.4)	2(7.5)	3(8.5)	5(4.3)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0(0.0)	5(15.8)	1(2.2)	34(26.8)
	5시간 이상~7시간 미만	0(0.0)	1(4.0)	0(0.0)	14(11.2)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	0(0.0)	0(0.0)	0(0.0)	6(4.8)
	10시간 이상	0(0.0)	4(11.1)	0(0.0)	17(13.2)
	전체	6(100.0)	33(100.0)	36(100.0)	128(100.0)
	평균	0시간	2.0시간	0시간	4.0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평일)	0시간	0(5.3)	1(2.9)	17(47.6)	12(9.5)
	0시간 초과~1시간 미만	0(0.0)	0(0.0)	0(1.1)	0(0.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0(6.8)	2(4.8)	8(20.7)	6(4.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11.4)	4(11.9)	8(21.4)	9(7.3)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3(40.1)	2(6.5)	1(3.8)	18(13.7)
	5시간 이상~7시간 미만	0(6.4)	10(29.1)	1(2.1)	50(39.1)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29.9)	5(15.4)	1(1.6)	25(19.7)
	10시간 이상	0(0.0)	10(29.5)	1(1.7)	7(5.9)
	전체	6(100.0)	33(100.0)	36(100.0)	128(100.0)
	평균	4.1시간	7.2시간	1.2시간	4.9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휴일)	0시간	1(16.8)	3(7.6)	17(47.1)	8(6.0)
	0시간 초과~1시간 미만	0(0.0)	0(0.0)	0(0.0)	1(0.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0(6.8)	1(2.2)	6(15.4)	7(5.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0(0.0)	5(14.5)	10(28.2)	8(6.4)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3(46.5)	2(7.4)	2(5.4)	22(17.1)
	5시간 이상~7시간 미만	0(0.0)	5(14.7)	1(3.8)	34(26.4)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29.9)	10(30.5)	0(0.0)	32(24.6)
	10시간 이상	0(0.0)	8(23.1)	0(0.0)	17(13.1)
	전체	6(100.0)	33(100.0)	36(100.0)	128(100.0)
	평균	4.0시간	7.0시간	1.1시간	5.6시간

희망 대학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미취업자는 ‘주간 4~6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반면, 취업자는 ‘주간 2~3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의 경우 ‘주간 4~6년제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85%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생과 미취업자에서는 야간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취업자에서는 야간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20%로 대학생과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희망 대학을 결정한 비율은 취업자가 5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생(56.4%), 미취업자(47.2%), 2년제 대학생(28.4%) 순이다.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희망 대학을 결정할 비율이 높으며, 취업자가 미취업자 보다 희망 대학 결정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VI-24> 희망 대학 유형 및 결정 여부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희망 대학 유형	주간 4~6년제	10(73.3)	42(85.3)	10(29.6)	109(85.1)
	주간 2~3년제	4(26.7)	7(14.7)	17(50.4)	19(14.9)
	야간 4~6년제	0(0.0)	0(0.0)	3(9.7)	0(0.0)
	야간 2~3년제	0(0.0)	0(0.0)	4(10.3)	0(0.0)
	전체	14(100.0)	49(100.0)	35(100.0)	128(100.0)
희망 대학 결정 여부	예	4(28.4)	27(56.4)	22(59.5)	60(47.2)
	아니오	10(71.6)	21(43.6)	15(40.5)	68(52.8)
	전체	14(100.0)	49(100.0)	36(100.0)	128(100.0)

희망 전공을 결정한 비율은 취업자가 79.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생 74.3%, 2년제 대학생 68.7%, 미취업자 67.8% 순으로 나타난다.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희망 전공을 결정한 비율이 더 높으며, 취업자가 미취업자 보다 희망 전공 결정 비율이 더 높다.

희망 전공 계열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은 ‘예체능계열’(34.3%)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30.2%)을 희망하였다. 4년제 대학생은 ‘교육계열’(25.2%)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16.7%)을 희망하였다. 취업자(28%)와 미취업자(32.8%)는 ‘사회계열’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자는 ‘의학계열’(20.4%), 미취업자는 ‘교육계열’(13.6%)이 많았다.

<표 VI-25> 희망 전공 결정 여부 및 희망 전공 계열

(단위 : 명(%))

		대학생		비진학자	
		2년제	4년제	취업자	미취업자
재진학 희망전공분야 결정여부	예	10(68.7)	36(74.3)	29(79.4)	87(67.8)
	아니오	4(31.3)	13(25.7)	8(20.6)	41(32.2)
	전체	14(100.0)	49(100.0)	36(100.0)	128(100.0)
희망전공계열	인문계열	1(15.1)	4(10.2)	4(12.3)	7(8.0)
	사회계열	1(14.3)	6(16.7)	8(28.0)	29(32.8)
	교육계열	0(0.0)	9(25.2)	2(7.3)	12(13.6)
	공학계열	3(30.2)	5(13.9)	3(10.0)	9(10.7)
	자연계열	1(6.1)	1(2.3)	1(3.9)	10(11.9)
	의학계열	0(0.0)	6(16.3)	6(20.4)	10(11.9)
	예체능계열	3(34.3)	6(15.5)	4(15.4)	10(11.1)
	미분류	0(0.0)	0(0.0)	1(2.7)	0(0.0)
	전체	10(100.0)	36(100.0)	29(100.0)	87(100.0)

대학생의 편입이나 전과 계획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23%, 4년제 대학생의 18.5%가 편입이나 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편입이나 전과 계획에 대한 학년제별 응답 분포를 보면, 2년제 대학생에서는 ‘졸업 후에 학사 편입 할 것이다’란 응답이 14.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졸업 이전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것이다’(7.4%)란 응답이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졸업 이전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것이다’란 응답이 1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같은 대학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 할 것이다’(5.9%)란 응답이 많았다.

<표 VI-26> 편입(전과) 계획 여부

(단위 : 명(%))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같은 대학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할 것이다	7(1.3)	69(5.9)
졸업 이전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것이다	41(7.4)	124(10.5)
졸업 후에 학사 편입할 것이다	79(14.3)	24(2.1)
전과나 편입 계획이 없다	425(77.0)	956(81.5)
전체	552(100.0)	1,173(100.0)

편입할 전공과 현재 전공의 일치 여부에 대해 2년제 대학생의 65.2%, 4년제 대학생의 56.5%가 현재 전공과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전공 일치도가 4년제 대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다.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편입을 하려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에서는 ‘학력 상승(대학원 진학)’(35.3%)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 전망’(26.1%), ‘대학 평판’(18.2%), ‘적성 고려’(13.8%) 순으로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취업 전망’(31.4%)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학 평판’(29.4%), ‘적성 고려’(15.4%), ‘학력 상승(대학원 진학)’(12.9%) 순으로 많았다.

<표 VI-27> 편입 전공과 현재 전공 일치 여부 및 편입을 하려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편입 전공과 현재 전공 일치 여부	예	78(65.2)	82(56.5)
	아니오	42(34.8)	63(43.5)
		전체	120(100.0)
편입을 하려는 주된 이유	취업 전망	31(26.1)	46(31.4)
	대학 평판	22(18.2)	43(29.4)
	학력 상승(대학원 진학)	42(35.3)	19(12.9)
	등록금 부담	0(0.0)	2(1.1)
	적성 고려	16(13.8)	23(15.4)
	주변의 권유	3(2.4)	7(4.5)
	기타	5(4.2)	8(5.2)
	전체	120(100.0)	148(100.0)

대학생의 해외 유학 계획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20.1%, 4년제 대학생의 37.5%가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1.9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해외 유학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시기를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의 85.5%, 4년제 대학생의 74.9%가 2008년 이후에 유학을 갈 계획이며, 2년제 대학생의 3.3%, 4년제 대학생의 2.5%는 1년 이내(2006년)에 해외 유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I-28> 해외 유학 계획 여부 및 시기

(단위 : 명(%))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해외 유학 계획 여부	예	114(20.1)	456(37.5)
	아니오	453(79.9)	762(62.5)
	전체	567(100.0)	1,218(100.0)
해외 유학 계획 시기	2006년 안에	4(3.3)	11(2.5)
	2007년	13(11.2)	103(22.7)
	2008년 이후	97(85.5)	341(74.9)
	전체	114(100.0)	455(100.0)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에서는 ‘일본’(28.7%)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북미주(미국, 캐나다)’(26.6%), ‘유럽’(23.6%), ‘호주·뉴질랜드’(14.5%) 순으로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북미주(미국, 캐나다)’(37.4%)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유럽’(20.2%), ‘호주·뉴질랜드’(13.1%), ‘일본’(12.5%), ‘중국’(10.7%) 순으로 많았다. ‘일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년제 대학생(28.7%)이 4년제 대학생(12.5%) 보다 높은 반면, ‘중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년제 대학생(10.7%)이 2년제 대학생(3.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29> 해외 유학 계획 국가

(단위 : 명(%))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북미주(미국, 캐나다)	30(26.6)	170(37.4)
유럽	27(23.6)	92(20.2)
일본	32(28.7)	57(12.5)
중국	4(3.4)	48(10.7)
동남아	1(0.8)	11(2.4)
호주, 뉴질랜드	16(14.5)	60(13.1)
기타	3(2.4)	17(3.7)
전체	113(100.0)	453(100.0)

▣ 저자 약력

- 유한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신동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민주홍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손희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류지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7)
-제3차(2006)년도 자료 분석-

- | | |
|-----------|--|
| · 발행연월일 | 2009년 10월 30일 인쇄
2009년 10월 31일 발행 |
| · 발행인 | 권대봉 |
|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 · 인쇄처 | 선우인쇄 (02)2272-6105, 6106 |
|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 · I S B N | ISBN 978-89-6355-113-5 9332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가 6,000원>